

2023년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북한사회변화연구 국제학술회의

# 페미니즘, 북한사회의 변화에 주목하기

---

8월 22일(화) - 23일(수) 14시 - 17시  
상연재 서울역점 R10

주최 |



사단  
법인 한국여성정치연구소  
Center for Korean Women & Politics



2023년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북한사회변화연구 국제학술회의

# 페미니즘, 북한사회의 변화에 주목하기

## 프로그램 순서

### 8월 22일(화)

14:00-14:10 개회사 김은주(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축사 김영주(국회 부의장), 장필화(한국여성재단 이사장)

#### 14:10-15:30 Session I 페미니즘과 북한

사회 조정아(통일연구원)

발표 페미니즘과 북한연구 의의와 과제(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토론 Suzy Kim(렛거스대), 현인애(이화여대)

#### 15:40-17:00 Session II 시장과 여성

사회 김성경(북한대학원대학교)

발표 북한 시장활동 여성들의 비공식관계망 연구(조현정 이음연구소)

토론 박희진(동국대), Nguyen Thi Thanh Thuy(베트남여성정책연구원)

### 8월 23일(수)

#### 14:00-15:30 Session III 기업과 소비생활

사회 김영희(남북하나재단)

발표 북한 기업자산 변화에 대한 연구(전경주 이화여대)

토론 임을출(경남대)

발표 북한 생활쓰레기를 통해 본 소비생활(강동완 동아대)

토론 최설(자유아시아방송)

#### 15:40-17:00 Session IV 문화와 음악정치

사회 이택광(경희대)

발표 북한예술의 역사적 고찰: 대공연을 중심으로(최금희 대구가톨릭대)

토론 Brian Reynolds Myers(동서대), 전영선(건국대)





## 페미니즘, 북한사회의 변화에 주목하기

### 목차

- 07 **개회사:** 김은주(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10 **축사:** 김영주(국회 부의장)  
장필화(한국여성재단 이사장)

#### ■ Session I. 페미니즘과 북한

- 15 **발표 :** 페미니즘과 북한연구: 의의와 과제  
조영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27 **토론 1:** Suzy Kim(릿거스대)  
35 **토론 2:** 현인애(이화여대)

#### ■ Session II. 시장과 여성

- 41 **발표 :** 북한 시장활동 여성들의 비공식관계망 연구  
조현정(이음연구소)  
51 **토론 1:** 박희진(동국대)  
57 **토론 2:** Nguyen Thi Thanh Thuy(베트남 여성정책연구원)

#### ■ Session III. 기업과 소비생활

- 63 **발표 1:** 북한 기업자산 변화에 대한 연구  
전경주(이화여대)  
73 **토론 1:** 임을출 (경남대)  
81 **발표 2:** 북한 생활쓰레기를 통해 본 소비생활  
강동완(동아대)  
101 **토론 2:** 최설 (자유아시아방송)

#### ■ Session IV. 문화와 음악정치

- 107 **발표 :** 북한예술의 역사적 고찰: 대공연을 중심으로  
최금희(대구가톨릭대)  
117 **토론 1:** Brian Reynolds Myers(동서대)  
123 **토론 2:** 전영선(건국대)



## 개회사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김은주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연구소가 개최하는 2023 <북한사회변화연구 국제학술회의>를 위해 온라인과 토론회장으로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시길 김영주 국회의장님, 장필화 한국여성재단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또한 좌장을 맡아주신 조정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님, 김영희 남북하나재단 대외협력실장님, 이택광 경희대학교 교수님 감사합니다.

또한 8월 22일과 23일 양일 동안 진행되는 본 국제학술회의에서 귀한 논문을 발표해주실 조영주 박사님과 조현정, 전경주, 강동완, 최금희 박사님 그리고 이 다섯 분의 논문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더해주시길 수지 김 박사님과 현인애, 박희진, 응웬 티 탄 투이, 임을출, 최설, 브라이언 레이놀드 메이어, 전영선 박사님 감사합니다.

특히 시차의 어려움에도 흔쾌히 토론에 응해주신 미국 럿거스 대학 수지 김 교수님과 베트남 여성정책연구소의 응웬 티 탄 투이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하는 <2023 북한사회변화연구 국제학술회의>의 주제는 “페미니즘, 북한사회의 변화에 주목하기”입니다.

김정은 체제 12년 동안 시장과 기업, 소비생활과 문화영역에서 일어난 변화를 분석하고 이런 변화가 북한여성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페미니즘과 젠더관점에서 연구한다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한계를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북한의 변화, 즉 90년대 중반 경제적 대위기 이후 배급제의 폐지와 시장의 도입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집단은 북한 여성들입니다.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장마당이나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은 기혼여성들에게만 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기혼여성이 아니어도 상업활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년이 지

난 지금 북한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소위 자본주의 영역이라 하는 시장을 중심으로 사장이나 근로자, 전주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변화와 더불어 나타난 또 하나의 변화는 북한이 유엔의 CEDAW 즉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에 관한 철폐협약(즉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고 국가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입니다. CEDAW는 협약 제18조에 의거하여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1년 이내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4년마다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은 2001년에 CEDAW에 가입하고 2002년에 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했고 14년만인 2016년에 2,3,4차 통합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물론 북한당국이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없지 않았겠지만 이런 행보는 시장화 이후 북한여성들의 역할과 지위에 있어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사회의 변화에 대해 경제나 정치적 관점의 접근만이 아니라 페미니즘이나 젠더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국제학술회의 주제를 “페미니즘, 북한사회의 변화에 주목하기”로 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북한사회의 변화에 대한 젠더적 관점의 분석이 중요해졌지만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들이 존재합니다. 무엇보다도 현장방문이 어렵고 자료접근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국제학술회의는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북한사회변화에 대한 젠더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2022년에 탈북연구자의 북한사회변화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3팀이 공모에 당선되어 지난 1년 동안 북한연구 전문가들의 자문아래 연구를 수행했고 최종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이 3팀의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북한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남한사회와는 다른 사회화를 경험한 탈북연구자들이 바라보는 북한 사회의 변화에 대한 분석과 해석은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북한 연구에 또 하나의 관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2020년의 국제학술회의는 “북한사회의 변화, 여성, 시장화 그리고 문화”를 주제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코로나 시대, 북한여성의 미래 :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제1, 2회 국제학술회의에서는 북한사회의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의 여성들의 변화, 즉 변화라는 현상 자체에 주목했다면 이번 제3회 국제학술회의는 한 편로는 북한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변화를 추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변화에 대한 페미니즘과 젠더적 관점의 분석이 갖는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북한사회변화에 대한 젠더분석연구가 활성화되는데 작으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북한사회변화연구 국제학술회의〉는 국내외 북한 연구자들의 교류를 촉진하고 북한사회의 변화를 여성의 위치에서 조망하여, 변화의 내적 동학과 변화의 함의를 찾는데 있습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도 부족하지만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혹여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더라도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에서 사회자와 발표자,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많은 국내외 전문가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축사



김영주 (대한민국 국회 부의장)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 출신 국회부의장 김영주입니다.

2023 북한사회변화연구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사를 주최해 주신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님을 비롯한 연구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990년 설립된 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그동안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가장 앞장서 활동해 오신 대표적인 여성운동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 또한 김정은 집권 12년차를 맞이한 현재, 페미니즘의 관점으로 시장, 기업 그리고 문화 영역에서의 북한사회 변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학술회의라 생각합니다.

북한은 1980년대 말,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해 1990년대 중반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배급이 중단되고 공장이 멈춘 상황에서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장마당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북한 사회는 북한 여성들에 의해서 변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북한여성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은 시장을 매개로 확대되었습니다.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여성들의 강한 생존력과 희생은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7년 IMF 당시, 우리나라 여성들은 장롱 속 결혼 예물과 애기 돌반지를 꺼내놓으며 국가부채를 갚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하게 된 바탕에는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단단한 주춧돌이 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국제사회 또한 여성이 가진 능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1년, 유엔여성기구의 초대 의장인 미첼 바철틀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서는 여성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을 비롯하여 여성이 가진 잠재력과 경제력을 인류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발전에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가 여성의 시각으로 북한의 변화에 주목해 향후 남북한 여성들의 교류 확대와 공감대 형성에 밑거름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2023 북한사회변화연구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현장과 온라인에서 함께 해주고 계신 참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축사



장필화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안녕하세요?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장필화입니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2023년 북한사회변화연구 국제학술회의를 주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특히 이번 국제학술회의가 페미니즘 시각을 가지고 북한사회의 변화를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아주 큼니다.

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80년대 말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연이은 자연재해, 그리고 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는 엄청난 경제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여성들의 강한 생존능력과 희생적 역할은 국가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이 과정에서도 잘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제 문화가 강하게 유지되는 사회에서 여성의 존재는 늘 남성 권력의 보조자로 인식되기 때문에,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북한 사회는 뿌리 깊은 가부장 권력의 위계가 가정과 사회 저변에 확산되어 여성인권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대표성이 확산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유엔은 2000년 밀레니엄 시대를 맞으면서 전 세계가 빈곤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그리고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를 발표했습니다. 유엔은 이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관점이 핵심도구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즉 여성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만 밀레니엄 계획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강조해왔습니다.

이렇게 국제사회는 각 국가가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을 이행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 폭력을 방지하여 여성이 가진 잠재력과 경제력을 인류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발전에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또 실천하고 있습니다.

남북은 1991년에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공존, 번영을 위해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분쟁, 기후위기, 폭력, 반인륜적 범죄 행위 등을 막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북한은 2016년 CEDAW에 여성아동인권실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 과제 수행의 첫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북한사회가 고립되지 않고, 협력과 연대를 통해 인류 공존 기반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로 3번째를 맞이하는 국제학술회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북한 사회가 변화하는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국제적 협력과 연대의 기반을 확대한다는 매우 뜻깊은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학술회의에서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북한 연구 전문가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남북관계가 어려운 이 시기에도 꾸준히 북한사회변화에 대한 연구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향해서 실천하고 있는 한국여성정치연구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페미니즘과 북한

## Session I.

발표문

### 페미니즘과 북한연구의 의의와 과제

---

조 영 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페미니즘, 북한사회의 변화에 주목하기



[발표문]

페미니즘과 북한연구의 의의와 과제

조영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여성학<sup>1)</sup>과 북한학의 공통점과 차이점

- 여성학은 넓은 의미에서 여성에 대한 연구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여성에 대한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요구하는 학문임. 다시 말해 ‘여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서부터 무엇을 문제제기할 것인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어떤 문제의식에서 연구가 출발하는가에 대한 엄밀한 고민과 성찰을 요구함. 이때 페미니즘은 이념이자 관점이며, 연구이자 실천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음.
- 북한학은 북한에 대한 연구로 통칭할 수 있는데, 특정한 관점이 학문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로 작동한다기보다 관점에 따라 연구의 내용과 목적이 달라진다는 특징을 가짐.
- 두 학문은 ‘대상’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짐. 여성학은 ‘여성’을, 북한학은 ‘북한’이라는 대상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다학제적 성격을 띠 수밖에 없음. 여성학과 북한학이 분과학문으로 자리잡기까지 다양한 학문분과, 즉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문화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여성 또는 북한을 연구해 온 맥락이 있음. 현재도 제도화된 ‘여성학’, ‘북한학’이 아닌 여러 학문 분야에서 여성과 북한을 연구하고 있음.
- 한편, 여성학은 분과학문으로서 정체성을 만들어가기 위해 자체적 이론, 인식론, 방법론, 연구방법을 고민해왔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학문분야의 논

---

1) 이 글에서 페미니즘이 아닌 여성학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페미니즘의 지평이 매우 포괄적이고 페미니즘은 관점과 실천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광범위하므로 학문으로서 여성학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고자 하기 때문임.

의들을 차용하면서도 여성학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학 이론, 인식론, 방법론을 구성해옴. 이때 여성학은 불평등한 젠더관계, 권력을 문제화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으면서 기존 학문에 대한 문제제기가 전제됨. 반면, 북한학은 독자적 학문으로서 이론, 인식론, 방법론을 구성했다기보다 학제 간 연구로서 특성이 더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음. 다시 말해 기존 학문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주제와 접근 방법이 북한 연구의 각 주제에 따라 적용되는 경향이 있음.

## 2. 여성학과 북한학의 만남, 성과와 한계

- 여성학과 북한학이 만나는 방식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북한 여성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 연구에서 여성학적 논의를 활용하는 것임. 전자와 후자가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음. 북한 여성 연구에서 여성학적 관점을 반영한다고 한다면 북한 연구에서 여성학적 논의를 활용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임. 그런 점에서 후자가 좀 더 포괄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음.
- 여성학과 북한학의 만남이 북한여성연구를 비롯한 북한연구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음. 물론 북한학의 성과들이 여성학과 북한학의 만남에서 기인한다고 규정할 수는 없으나 각 학문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여성학이 제기한 문제제기들이 북한학에서는 뒤늦게 논의되어 온 측면이 있고, 여성학적 논의가 북한학에서 활용된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두 학문의 만남이 가져온 성과를 논의할 수 있다고 봄.
- 여성학이 그동안 제기해 온 여러 문제의식과 그에 따른 학문의 발전 과정에서 고민되어온 인식론, 방법론,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북한 연구와 맞닿는 부분이 있음. ‘타자’로서 여성 또는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성’ 또는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각 대상을 연구할 것인가, 연구의 대상과 연구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등에 관한 것임.
- 우선 연구 대상인 ‘북한’과 ‘여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학문에서

중요시하는 ‘객관성’의 문제와 연구자의 위치에 관한 것임. 통상 객관성은 연구자의 관점과 이해, 이념 등을 벗어난 중립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연구자는 연구 대상으로 완전히 분리된 관찰자로서 위치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함. 하지만 여성학은 이러한 기존의 객관성을 문제 제기해 옴. 온전히 연구자와 연구 대상은 분리될 수 없으며, 연구자의 입장과 관점이 배제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오히려 연구자의 성찰과 연구자의 입장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 객관성은 확보될 수 있다고 봄. 더욱이 여성학은 여성 억압과 차별을 야기하는 권력과 구조를 문제제기 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경험과 입장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보며 ‘맥락성’을 강조해 옴. 북한학은 당사자가 아닌 이들이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 연구 대상에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점, 북한 당국이 생산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를 한다는 점에서 객관성에 문제제기를 받음.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접과 질적 연구를 통해 연구가 수행되어 왔는데 이때도 북한이탈주민이 갖는 위치성으로 인해 객관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음. 그리고 남북관계의 특성으로 인해 연구와 학문에 이데올로기가 개입된다는 점도 북한 연구에서 객관성을 문제화하게 됨. 이와 관련한 여성학은 달성가능한 객관성은 없기에 달성불가능한 객관성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조건이나 절차를 만드는 것보다 객관성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기존의 실증주의적 객관성을 대체하는 개념들을 구성하는 것에 관심을 두어 옴. 또한 이데올로기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성학은 기존 연구가 갖는 남성중심성,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드러내면서 어떤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지식을 생산하게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확장해 옴. 그런 측면에서 북한연구 역시 기존의 객관성 개념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연구자의 위치성과 연구자와 연구대상의 관계에 대한 성찰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확장되는 것이 더 중요함. 관련하여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이르기까지 북한 연구에서 이루어진 방법론적 논쟁은 매우 유의미한 과정이라 여겨짐. 이 시기 북한 연구자들의 방법론적 논쟁은 북한에 대한 인식론적 성찰과 방법론에 대한 문제제기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성과를 남김. 분단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어 있음을 문제화함으로써 기존 패러다임에 도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구자를 객관적 위치에 두고 어떻게 하면 북한 사회를 잘 관찰할 수 있는

지, 어떤 주장과 이론, 접근이 더 북한 사회를 잘 설명해주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음.

- 여성학에서 중요하게 고민하는 개념으로서 ‘타자’, ‘타자화’, ‘주체성’을 살펴볼 수 있음. 북한 연구 역시 북한을 ‘타자화’ 하는 방식에 문제제기를 해 옴. 북한학 내부에서도 타자화를 문제제기하고 외부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짐. 조한혜정은 “북한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현재 대부분이 자체 내 시각 교정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당히 안일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북한 사회를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방 사회를 연구하듯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며 비판함.<sup>2)</sup> 이러한 비판은 연구자의 연구대상에 대한 인식을 성찰할 것을 요구함. 연구자 자신이 북한 사회와 어떤 관계성을 갖는가, 연구자는 어떤 위치성을 갖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임. 이러한 문제제기는 연구자의 위치성과 관계성을 주목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여성연구의 경우 방법론적 논쟁을 가시화하지는 않았지만 개별연구자들이 연구 과정에서 이러한 성찰을 수행해옴. 여성의 경험에 천착하고 여성의 입장에서 그 경험을 들여다보려는 여성연구의 특성과 질적 연구의 도입을 통한 인식론적 전환이 그러한 성찰을 가능하게 함. 한편, 주체성과 행위성 역시 최근 북한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임. 주체의 문제는 페미니즘 정치학에서 중대한 문제로, 여성 주체에 대한 고민은 여성 억압적 질서를 해체하고자 하는 목적과 ‘여성’으로 범주화되는 존재의 정체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으로 중요한 이슈임. 그동안 여성이라는 정체성과 주체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왔던 페미니즘은 더 이상 주체를 고정되어 있거나 변하지 않는 용어로 간주하지 않음.<sup>3)</sup> 버틀러의 경우 행위 주체성은 행위자를 선형적으로 가정하지 않고 행위를 통해서만 행위 주체가 형성된다고 보며, 주체는 고유한 본질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담론 안에서 생산되는 것이며 단어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맥락 속에서 발언함으로써 행동한다고 봄.<sup>4)</sup> 이러한 버틀러의 여성 주체에 대한 관점과 논의는 본질적인 여성으로서 존재가 아닌 여성이 행하는 행위 자체의 중요성을 강

2) 조한혜정(2000), “통일 공간과 문화: 비판적 재해석”, 조한혜정·이우영 엮음, 『탈분단 시대를 열며: 남과 북, 문화공존을 위한 모색』, 서울: 삼인.

3) 주디스 버틀러, 『젠더 트러블』, 파주: 문학동네, 2008.

4) 조현준, 『젠더는 패러디다』, 서울: 현암사, 2014, 11쪽.



조한다는 점에서 중요함. 왜냐하면 행위가 이루어지는 맥락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질 때 여성의 행위가 갖는 의미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임. 그리고 본질적인 여성 또는 단일화된 여성이 아니라 여성 ‘들’을 드러낼 수 있고 여성의 선택과 행위에서 드러나는 모순들을 해명할 수 있기 때문임. 이는 구조와 행위의 이분법을 극복하는 시도이기도 함. 최근까지도 북한 연구에서는 권력과 피권력은 구별되어 왔고, 주민의 행위성 역시 이분법적 시각에서 설명되는 경향이 있어 옴. 저항과 순응, ‘~주의’와 ‘~주의’의 대비 등 이분법적 시각에서 여러 경험과 현상의 다층적 의미를 단순화해 온 경향이 있음. 과거와는 다른 현상을 개념화하고 설명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개념화가 경험과 경험에 내재된 의미를 단순화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함. 관련하여 여성학은 경험에 대한 이분법적 접근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왔고 경험과 현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의미를 드러내고 그것을 맥락화하는 데 관심을 두어 옴. 이는 북한 연구에서도 경험의 해석과 의미를 부여하는 데서 그 경험이 이루어지는 맥락을 드러냄으로써 경험과 실천이 갖는 다층적 효과를 드러내는 데 더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경험과 실천의 의미를 드러내는 데서 특정한 개념화는 학문적으로 중요한 작업이지만 그러한 개념과학 도식화, 이분법적 구분을 결과하지 않는지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 이와 관련해 북한 연구도 ‘일상’, ‘하위문화’, ‘실천’ 등의 개념을 차용하면서 이분법적 관점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옴. 구조와 권력을 중심으로 북한 사회를 설명하고자 했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음. 주민 경험을 의미화하고 피권력집단의 행위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서 주민의 행위성을 부각시키고 주민의 행위에서 나타나는 다층성을 드러내고자 함. 이러한 노력은 북한연구에서 주제를 다양화하고 북한 사회에 대한 설명력을 더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 그리고 북한을 단순히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내부의 역동을 촘촘하게 살펴볼 수 있는 렌즈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함.

- 여성학과 북한학의 접목에서 두드러지는 성과 중 하나는 연구방법의 측면임. 연구방법은 인식론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때, 특정 연구방법의 도입은 해당 연구방법이 전제하는 인식론, 즉 객관성에 대한 입장, 연구자와 연구대상자와의 관계 등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기도 함. 그런 점에서 북한학

연구에서 다양한 연구방법을 도입하는 것은 인식적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함. 대표적으로 질적 연구의 도입을 살펴볼 수 있음. 질적 연구는 여성학 고유의 방법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여성학적 접근에서 질적 연구는 중요한 연구방법으로서 여성학이 문제제기한 여러 인식론적, 방법론적 문제를 함께 고민하게 하는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음. 북한학에서 질적 연구를 도입한 지는 오래되지 않음. 북한 연구에서 질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부터 북한이탈주민의 면접 자료는 연구의 자료로 활용되어 왔었음. 1990년대 중반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증하고 북한 사회 내부의 상황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접이 이루어지기 시작함. 초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접은 북한 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 경향이 있음. 공개되는 자료, 접근 가능한 자료에서 드러나지 않는 사실과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초기 접근이 이루어지는 한편으로 북한 사회에 대한 관심의 지평이 확대되면서 연구방법에 대한 고민도 이루어지기 시작함. 북한 연구에서 주제가 다양화되고 기존에 정치학자와 경제학자가 주를 이루었던 북한 연구에서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이 북한 연구를 시도하면서 연구방법 역시 다양화되기 시작함. 주로 북한 주민의 일상과 경험이 주제라던가 북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질적 연구가 확장되기 시작함. 그동안 가시화되지 않은 북한 주민, 북한 여성의 삶에 관심을 두면서 기존 북한 연구가 권력 중심 연구에 치중되었던 한계를 벗어나려는 노력들이 연구방법에도 확장성을 가져옴. 특히 기존 연구만으로는 북한 사회 내부의 역동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에 직면하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질적 연구가 본격화됨. 심층면접, 구술사 등의 연구방법을 통해 북한 여성을 비롯한 북한 주민의 경험을 듣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북한 사회 내부의 다층적 측면을 해석하게 됨. 북한 연구에서 면접 자료는 일반적으로 문헌 자료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어 온 경향이 있음. 이는 북한 정보에 대한 부족과 현장연구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제약으로 인한 결과임. 그리고 북한 주민의 경험세계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기도 함. 북한의 공식문헌에 나타나지 않는 북한 주민의 삶과 공식문헌으로 인해 왜곡 또는 숨겨지는 삶에 대한 관심, 그리고 실제 국가 정책과 공식담론과 주민들의 경험의 간극, 공식담론과 정체성 형성 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에서 면접이 적

극적으로 활용됨. 이러한 연구는 북한 주민의 구체적 경험에 집중하여 그들의 삶을 분석,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경험’이라는 점에서 의미화됨. 그런데 북한 연구에서는 여전히 질적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그 자체로 의미화되기보다 그 자료를 의미화하기 위한 정당화의 절차가 요구됨. 다시 말해 취득한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임. 과연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가라는 대표성 문제와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연구자의 위치성의 문제임. 이는 앞서 논의한 객관성, 연구자의 위치성 등에 관한 문제로 연구방법의 도입과 수행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이슈임. 대표성은 ‘한 개인’의 삶이 한 사회의 문화를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는가, 한 개인의 경험이 어떻게 전체 사회적 경험을 대표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sup>5)</sup>,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가, 연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이 ‘표준적인’ 북한 주민을 ‘대표’ 하는가라는 점<sup>6)</sup>에서 문제제기됨. 이 때도 결국 분단 상황에서 기인하는 이념의 문제가 개입되는 것임. 그리고 연구자의 위치성은 해석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 연구자가 얼마나 정확하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로 여겨짐. 연구자는 취득한 자료에 기초해서 관련된 경향적 사실들을 찾아내 체계적으로 정리하거나 그 사실들의 연결고리와 그 기제를 밝혀 설명하고 제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연구자는 북한 사회에 대한 ‘실체적 사실’의 규명 및 ‘객관적 지식’의 생산 문제와 일정한 긴장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임.<sup>7)</sup>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연구자들은 면접자와 자료를 늘리고, 교차 검증을 하고, 주제를 제한할 것을 제안함.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당초 질적 연구가 전제하는 객관성, 신뢰성, 연구자와 연구대상자의 관계를 간과한 것이라 할 수 있음. 그런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접을 단순히 자료를 취득하는 방법으로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질적 연구의 차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늘어나면서 기존 북한 연구가 한계로 지적하는 부분들을 다시 문제제기하고 북한 연구의 기존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특히 북한 여성 연구의 경우 이러한 질적 연구의 의미를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함에 따라 기존의 북한 여성 연구와는 다른 연구의 성과를 내고 있음. 과거 북한 여성 연구는

5) 유철인(1998),

6) 최봉대(2003),

7) 최봉대(2003),

‘북한’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최근 북한 여성 연구는 ‘여성’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고려하는 측면이 있음. ‘여성’이라는 집단 범주가 갖는 경험의 공통성과 함께 북한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임. 이는 북한 사회 연구에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부분임. 북한 사회의 특수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대상에 대한 설명력을 약화시킬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과 북한을 타자화하는 결과를 낳음. 그런 점에서 연구방법의 도입이 방법을 활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방법이 출발하게 된 정치성과 맥락성에 대한 고민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북한 연구의 진전이 가능할 것임.

### 3. 남은 과제들

- 여성학 혹은 페미니즘은 그동안 사회 변화를 목적으로 추구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주류 학문을 비판하며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음. 이는 구체적으로 연구의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양하게 하고, 이를 통해 연구 주제를 다양화할 뿐만 아니라 연구 대상의 다층적 측면들 드러내었음.
- 북한 연구 역시 그동안 수많은 학문적 성과를 내고 북한학 내부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노력들을 해왔음.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다양화되었고,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 역시 다양해지면서 북한 연구가 질적, 양적으로 성장해왔음.
- 그럼에도 여전히 북한 연구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조건이 있음. 분단 상황이 야기하는 접근 불가능성은 주제와 방법을 다양화하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된 여러 학문적 접근들이 앞으로도 지속, 확대될 필요가 있음. 당사자가 아니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설명하고자 했던 여성학적 성과와 접근, 페미니즘의 지향들을 북한 연구에서도 고민이 되어야 할 지점임. 누구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것인지, 듣고 재현하는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은 연구의 객관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줌. 또한 여성학은

현실을 바꾸기 위해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드러내고 개념화하는 데 많은 관심을 두어 옴. 이는 북한 연구에서도 충분히 활용되어야 할 부분임. 북한에서 발견되는 현상을 개념화하는 것과 함께, 발견되거나 관심을 두지 않았던 영역들을 가시화하고 이를 설명해내고자 하는 적극적인 연구자적 개입이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임. 이를 위해 그동안 페미니즘 혹은 여성학의 관점뿐만 아니라 여성학이 발굴해 낸 연구주제들을 북한 연구에 적용함으로써 북한 연구의 주제를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함. 여성과 사회의 현상을 개념화함으로써 문제를 드러내고자 했던 노력들이 북한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면 북한 사회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임.



페미니즘과 북한

## Session I.

토론문 01

### 페미니즘과 북한연구의 의의와 과제

---

김 수 지  
럿거스대학교



페미니즘, 북한사회의 변화에 주목하기





## [토론문]

### 페미니즘과 북한연구의 의의와 과제

김수지(릿저스 대학교)

이번 국제 학술회의에 초대해 주시고 조영주 박사의 논문에 대해 논평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랫동안 조영주 박사의 학문을 존경해 왔으며 이번 발표문의 토론자 중 한 명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발표문은 2021년 이화여대 북한연구회가 엮은 책의 여는 글<sup>1</sup>로 조영주 박사가 북한학에서 젠더 연구가 갖는 의미를 더 자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주 박사의 논문과 이것이 수록된 편저는 상세한 맥락을 제공하며 조영주 박사가 북한학에서의 젠더 연구 응용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중요한 참고자료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발표문의 제목이 조영주 박사의 야심 찬 의제 범위를 완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을 꼭 말하고 싶습니다. 발표문은 여성학과 젠더 연구의 비판적 방법론을 북한학에 적용해 온 학문 활동에서 나온 일종의 선언으로 하나의 분과학문으로서 북한학이 갖는 잠재력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러한 논지에 공감하며 조영주 박사의 주장에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 조영주 박사는 여성학과 북한학이 수렴하는 지점 중 하나가 '여성'과 '북한'이 타자로 인식됨으로써 발생하는 방법론적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운동의 직접적 성과인 여성학은 전통적 학술 분과가 내세우는 객관성의 허울에 도전하고 연구자의 주관성과 위치성이 미치는 기저의 영향을 강조해 왔습니다. 따라서 북한학이 (성평등과 같은) 특정한 관점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시사함으로써 북한학과 여성학을 구분하는 서두의 언급은 조영주 박사의 더 큰 주장을 번복하는 것처럼 보

---

1 조영주, “북한 사회에서 젠더연구의 의미”, <북한여성, 변화를 이끌다>, 이화여대 북한연구회 엮음(서울: 선인, 2021)

입니다. 북한학 또한 특정한 정치적 맥락에서 출현했으며 정교한 계획에 의해서건, 의도하지 않은 구조적 조건에 의해서건 정치적 의제들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평가들은 분명 인류학과 정치학에서 문학, 역사에 이르는 지역연구의 핵심 분야에서 북한학이 학제 간 방법을 통해 이룩한 진보를 자찬해 왔습니다.<sup>2</sup> 하지만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인 고병철 교수가 20여 년 전 쓴 북한학 연구동향 검토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논문은 영어로 쓰인 북한학 관련 출간물 중에서 아마도 분과의 연구동향을 다룬 최초의 논문일 것입니다.<sup>3</sup> 고병철 교수는 북한 관련 학술 문헌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더라도 북한학의 현 연구는 여전히 많은 취약함으로 정의될 수 있다라고 한탄했습니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구체적 결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 (1) 이론 연구와 비교 연구의 부족
- (2) 전반적인 방법론적 엄밀함의 결여
- (3) 자료상의 제약
- (4) 전문가의 부족
- (5) 정치적 제약과 이념적 편향
- (6) 일반적으로 연구성과가 축적되지 않는 경향

불행히도, 이러한 문제점들은 25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일반적으로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적을 파악하기 위해 출현한 냉전 지역학에 해당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미 전시정보국(CIA의 전신) 하에서 진행된 루스 베네딕트의 전시 연구는 이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로 1946년 <국화와 칼: 일본 문화의 유형(*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Patterns of Japanese Culture*)>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바 있습니다. 같은 시기였던 1941년에는 *Far Eastern Quarterly*(현

---

2 예컨대, Reconsidering North Korea: Methods, Frameworks, and Sources(special issue), *Journal of Korean Studies* 26, no. 2 (2021) 참조.

3 B. C. Koh, The State of North Korean Studies: A Critical Appraisal, *Korean Studies* 22 (1998): 1~14.

*Journal of Asian Studies*)의 발행인으로 아시아연구협회(Association for Asian Studies)가 창설되었으며, 이는 미국 내 아시아학의 제도화를 알리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냉전은 지역연구의 지정학을 가속화하고 공고히 했으며 소위 탈냉전 시기는 학문 연구와 정보 수집의 융합을 철폐하기는 커녕 국가안보의 명분으로 이를 전환했을 뿐입니다.<sup>4</sup>

학계, 재정지원 기관, 국가 정보기관의 결합에 도전하면서, 특히 미국의 베트남 전쟁에 대응하여 미국 내 자기 비판적 아시아 학자들은 지역연구가 (신)식민적 관행의 또 다른 반복에 지나지 않음을 폭로했습니다.<sup>5</sup> 냉전 종식 이후 자금이 고갈되면서 풍부한 재정이 지원되던 때와는 달리, 게토화와 고립을 겪고 기존의 학문 분과와 폭넓게 교류하지 못하는 등 학계 전반에 걸쳐 지역연구 학과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이것은 항상 의식적 선택에 의한 것은 아니었으며 많은 경우 오리엔탈리즘과 반공주의의 힘이 결합한 결과였습니다. 특히 아시아학의 경우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리 잡은 제도적 구조를 되돌리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차치하더라도 인문학의 위기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많은 지역학 프로그램은 고리타분하게 간주되는 가운데 북한학의 등장은 시대착오적인 현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sup>6</sup> 하지만, 언어와 문화적 능통함은

---

4 Asia, Asian Studies, and the National Security State: A Symposium(special issue), *Bulletin of Concerned Asian Scholars* 29, no. 1 (1997) 참조.

5 아사아연구자위원회(Committee of Concerned Asian Scholars, 1969-1979) 창립 선언문 참조. 선언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먼저 우리는 베트남에서의 미국의 야만적 공격과 이러한 정책에 대한 동료 연구자들의 공포 또는 침묵에 반대하기 위해 함께 모였다. 아시아학 분야의 종사자들은 본인 연구의 결과와 아시아학의 정치적 태도에 책임을 진다. 우리는 많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배를 확보하기 위해 실행되는 아시아 정책의 함의에 대해 지금과 같이 공개적인 발언을 꺼리는 전문가들의 미온적 태도에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의 정당성을 기각하며 이러한 정책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https://criticalasianstudies.org/about>.

6 냉전 시기 한미 연결망 속에서 북한 연구가 시작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김성보, "미국한국의 냉전 지식 연결망과 북한 연구의 학술장 진입", <사이間SAI>, 제22호 (2017): 9~36 참조.

학문 활동과 정보 수집 분야 모두의 공통된 일부였으며 많은 경우 정부 재정의 지원을 받는 지역학 프로그램을 통해 훈련되는 기술입니다.

현재 미국의 지역연구를 지원하는 정부 재정 중에는 교육부의 제VI편 프로그램(Title VI program)과 국무부의 중요 언어 프로그램(Critical Language program)이 포함되며, 이들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적 번영에 매우 중요한 지역과 관련해 신속한 언어 습득 및 필수적인 문화간 능통함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sup>7</sup> 현재 중요 언어에는 아랍어, 아제르바이잔어, 벵골어, 중국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한국어, 페르시아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와힐리어, 터키어, 우르두어가 포함됩니다. 14개 중요 언어 중 절반은 통상 아시아의 일부로 알려진 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일부 아시아학 프로그램처럼 중앙아시아와 중동을 포함한다면 지정학을 통해 어떠한 종류의 재지역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또 지역학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학이 번창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sup>8</sup>

북한학에서 특히 지배적인 민족과 국가 중심의 초점을 넘어 초국가적이고 세계화된 역사가 출현했음에도 북한학은 지난 30년간 한국학의 제도화된 하위분야가 되었습니다.<sup>9</sup> 이런 점에서 역사학자 김성보 교수는 비판적 한반도학 내에서의 북조선 연구를 촉구하면서, 한반도를 한민족의 터전으로 보는 민족적 접근이나 두 분단국가의 공간으로 보는 분단체제론적 접근을 뛰어넘어 다중적 공간과 복합적인 역사의 열린 장소로 포착한다고 할 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sup>10</sup>라고 묻고 있습니다.

---

7 <https://clscholarship.org/> 참조.

8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Yan Hairong and Daniel Vukovich, eds., *What's Left of Asia*(special issue), *positions: asia critique* 15, no. 2 (2007)와 Gavin Walker and Naoki Sakai, eds., *The End of Area*(special issue), *positions: asia critique* 27, no. 1 (2019) 참조.

9 Suzy Kim, *North Korean Studies in North America: A critical Overview of Recent Trends*, <역사와현실> 제93호(2014): 529-550.

10 김성보, "비판적 한반도학의 시각으로 본 북조선 연구-탈분단시대 지역학의 탐색", <동방학지> 제190호 (2020): 1~24 [10].

이러한 질문이 적절한 이유는 북한학의 문제가 남한학 (즉, 남한학의 결여)와 대비될 때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학은 Korea에 관한 모든 언급에서 남한의 해계모니를 거의 명시하지 않습니다. Korean language는 한국말을, Korean people은 한국사람을 가리키며, 이를 통해 북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고 그 존재를 부정당합니다. 냉전의 시대적 요청이 하나의 학문 분야로서의 아시아학을 형성한 것과 매우 흡사하게 전 세계의 코리아학과 언어 프로그램을 결정해 온 것은 남한의 기금과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북은 항상 남을 경유해 남한의 북쪽 또는 남한 북부를 의미하는 북한으로 정체됩니다. 사실, 북한학으로서의 북조선 연구는 탈냉전 시기 여러 연구소와 싱크탱크의 설립, 그곳에서 출간된 개별 간행물과 더불어 해결해야 할 하나의 문제로서 출현했습니다. 이것이 남한에서 시작된 것은 명백하지만, 그것은 북미와 유럽에도 널리 퍼졌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한국학 연구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유럽과 미주의 모든 센터에 제도적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한국학 연구소란 말 그대로 남한 연구 센터를 의미하며 북을 남의 일부로 은밀히 포섭함으로써 남한의 담화를 재생산합니다. 가장 먼저 이루어진 제도화 중 하나는 1989년 경남대학교의 학과로 개설되어 1998년 대학원으로 승격된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설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지정학이 학계 내에 어떻게 내재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조영주 박사가 제시한 방법론적 비판의 중요성에 동의하면서 저는 북한학이 진정 필요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통념적인 북한학의 해체를 촉구하면 안될까요? 아래에서 저는 지역학이 아닌 학제적 방법을 통해 북을 접근하는 것이 어떻게 더 생산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경우 학자들은 북에서 모성이 강조되는 이유를 유교나 가부장제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조영주 박사가 지적하듯, 이러한 용어들은 동아시아 전체에 적용될 수 있고 여성을 행위성이 없는 피해자로만 묘사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폭넓고 설명력이 부족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조영주 박사는 행위와 구조, 자유와 억압과 같은 기존의 이원적 패러다임을 적용하는 대신 정치적 맥락에 주목하여 북의 보편성(일반

성)과 구체성(특수성)을 함께 고려할 것을 우리에게 주문합니다. 조영주 박사는 북에서 모성이 강조되는 이유를 유교나 가부장제 대신 국가 동원과 통치성 기제와 같은 기능주의적 용어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주의적 기능을 부정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모성이 정치 담화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임에 주목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일반적 국가 거버넌스에서뿐만 아니라 냉전 시기 국제 여성운동이 활용한 특수한 전략으로서도 하나의 혼한 전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자세하게 설명했듯이, 1961년 개최된 북의 전국 어머니 대회는 이북 여성들이 1955년 국제민주여성연맹(Women's International Democratic Federation)이 주관한 세계 어머니 대회에 참석한 이후에 열렸으며 6.25전쟁 반대를 위한 어머니들의 동원은 냉전 시기 일어난 최초의 대중 평화운동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sup>11</sup>

요컨대, 북에서의 모성에 대한 호소는 결코 고유한 것이 아니며 세계 역사의 일부라 할 수 있습니다. 북쪽에 고유한 것은 이러한 모성에 대한 호소와 이에 동반되는 희생의 부담이 여성에게 국한되지 않고 남성을 비롯한 전 인민이 모방해야 할 이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결론은 이북 여성이 동참한 국제 여성운동사에 대한 문헌 연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영주 박사가 언급하듯이, 북한학과 관련해서는 질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연구가 부족한 이유 중 하나는 북에 대한 초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연구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학은 너무나 빈번하게 민족주의적 틀로 제한되고 이는 많은 경우 북측 자체의 고립주의에 의해 강화됩니다. 현장 연구 실시에 제약이 있음을 감안할 때, 역설적으로 북은 여성학 및 젠더 연구와 같은 학제적(학제간) 방법을 통해 북한학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지역학을 초국가화하는 이상적인 시범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

11 Suzy Kim, *Among Women across Worlds: North Korea in the Global Cold War*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23).

페미니즘과 북한

## Session I.

토론문 02

### 페미니즘과 북한연구의 의의와 과제

---

현 인 애  
이화여자대학교



페미니즘, 북한사회의 변화에 주목하기





## [토론문]

### 페미니즘과 북한연구의 의의와 과제

#### 현인에(이화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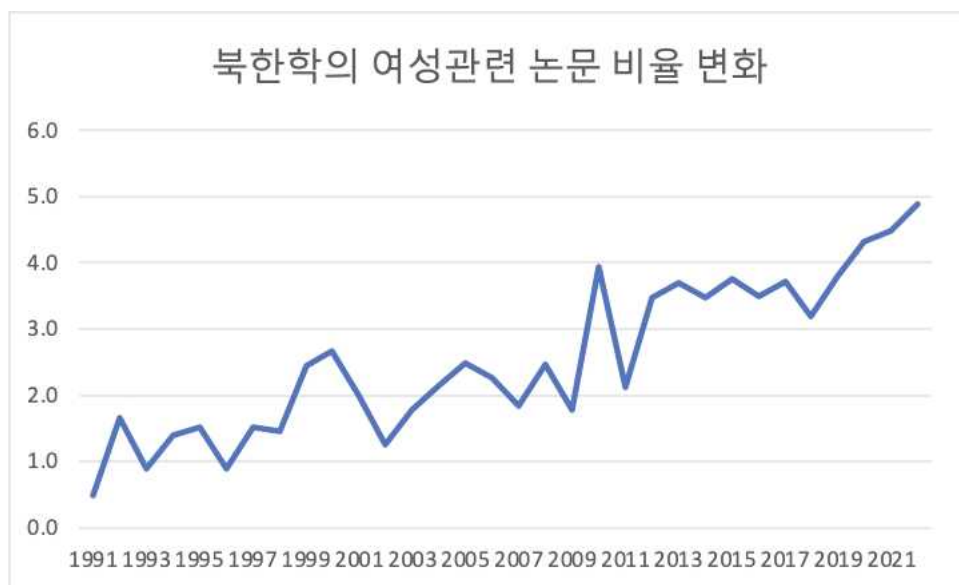
발표문은 페미니즘과 북한연구에 관한 고민을 함께 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발표문을 통해 페미니즘이 북한연구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페미니즘을 북한연구에 적용하는데서 어떤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정리할 수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보게 했다.

발표자가 지적했지만 지난 시기 북한연구에서 여성학이 뒤늦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정치가 모든 부문을 압도하고 있는 북한 체제의 특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북한 체제는 강력한 가부장적 제도에 기초하고 있고, 이러한 정치체제가 너무 강하므로 여성들의 자발적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북한 연구자는 먼저 정치체제를 주목하게 된다.

여성학은 북한연구자 특히 북한에서 살아온 탈북민 연구자에 있어서 낮은 학문이다. 남한에서 연구를 시작하던 초기에만 해도 여성학은 북한학과 거리가 먼 학문으로 여겨졌었다. 북한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남성과 여성의 관계 문제를 해결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남성과 여성이 힘을 합쳐 북한의 정치 경제체제를 바꾼 후에 여성문제를 푸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여성학에 대해 전혀 모르고 사는 많은 북한 여성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초기 북한 연구자들 중에 여성이 많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되었다고 생각된다. 여성학이 젠더학으로 발전하면서 남성연구자들도 적지 않게 여성연구에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 학문은 여성연구자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행스럽게 최근 여성 북한연구자들이 늘고 있고 북한 여성관련 논문이 늘고 있다. 북한에 직접 가볼 수 없고 자료도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도

절대적 논문 수는 많지 않지만 상대적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북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1990년에 비하면 여성관련 논문 건수가 10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이는 일반 여성관련 논문수의 증가율 9배보다 높다.



발표문에서 북한연구에서 객관성 확보, 이데올로기 개입 문제를 중요하게 논했는데 지난 기간 남한이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 문제가 된 것은 북한을 이상적인 사회주의 낙원으로 그리거나 반대로 북한을 반공의 관점에서 악마화한 극단적으로 편향된 해석이었다. 그런데 여성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해결되는 것 같다.

북한 여성관련 연구 주제는 주로 시장, 가족, 패션, 섹슈얼리티, 보건 등 여성의 일상이다. 이러한 연구물들이 증가하면서 북한을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던 사람들의 시각이 북한도 사람 사는 동네라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페미니즘은 북한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발표문에서 타자, 타자화, 주체성에 대해 논의했는데 이는 탈북민 여성연구자로서 고민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성의 주체성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형성된다고 하는 행위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본질적인 여성, 단일화된 여성이 아니라 여성 ‘들’을 드러낸다면 북한 여성들은 일반 여

성과 공통성도 있지만 차이도 가진다. 그런데 우리가 드러내고자 하는 북한여성의 특성을 너무 서방의 관점에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고민이 있다. 한때 여성운동이 상층여성에게 포커스를 두었던 것과 같은 편향을 오늘 반복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보곤 한다. 연구에서 이러한 성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탈북민 여성연구자로서 위치는 복잡적이다. 탈북민 여성연구자는 북한과 남한의 경계에 위치해 있고 여성 하층이 아닌 중층 상층의 어디엔가 있다. 북한을 경험한 것은 장점인 동시에 약점으로도 된다. 해방 직후 여성해방을 먼저 제창했던 북한이 오늘에 와서 여성문제에 전진이 없는 것은 여성이 여성문제 해결의 주체로 되지 못하는데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들은 자신의 문제는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해결에 나설 때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북한연구에서 여성관련 주제를 개발하고 여성학적 시각에서 북한 문제를 드러내고 풀어나가기 위해 탈북 여성연구자들이 더 많이, 더 깊이 있게 여성연구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장과 여성

## Session II.

발표문

### 북한 시장활동 여성들의 비공식관계망 연구

---

조 현 정  
이음연구소 대표



페미니즘, 북한사회의 변화에 주목하기



## [발표문]

### 북한 시장활동 여성들의 비공식관계망 연구<sup>1)</sup>

조현정(이음연구소 대표)

#### 1. 서론

본 연구는 북한 사회변화의 핵심 주체를 시장활동의 주체인 여성으로 보고, 그들을 중심으로 북한 사회의 기저에서 작동되는 비공식적인 관계망 또는 비구조화된 네트워크를 주목하고자 한다. 여성을 중심으로 하여 비공식적이며, 동시에 역동적인 인적 관계망이나 네트워크들을 탐색하는 것은 북한 사회의 변화나 북한 여성 연구에 있어서 강력한 실마리들을 제공하는 중요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북한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관계망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가? 무엇을 중심으로 각각의 관계망들이 형성 또는 유지되는가? 관계망 및 인적 네트워크들은 북한 여성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 와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하고, 북한을 탈출한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그들의 비공식 사회관계망 형성의 양상을 다각도로 탐구보고자 한다.

#### 2. 북한의 공식·비공식 사회관계망 변화

북한 사회관계망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공적·사적 영역 안에서 변화되고 있는 다양한 관계를 밝혀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지만, 여성의 주도적 행위를 설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북한의 공적·사적 사회관계망을 유지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오늘날 여성들의 매개자 역할은 더 활발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나타난 북한 사회관계망의 중요 키워드들인 ‘가족관계망’, ‘시장관계망’, ‘인민반 및 이웃관계망’ 속에 있는 행위 주체가 대부분 여성들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적 관계망의 매개로 활약하는 여성의 역할에 주목하여 이들의 비공식 사회관계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사회관계망 안에서 주도적 행위를 담당하는 주체였지만, 그동안 부각되지 못했던 북한 여성들의 비공식 사회관계망에 초점을 둔다는 데 있어 기존의 북한 사회관계망 관련 연구와 차별성을 갖

1) 이 발표자료는 연구방법, 각주, 참고문헌, 연구내용을 일부러 지면의 제한으로 인해 대폭 삭제하고, 토론자에게는 연구의 이해를 위해 연구논문 원자료를 함께 첨부하도록 하였다.

는다.

### 3. 북한 여성들의 비공식 사회관계망 형태

#### 3.1. 친분 관계망

##### 가. 가족·친척 관계

북한 사회에서 가족들끼리 끈끈한 유대를 이어가는 것은 오랫동안 이어온 풍습이기도 하지만 경제난 이후의 이것은 생계와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여성들의 시장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큰돈을 벌 수 있는 정보를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공유한다는 증언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국가를 믿을 수 없고, 또 타인과 비즈니스를 할 경우 ‘뒤통수 칠 일’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가족들끼리, 형제들끼리’ 가족 단위로 장사를 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가족 간에 유대가 좋고, 자주 모일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전제하고 있다. 자주 만나는 친척 간에는 ‘장사 정보’ 외 ‘남한에 대한 소식’도 자연스럽게 오가고, 가족 중 먼저 남한에 간 가족이나 친척들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거나 탈북할 수 있는 정보도 공유한다. 그뿐만 아니라 제3국(중국,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의 소식도 주고받으며, 먼저 탈북한 가족으로부터 탈북을 권유받기도 한다.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친·인척 간의 적극적인 연대와 재결속은 경제적 지위를 우선시하면서도 가끔은 ‘궁핍한’ 친척을 도우며 공동체적 관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가정형편이 어려우면 가족·친척 간에 ‘왕래를 잘 안 하고, 서로 틀어진 형제들도 많고’ 관계 회복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사회에 대한 소소한 불평과 불만에서부터 정치적인 발언까지 공유하고 묵인될 수 있는 아주 친밀하면서도 은밀한 혈연적 연결망이다.

##### 나. 동창·친구 관계

학교 동창생들은 직장이나 장사 등 직업이 다양해서 친구가 장사 대방인 경우도 있어 ‘돈을 벌 수 있는’ 정보를 서로 교환하기도 한다. 양강도나 함경북도의 국경 인근에 사는 여성들은 ‘밀수’로 돈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 ‘돈 되는’ 밀수 정보를 공유하고 도움을 주고 받는다. 학교 동창에서 때로는 돈을 벌 수 있는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다.



한편, 학교 동창은 아니지만 동창 못지않게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도 있다. 북한 여성들에게 친구는 학교 동창 외 인민반, 여맹조직, 장마당 등 이웃과 시장을 통해 ‘연령대’와 ‘사는 정도’가 비슷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까운 주변의 친구 관계는 결혼, 출산, 자녀양육과 교육, 부부 문제, 시댁 문제, 장사 정보 등 유사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밀접한 관계이다. 이웃 가까이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관계이다 보니 가정환경이나 개인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대화를 많이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 친구들과 여가문화를 즐기는 시간도 가장 많다. 서로 신뢰가 쌓이고, 공감대가 형성된 친구 사이에는 가족이나 결혼생활에서 생기는 문제들 외에 인민반이나 여맹조직에 대한 불만, 정권에 대한 정치적인 불만도 터놓고, 장사 정보를 나누기도 한다. 이는 남한이나 중국에 대한 소식도 나눌 수 있는 매우 친밀한 관계망이다.

## 3.2. 경제수단 관계망

### 가. 장마당 매대원 및 장사 대방 관계

북한의 장마당은 여성들의 생존을 위한 경쟁터이자 역동적인 공간이다. 장마당에서 매일 만나는 매대 이웃 사이의 관계는 각자 더 많은 물건을 팔기 위한 유·무형의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모든 소식통의 시작은 장마당’이라고 보기 때문에 장마당 매대를 운영하는 정도의 여성은 돈을 벌 수 있는 장사 정보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또 ‘메뚜기 장사’를 하는 여성들보다 경제적 능력을 인정받는다. 장사 대방을 두고 장사를 하는 경우에는 도매가 중심이기 때문에 대방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은 큰돈을 지속적으로 벌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북한 주민들이 유선 전화나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대폰 사용은 시장활동에서 ‘신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국내·외에 있는 장사 대방과 시장정보를 공유하고 시장에 필요한 물품을 교환하면서 ‘수평적 연결망’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대방들과의 연결망을 넓히는 데도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 나. 장사 목적을 위한 ‘외교’<sup>2)</sup> 관계

북한 사회에서 여성들의 비공식 경제활동은 불법이 많아 개인적으로 ‘뒷선을 봐

2) 여기서 ‘외교’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수완이나 교섭이 능란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주는 사람들’이 없으면 유지가 어렵다. 이들의 사적 경제활동에 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중국 장사 대방들과 밀수로 장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경에서 불법으로 물건을 거래하기 때문에 항상 신변의 위험과 장사물건을 몰수당할 수 있는 위험이 따른다. 따라서 국경 군인, 안전원, 보위지도원, 당간부 등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목적 관계를 유지하는 수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장사 목적 달성을 위한 ‘외교’는 위험을 피해갈 수 있는 방패막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비공식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북한 여성들은 이러한 ‘수직적’ 관계망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3.3. 지역사회 관계망

#### 가. 학교 안의 ‘열성자 학부모’ 관계

학부모들은 돈을 모아 담임 교사의 결혼식을 비롯한 경조사는 말할 것도 없고 담당 학생들이 졸업할 때도 가전제품이나 노트북 같은 ‘큰 선물’을 해주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이것을 주도하는 것은 학급 열성자들의 부모들이기 때문에 담임 교사도 학급의 열성자를 선출할 때 부모의 권력과 경제력으로 판단한다. 자녀가 열성자가 된 학부모들은 학교 일에 발 벗고 나서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경제력을 갖춘 열성자 학부모들은 개인 과외(사교육) 정보나 진로 정보, 대학 정보 등 자녀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면서 자녀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교사 및 다른 학부모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소통하고 교류한다. 하지만 자녀가 졸업한 후에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면서 이 관계는 소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나. 인민반 안의 ‘이해’ 관계

감시체계가 엄격하게 작동하는 인민반 안에서는 소위 ‘잘사는 집’들 간에 끼리끼리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들은 인민반장이 부여하는 과제를 돈으로 해결하고, 인민반장에게 몰래 뒷돈(뇌물)을 더 챙겨주는 대신 아침 동원, 물자지원(고철, 비닐, 병, 종이, 건설자재 등), 노력동원(도로보수, 녹지조성, 공원꾸리기, 살림집 건설) 등 조직생활에서 빠질 수 있다. 반면 뒷돈이나 뇌물을 받거나, 또 받을 것 같은 집들에 인민반장이 먼저 숙박점열 같은 것이 있다고 정보를 알려주기도 한다. 불법 행위에 대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감시와 점열제도 안에서 ‘잘사는 집’은 인민반장과 비공식적 교환의 협력관계가 발현된 것이다. 인민반 안에서 인민반장과의 관계는 비공

식적 교환을 통한 협력관계이지만, ‘잘사는 집’ 끼리의 관계는 정보교류나 소통이 좀 더 친밀하게 연결되는 관계이다. ‘잘사는 가정을 보면 여자들이 권력이 세다’고 인식되면서, 이런 집안의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주변 관계를 만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 다. 여맹조직 안의 ‘이해’ 관계

시장활동을 통해 자본을 어느 정도 축적한 여맹원들은 여맹 간부들(여맹위원장, 초급단체위원장)에게 돈을 지불하고 여맹조직에서 거두어들이는 물자지원과 각종 명절 행사, 생활총화에 빠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얼마의 돈을 지불하느냐에 따라 1년 동안 생활총화도 빠질 수 있다. 이처럼 경제력 있는 여맹원들은 여맹 간부들의 요구에 따라 돈을 내고 조직생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암묵적인 보호를 받는다. 돈을 낼 형편이 안되는 여맹원들은 각종 동원과 생활총화 등 조직생활에 무조건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어떻게든 조직생활을 피해가려는 인식이 높아졌다. 이처럼 경제적 능력이 있는 여성들은 여맹조직 안에서 간부들과 비공식적 교환 협력관계를 통해 ‘수월하게’ 조직생활을 하고, 같은 여맹원들 사이에서 ‘호흡이 맞는’ 가내반 여성들과 예쁘게 차려입고 여가와 문화를 즐기면서 친밀한 관계로 발전한다.

### 4. 북한 여성들의 비공식 사회관계망 특성

#### 4.1. ‘과시적 소비’를 통한 구별짓기

경제난 이후 북한의 여성들은 생존을 위해 시작했던 비공식 경제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본의 논리를 깨우쳤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자본은 ‘과시적 소비’를 통해 개인적으로는 ‘외모 꾸미기, 집안 꾸미기, 가전제품 구입 등’에 쓰이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비공식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소비하고 있다. 결국 경제력을 어느 정도 갖춘 북한 여성들은 ‘돈’을 통해 비공식 사회관계망을 넓혀가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부익부’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불법과 뇌물, 인맥 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북한 여성들의 비공식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된 자본은 소비를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계층을 가르는 기준이 되면서, 소득불균형으로 인한 계층 분화에 동참하고 있다. 계층별 경제적 차이는 일상의 삶에서 경험적 차이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스스로 획득한 경험들은 사회문화적으로 구조화되고 있다. 즉 경제적 부를 축적한 북한 여성들의 비공식 사회관계망은 ‘끼리끼리’ 문화를 형성하면서, ‘못 사는 사람들의 비위가 상하게’ 사회·문화적인 일상에서 구별짓기가 확산되고 있다.

#### 4.2. ‘사회적 자원’ 확장을 위한 줄다리기

비공식 사회관계망을 통한 북한 여성들의 행위 주체성은 자신들만의 사회적 자원 확장이라는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북한 여성들은 비공식 사회관계망을 사회적 자원 확장의 연결고리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 여성들이 일상에서 맺는 다양한 사회관계망(친분, 경제수단, 지역사회)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치며 은밀하게, 복잡하게, 협력적으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북한 여성들은 사적 공간을 통해 형성된 친밀도 정도에 따라 여러 종류의 불만을 표출하며 일상에서 받는 정신적 고통을 공유하기도 한다. 이는 보편적인 저항행위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국가의 통제가 심할수록 비공식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북한 여성들의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손해가 잇따라 그 고통 정도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욕망을 충족하는 가운데서 받는 스트레스는 때때로 ‘잘 먹고, 좋은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외국 음악과 영화를 몰래 즐기는’ 형태로 여가를 즐기면서 보상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활동을 통해 경제력을 갖춘 북한 여성들은 공식적 관계망 안의 ‘권력구조’를 자신들의 사회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비공식 관계망 안으로 끌어들이므로써 자신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더욱 넓혀가고 있다. 즉 보위부, 안전부, 학교, 인민반, 여맹 등의 공권력은 ‘돈’을 통해 여성들이 만들어가는 비공식 사회관계망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사회를 유지하고 지배했던 공적 관계망은 점점 와해되고 있으며, 그 틈새를 북한 여성들의 비공식 사회관계망으로 채워가고 있기 때문이다.

#### 5. 결론

본 연구는 북한 여성들의 비공식 사회관계망 탐구글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시장활동에 참여했던 북한 여성들을 비공식 경제활동의 행위 주체로 접근하는 패러다임에 기여했다. 이들은 국가의 통제 여부가 미치거나, 미치지 않는 가장 낮고 은밀한 곳에서 사적 관계망이나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들의 비공식 사회관계망은 불완전한 위기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적 자원이며, 비정형화된 커뮤니티들은 유기적·기형적으로 결합하거나 분절되면서 점차 신뢰와 규범이 강화된 집단으로 양상을 드러낼 수 있다. 둘째, 북한 여성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비공식 사회관계망 연구에 기여했다. 관계망이라는 것은 인간관계들이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 분류 작업이 쉽지만은 않다. 그럼에도 비공식 관계망의 우선 순위에 집중하여 탐색하는 것은 중산층 이상의 북한 여성들의 일상에서 맺는 관계들을 좀 더 미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이들의 비공식 사회관계망을 통한 경제적 능력 향상은 북한의 정치나 구조 변동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가정이나 성규범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가시화될 확률이 높다.



시장과 여성

## Session II.

토론문 01

### 북한 시장활동 여성들의 비공식 사회관계망 연구

---

박 희 진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페미니즘, 북한사회의 변화에 주목하기





[토론문]

북한 시장활동 여성들의 비공식 사회관계망 연구

박희진(동국대 북한학연구소)

○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시장 출현과 시장화 메커니즘의 작동은 북한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의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가장 큰 이유는 북한 여성들이 종사했던 공식 경제활동 영역(경공업, 지방산업, 상업, 편의봉사, 교육 부분)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 북한 여성들의 종사 영역이 시장 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빠르고 용이한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화 이후 북한 여성이 경제적 주체로 부상하고, 사회변동을 횡단하는 주요 행위자로 연구된 지 이미 오래이다. 다만 이 연구는 같은 맥락에 있으면서도 ‘사회관계망’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시사적이며 새로운 논의의 장을 열고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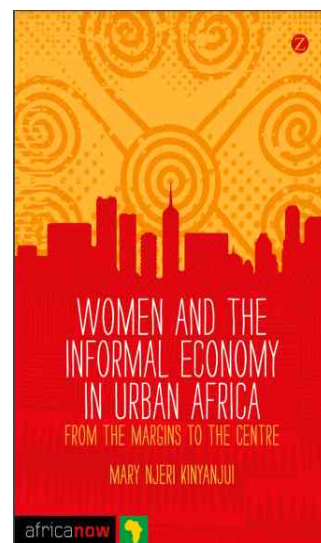
○ 토론자는 연구가 주는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북한 시장 활동 여성들의 비공식 사회관계망 탐색이 본질에 접근했는지 의문이 생긴다. 북한 여성 연구의 관점에서 더 직접적이고 도전적이며 본질적인 탐색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생각한다.

○ 연구는 아래의 매트릭스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때 공식 사회관계망과 비공식 사회관계망이 별도로 존재하기보다 공식-비공식의 관계망을 움직이는 힘이 어디 있는가의 문제이며, 연구는 ‘시장 활동-여성-비공식 사회관계’를 경제활동이란 커다란 목적 속에서 수행되는 사적 이해의 측면에서만 고찰하였다. 여기에는 성별 차이, 성 불평등에 기인한 비공식성이 누락되어 있으며, 이 본질에 접근하는 심층적 분석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연구자의 경험에 따르면 북한 장사활동 여성의 비공식적 사회관계망은 훨씬 더 농밀하고, 오염되었으며, 이동성의 강화와 함께 도덕을 넘어서 일탈과 범죄를 망라하는 영역에서 구축되고 있었다. ‘시장활동’이라는 전제 속에 내포된 가부장적 여성에의

탈피, 경제활동 주체로의 향해가 순조롭기만 하다는 결론은 현실 은폐 혹은 모순이 아닐까, 이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공식 사회관계망	비공식 사회관계망
시장활동여성 (장사활동)	법, 제도, 규범, 규칙	혈연/친분, 안면/학연지연, 이익
비시장활동여성 (장사이외, 부양)		위와의 차이

○ 북한 시장 활동 여성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아프리카 나이로비 도시 여성의 비공식 경제활동을 탐구한 Kinyanjui(2014)의 『Women and The Informal Economy in Urban Africa- from the margins to the centre』 (London: Zed Books, 2014) 연구에 빚대어 문제제기를 심화시켜 보고자 한다. 연구는 과거 아프리카 여성들은 가정과 국가 수준에서 모두 종속되었고 자본, 상품의 제한된 회로가 있는 공간에 국한되었으나 경제가 붕괴한 이후 여성들은 경제적 비공식성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이들의 참여는 가부장제와 계획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물질적 박탈에 대한 투쟁으로 해석되었다.



특히 모빌리티(이동성)은 물질적 박탈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이동성을 통해 여성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 나아갔다. 모빌리티는 여성들에게 독립성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 소득을 보완하고, 투자하고,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기업을 설립하고, 자녀를 교육하고, 집을 살 수 있게 해주었다. 그들은 나이, 교육, 결혼 여부, 사업장 위치, 운영 자본의 원천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니고 있었고, 여성들은 서로 공유하고 지원함으로써 개인과 연대 기업이 정신을 통해 도시를 재구성하고 여성적인 공간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북한의 시장 활동 여성들의 비공식 관계망이 여성만의 공유와 연대성의 확장으로 이어져서 얻게 되는 여성의 주체성은 탐구될 수 있을까에 대해 궁금하다.

○ 마지막으로 현재 북한의 시장은 새로운 형태의 기업가정신(문명국, 과학기술), 시장 거래, 축적 및 부의 분배를(공식 상업망 구축)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의 현대화 전략 수립에 고군분투하고 있다. 국가의 현대화 전략 속에서 수행되는 상업행위와 방식은 비즈니스 조직을 도시 중심부로 진출시키고 있으며, 북한의 시장은 생활의 맥락에서 일상의 경제활동에 머무르고 있다. 시장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난 이후 북한 여성들의 비공식 사회관계망은 (외교의 이해 행위) 여전히 건재할 수 있을까. 시장의 역동성 크기에 견주어 비공식 사회관계망의 변화는 어떻게 추론이 가능할지 연구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시장과 여성

## Session II.

토론문 02

### 개혁개방 시기의 베트남여성조합 베트남 여성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사명

---

응우옌 티 탄 투이  
베트남 여성정책연구원



페미니즘, 북한사회의 변화에 주목하기



## [토론문]

### 개혁개방 시기의 베트남여성조합: 베트남 여성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사명

응우옌 티 탄 투이(베트남 여성정책연구원)

#### 1. 개혁과 문호개방을 위한 베트남여성조합의 핵심 임무

베트남여성조합(Vietnam Women's Union, VWU)은 1930년 이래 당과 호찌민 주석의 지도하에 설립되고, 발전되어 온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베트남여성조합은 당, 정부와 공무원, 회원단체 간의 신뢰할 수 있는 가교로서 기능하며 여성의 노동과 관련해 항상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총 4개의 층위로 구성된 엄밀한 조직체계로 모든 회원단체를 연결하며 회원 수는 1,900만 명 이상에 달한다. 국가 발전의 역사 속에서 베트남여성조합은 경쟁 운동(emulation movement), 캠페인, 활동을 성공적으로 조직하고 시행함으로써 모든 방면에서 여성의 역량과 자질 개선을 지원해 왔다. 또한 베트남여성조합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을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여성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살피고 보호하며 당 건설과 국가 운영에도 참여했다.

개혁개방(도이머이) 시기 베트남여성조합이 수행하는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주제별 홍보와 여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여기서는 회원과 여성 일반의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미흡한 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응함으로써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결혼과 가족, 행복한 가정 육성, 산업화·근대화·국제통합의 시기에 베트남 여성이 지니는 문화적이고 윤리적인 가치에 관한 상담과 지원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 여성의 경제적 발전 역량을 강화한다. 이는 금융지원 활동으로 정의되며 개혁개방시기 여성조합의 활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동시에 여성운동을 활성화하는 직접적인 동력이 되었다. 여러 모델과 협력단체를 통한 여성 지원, 협동조합 설립, 사업활동 지원 등에 중점을 두었다.
- 자문 제공, 정책 제언, 여성의 정당한 권리·이익과 관련된 법률과 정책의 개발과 모니터링 및 이에 대한 사회비평 참여, 국가 운영 참여 등을 통해 여성

의 대표자 역할을 수행한다.

## 2. 도이머이 이후 베트남여성조합의 기능·임무·역할

기능:

1. 여성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한편 당 건설과 국가 운영에 참여한다.
2. 당 지침 및 국가 정책과 법률의 이행을 위해 여성을 단결시키고 동원하는 한편 성평등의 사회적 이행을 촉진한다.

임무:

1. 정치, 이념, 혁명적 이상, 도덕적 자질, 생활양식, 당 지침, 국가 정책과 법률에 관해 홍보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2. 당 지침 및 국가 정책과 법률의 적극적 이행을 위해 전 직종의 여성을 동원하고 당과 국가 건설,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보호에 참여한다. 또 여성의 역량과 자질 개선, 행복한 가정 육성, 물질적·정신적 생활 개선을 옹호하고 이를 위한 역량을 강화한다.
3. 자문과 제언을 제공하고 여성·가족·아동·성평등에 관한 당 지침 및 국가 정책·법률의 개발과 사회비평, 이행 모니터링에 참여하며 여성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4. 튼튼한 조합을 육성하고 개발한다.
5. 다른 국가의 여성, 지역과 세계의 진보적 단체·개인들과 평등, 개발, 평화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확립한다.

## 3. 도이머이 이전과 이후 베트남여성조합의 기능과 역할 차이



	“도이머이” 이전	“도이머이” 이후
기 능	민족해방, 재통일, 국방의 목표 달성을 위해 여성을 결집한다.	— 여성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한편 당 건설과 국가 운영에 참여한다. — 당 지침 및 국가 정책과 법률의 이행을 위해 여성을 단결시키고 동원하는 한편 성평등의 사회적 이행을 촉진한다.
역 할	<b>1930~1975년 시기:</b> 각 시기 민족해방과 통일 운동에 참여하였다. <b>1975~1986년 시기:</b> 가구의 경제적 발전과 건강한 양육에 참여하고 영양부족 아동과 학교 중퇴자의 감소에 기여하였다. 전 계급의 동원을 통한 전국적 여성 교육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 동참하였다.	— 사회주의 건설의 대의에 동참한다. — 성평등 목표와 여성해방의 대의를 이행한다. — 가정 경제, 노동, 수확, 가축사육 분야에서의 여성 상호부조운동 등 여성에게 빈곤 감소와 같은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운동에 참여하도록 회원들을 동원한다. 여성은 가정 경제를 발전시키고 정당한 방법으로 부유해진다.

#### 4. 베트남여성조합과 여성의 권리·이익 개선 활동

- 경쟁 운동, 캠페인, 주요 프로그램과 사업 시행: 가족생활 준비, 혼전 교육, 양육에 관한 홍보 및 지식과 기술 제공, 인구 정책 보급, 안전한 보육 서비스 접근 기회 창출, 아동 보호·교육·돌봄,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가정 육성 등.
- 효과적 홍보·교육·인식개선 혁신 및 제고, 가족관계의 건강한 가치 증진 및 행복한 가정 육성: 가족생활 교육, 가정 내 윤리 교육과 생활양식에 관한 지식과 기술 제공, 성평등 및 가정폭력·사회악 예방, 보건의료 및 아동 양육, 경제적 발전과 행복한 가정 육성 등.
- 여성 지원 모델의 육성과 확산: 번창하고 진보적이며 행복한 가정의 효과적 육성을 지원하는 모델의 개발·유지·확산에 중점. 전형적 모델로는 행복한 가정 육성 클럽, 오무삼청 가정(5 No, 3 Clean family) 육성 클럽, 지역사회 내 신뢰할 수 있는 주소 갖기 모델 등이 있다.
- 여성의 경제적 발전 옹호와 역량 강화를 통한 가구 경제 발전: 빈곤 감소 지원에서 생계 육성 모델, 빈곤 여성, 소수민족 빈곤 여성, 인신매매 생존 여성을 위한 지역 일자리 창출로의 전환, 프로그램 135를 통한 국경 지역 시진(市鎮)과 낙후된 시진에서의 협동조합/협동단체 설립 등. 후자의 활동은 국경 지역 여성 지원 프로그램(“Accompanying border women[국경 지역 여성과 함께하기]”)을 통해 지원된 주소와 연계되었으며 초기 성과를 기록한 바 있다.

경제적 발전과 지속가능한 빈곤 감소를 위한 여성의 용자 접근 지원 활동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활성화되었다. 각 층위의 여성조합이 매우 다양한 자본금을 운

용하고 있으며 총 대출 잔액은 거의 1,000조동(VDN)에 달한다.

- 가족 분야 정책·프로그램·사업에 관한 자문 및 제언 조정: 각 층위의 여성조합은 가족·여성·아동과 관련된 법적 문서, 프로그램, 사업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017년 이후 여성조합은 정책, 프로그램, 사업, 제도, 운영계획에 관해 407건의 제언을 했다. 특히, 베트남여성조합 중앙위원회는 04프로젝트(04 projects)를 제안하고 가족 부문의 관련 법적 문서 개발 과정에서 초안위원회와 편집팀의 관련 부처와 협력했다.

사회비평 활동은 항상 주목을 받으며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비평 활동은 조합 회원, 여성, 가족의 권리·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초안 문서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기업과 소비생활

## Session III.

발표문 01

### 북한 기업자산 변화에 대한 연구

---

전 경 주  
이화여자대학교



페미니즘, 북한사회의 변화에 주목하기



## [발표문]

# 북한 기업자산 변화에 대한 연구

전경주(이화여대)

##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 10여 년간 북한 정책 변화로 발생한 북한 기업자산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남북한 자산을 구분한 기초위에서 기업자산변화를 구성의 변화, 비중의 변화로 각각 고찰하며 동시에 북한 기업발전의 방향성을 추론하고자 한다.

우선 남북한 자산 개념을 비교하고자 한다.<sup>1)</sup> 남한 기업의 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이 어려운 비유동자산(이하 고정자산),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유동자산으로 구분된다. 고정자산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투자자산으로 구분되며, 유동자산은 재고자산과 당좌자산으로 구분된다.<sup>2)</sup>

북한 기업은 자산을 재산(이하 자산으로 표기)으로 표기한다.<sup>3)</sup> 북한 기업의 자산은 자금회전방식에 따라 고정재산과 유동 재산 및 유통재산으로, 존재 방식에 따라 실제적 재산과 명목상 재산(철수 재산)으로 구분된다.<sup>4)</sup> 고정재산은 1년 이상 사용될 수 있는 자산이며 투자한 자금 출처에 따라 국가투자 고정재산과 자체 투자 고정재산으로 구분된다.<sup>5)</sup> 유동 및 유통재산은 생산단계에 있는가, 유통단계에 있는가에 따라 유동 재산과 유통재산으로 구분된다.<sup>6)</sup>

1) 본 연구에서는 남한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기술하며 북한 자산과 관련한 용어는 북한용어 그대로 사용하려고 한다.

2) 유형자산은 형태가 있는 물리적인 자산이며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임. 투자자산은 장기간에 걸쳐 투자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임. 재고자산은 제조·판매 등의 과정을 거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며, 당좌자산은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임.

3) 북한에서의 자산은 일반적으로 소유 형태에 따라 국가재산, 협동단체 재산, 개인재산으로, 국적에 따라 국가재산과 외국 재산으로, 사명과 역할에 따라 생산재산과 유통재산으로 구분됨.

4) 실제적 재산은 경영활동 과정에서 고정재산이나 유동 재산, 유통재산과 같이 재생산 과정에 배치되어 실제로 기능하는 자산이며, 명목상 재산은 이연자산과 같다.

5) 북한에서 투자의 의미는 확대재생산을 위한 국가와 협동경영에 대한 자금지출이므로 고정자산에 투자 자산이 포함되지 않는다.

6) 명목상 재산은 철수 재산을 의미한다. 철수 재산은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확정적으로 결산되지 않아 계산상으로만 기업이 가지고 있게 되는 재산이다.

【표 1】 남·북한 기업자산의 구성

남북	분류 기준	구성	분류			
남한 기업 자산	1년 후 현금화 가능성 유무	비유동자산 (고정자산)	유형자산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비품, 선박, 차량 운반구, 건설 중인 자산		
			무형자산	저작권, 산업재산권, 영업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탐사 평가 자산, 어업권,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임차권리금,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만기 보유 금융자산, 매도 가능 금융자산, 관계기업투자, 투자부동산, 장기대여금, 보증금		
	1년 내 현금화 가능성 유무	유동자산	재고자산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당좌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단기금융상품, 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북한 기업 재산	실제적 재산	고정재산	유형 고정재산	국가투자 고정재산	건물, 구축물, 전도 장치, 기계설비, 공구 지구, 비품, 종자 집짐승, 부림 집짐승, 나무, 기술문건 및 도서	
				자체 투자 고정재산		
			무형 고정재산	지적 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도안권, 소프트웨어 저작권), 기술비결, 실용 신형		
		유동 재산	물자재산, 미성품, 반제품			
		유통재산	완제품, 발송한 제품			
	화폐 재산 (현금, 은행예금, 기타 화폐 재산), 채권					
	명목상 재산	철수 재산	다음 결산기 지출(다음 결산기 비용, 건설 및 대보수비, 생산 준비비, 사업비, 예산지출)			
			손실금(예산지출, 재산피해 손실, 지난해 손실)			

출처: 송상영, IFRS 회계 원리(2010), pp. 140-142, 전경주, “기업 재정관리 관점에서 본 북한의 ‘사회주의 기업책임 관리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p. 32를 기초로 하여 저자 작성, 강조 부분은 저자.

## 2. 북한 기업 고정자산구성의 변화

### 1) 고정자산 구성의 변화와 무형 고정자산의 등장 <sup>7)</sup>

종전 북한 기업의 고정자산에는 유형 고정자산만이 존재하였으나 김정은 위원장의 과학기술 강국건설과 대북 제재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무형 고정자산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북한 기업의 고정자산 구성에 변화가 생겼다. <sup>8)</sup>

7) 이 부분은 전경주의 석사학위논문 중 무형 고정자산과 관련한 부분을 수정·보완한 것임; 전경주, “기업 재정관리 관점에서 본 북한의 ‘사회주의 기업책임 관리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pp. 31-42.

【표 2】 유형 고정재산의 분류

이전 분류	현재 분류	
고정재산 (유형 고정재산)	유형 고정재산	건물, 구축물, 전도 장치, 기계설비, 공구 지구, 비품, 종자 집짐승, 부립 집짐승, 나무, 기술문건 및 도서
	무형 고정재산 (지적재산)	<b>지적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도안권, 소프트웨어 저작권), 기술비결, 실용 신형 등</b>

출처: 전경주, “기업 재정관리 관점에서 본 북한의 ‘사회주의 기업책임 관리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p. 32.

북한 기업은 무형 고정재산을 지적재산이라고 하고 있다. 9) 2019년에 지적자산 관리를 위한 ‘지적 소유권 국’이 신설되었고 지적자산이 기업자산으로 새롭게 분류되었다.10) 지적제품은 기업 간, 기업과 개인 사이에만 매매, 양도되며, 개인 간에는 매매할 수 없다. 지적재산 등록은 【표 3】과 같다.

【표 3】 지적재산 등록의 분류

지적재산 등록	
기업 내부 등록	은행 또는 기업 내부 등록
현물등록 (고정재산 관리부서)	화폐적 등록 (은행 또는 기업재정부서)

출처: 강춘식(2019), pp. 30-31에 기초하여 저자 작성.

당국은 중요대상을 제외한 연구개발은 자체 과학 기술발전자금, 기업 기금, 새 기술도입 이득금에서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11)

## 2) 무형 고정재산과 관련한 기업 방향성 고찰

소프트웨어개발은 종전에는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였지만, 현재 과학기술 강국

8) 2012년 신년사,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지식경제 강국건설을 강조함; 김정은, 2013년 신년사;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2016); 그러나 2020년 하노이 노딜 이후에는 자력갱생 위주의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하게 된다; 조용주, “기업체들이 사회주의 기업책임 관리제를 바로 실시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철학·경제학』, 64권 제2호(2018), p. 91.

9) 무형자산은 지식 자본(knowledge capital), 지식자산(knowledge assets), 그리고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ies) 등의 개념이 유사하여 혼용되게 사용되고 있다(조성표 외, 2014).

10) “북한 노동신문 사진에 전에 없던 ‘워터마크’ 가…선전선동부 작품?” 『데일리 NK』(인터넷판), 2022년 6월 24일; <https://www.dailynk.com/20220624-1/>(검색일: 2022년 6월 30일); 당국은 2021년 4월 30일 ‘소프트웨어(SW) 보호법’을 채택하여 모든 SW를 당국에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저작권, 재산권을 합법화하였다; 강춘식, “기업체 지적재산등록의 합리적 조직,”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경제학』, 제65권 제2호(2019), p. 27.

11) 김룡규, “연구개발에 필요한 물질 기술적 조건 보장체계를 수립하는 데서 제기되는 중요문제,” 『경제연구』, 4호(2016), p. 19.

건설이 강조되면서 매 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다. 12) 기업은 ‘과학기술 보급사’, ‘기술 봉사소’, ‘기술교류 봉사소’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소속기관을 등장시키고 있다. 13) 소프트웨어 제품연구개발은 최근 대학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4) 소프트웨어제품은 여러 가지 제품과 함께 편집물, 다매체 같은 제품으로도 생산, 판매된다. 15) 북한 당국의 과학기술정책으로 지적재산의 창출, 매매와 관련한 기업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 3. 북한 기업재산 비중의 변화

#### 1) 국가투자 고정재산과 자체 투자 고정재산 비중의 변화

종전에 기업은 국가 자금으로 유형 고정재산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현재 고정재산관리권 부여로 자체 자금으로 구매하면서 자체 투자 고정재산의 비중이 국가투자 고정재산보다 더 커지게 되었다. 관련 구매자금을 종전에는 ‘기본 건설 및 대보수 자금’에서 지출하였으나 현재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적립한 자금인 ‘자체 건설 및 대보수자금’ 또는 ‘기업체 적립기금’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16)

또한 기업은 이용되지 않는 유형 고정재산을 다른 기업에 합의 가격으로 이관·임대할 수 있다. 기업은 국가투자 고정재산의 매매와 관련한 자금을 반드시 국가에 상납해야 하며, 자체 투자 고정재산 매매와 관련한 자금만 자체적으로 적립·이용할 수 있다. 17) 기업의 자율성 보장에 따라 자체 투자 고정재산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12) 조작 체계 소프트웨어, 경영 업무 소프트웨어 정보보안소프트웨어 같은 국가적 범위에서 통일적으로 이용할 소프트웨어제품은 KCC와 같은 전문적인 개발 단위들에서만 생산하고 있다.

13) 소프트웨어 생산기업은 분기별로 계획지표를 확정하고 월별로 나누어 그것을 중앙소프트웨어 산업지도기관에 계획지표로 등록해야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14)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경제정보연구소에서는 2012년 1월 북한식의 기업자원계획화체계인 통합경영정보체계 ‘대안 1.0’을 출시했고 그 이후 ‘대안 2.0’을 개발해 수많은 공장, 기업들에 도입함; “북한 10년 전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개발...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평가,” 『NK경제』(인터넷판), 2022년 6월 23일;

<http://www.nk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13>(검색일: 2022년 7월 1일).

15) 2019년에는 디즈니 애니메이션도 전 세계적으로 다 보고 있는 것인데 미국제작품이라고 해도 북한 국민도 보게 해야 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이러한 매체들도 번역되어 영어 배우기 교재로 CD로 만들어져 판매됨.

16) 당국은 중요기업의 생산능력 조성과 개건 확장 시에만 부분적으로 보장해줌.

17) 함성준, 『회계 계산 연습문제집』(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2016), p. 78.



## 2) 재고자산과 현금 비중의 변화

중전에는 생산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상업 기업(이하 유통기업)에 넘겨주면 유통기업에서 판매되어야 현금 회수가 가능한 방식으로 제품이 매매되었다. 그러나 현재 기업의 판매권 부여로 생산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판매소를 설치하고 판매함으로써 재고자산보다 현금의 비중이 중전보다 커지게 되었다.

물자 판매를 위한 물류센터의 구축은 김정일 시대부터 진행된 사업이었다. 18) 김정일 위원장은 2009년 다양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물류센터의 구축을 구상하였고 이에 따라 ‘광복지구 상업 중심’이 건설되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물류센터 구축은 ‘대성백화점’, ‘락원 백화점’과 같은 마트의 개건·확장으로 이어졌다. 19) 물류센터는 재고자산을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북한지역마다 단계적으로 건설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 3) 무현금과 현금 비중의 변화

기업의 현금 계좌 신설로 기업에는 무현금보다 현금 비중이 늘어나게 되었다. 20)

【표 4】 기업책임 관리제 시행 전, 후 현금 돈 자리 개설 차이점

시행 전	시행 후	
162 은행예금(기본 계좌)	162/1 은행예금/무현금 (보조 계좌)	162/2 은행예금/내화 현금 (보조 계좌)

출처: 함성준(2016), p. 49에 기초하여 저자 재구성, 강조 부분은 저자. 21)

중전에 기업 간 거래는 무현금거래가 기본이었으며 현금거래는 제한적이었다. 22) 현재 기업은 중앙지표로 생산된 제품의 매매는 무현금거래로 하며 기업소 지표와 기타지표로 생산된 제품의 매매는 현금거래로 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기

18) 2000년대 중반 김정일 위원장은 경제회복을 위하여 ‘실리’를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많은 제품이 생산됨; 한기범, “북한 정책 결정 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 (2000-2009),”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p.109.

19) 유통 재산과 유통재산의 완제품과 발송제품을 이해의 필요 상 재고자산이라고 칭한다.

20) 이석기 외에서는 현금 돈 자리 제도는 김정은이 2012년 8월 비준한 “화폐를 합리적으로 동원 이용하는 데 제기되는 문제와 대책”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p. 123; 2014년 8월 중앙은행 지시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충하면서 ‘물자 구매자금 지출과 관련하여 기업소가 현금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 신청한 금액만큼 지불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면서 현금의 이용범위도 확대함.

21) 기존의 기본 계좌가 무현금 계좌와 현금 계좌로 분류되면서 합법적으로 개설되었다.

22) 종래 「화폐 유통법 시행 규칙」(현금 유통 부문, 2009년 10월 31일)에는 기업이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현금을 이용하는 경우 ‘월 2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업에 현금 계좌를 도입한 목적은 시장거래 활동에 수반되는 현금거래를 합법적으로 승인하여 시장을 이용한 기업 생산활동의 안정성과 현금자산의 유동성을 보장하고 생산성을 높여 세수를 확대하기 위함에 있으며, 은행 제도 밖에서 유통되던 현금을 은행권 안으로 끌어들이므로써 통화관리 기반을 확충하려는데 있다고 보인다.

다음 ‘중앙은행 돈표’의 발행이다. 23) 전문가들은 외국산 잉크와 종이의 고같은 기술적인 이유일 뿐, 실제 이유는 따로(예컨대 기업의 신용경색)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돈표의 발행은 코로나로 인한 자체 국경봉쇄로 외화 수요가 감소하고 내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내화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24)

돈표는 기업 간 자재거래의 결제 수단으로 기능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유보 현금을 북한 당국에 집중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25) 또한 돈표는 기업 간, 기업과 개인, 개인 간 거래에 이용되면서 현금을 북한 당국에 집중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도 추정된다. 26) 북한의 돈표 발행으로 기업의 현금거래가 줄어들고 돈표를 통한 무현금거래가 급증하면서 현금 비중은 줄어들고 무현금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서 현금과 무현금 간의 비중은 또다시 변하게 되었다.

#### 4) 외화와 내화 비중의 변화

북한 당국은 사경제 확산으로 국가 수중에 외화가 들어오지 않게 되자 2012년경부터 외화 계좌에 있는 외화를 협동환율을 적용하여 내화와 교환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외화와 내화의 자유로운 교환이 늘어나고 비중도 변하게 되었다. 27)

한편 무역법 개정(2012, 2015)과 수출품 판매 확대를 위한 ‘12월 15일 품질 메달’ 도입은 북한 외화 수입이 늘어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였다. 28) 그러나

23) 돈표의 발행은 국내의 안보 전문매체인 프리덤 앤 라이프가 2021년 9월 6일 최초로 보도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김병연 외, “북한의 역 달러라이제이션: 실태, 함의 그리고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21년 11월호.

24) 당국이 내화에 대한 기업의 추가적인 수요에 대응하여 화폐를 유통영역으로 내보내면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돈표를 발행하였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

25) 임송, “북한의 ‘중앙은행 돈표’ 발행의 배경과 시사점: 개연적 추론,” 『BOK 이슈 노트』, 한국은행, 2022, pp. 1-16.

26) 2021년에 5천 원 돈표가 발행되고 2022년에 5만 원 돈표가 발행된 것으로 보아 기업 간 매매에 많이 이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27) 2003년 종합시장 등에 외화환전소 설치로 이때부터 협동환율이 적용된 것으로 봄.

28) 북한은 품질관리를 위해 인증 관리기관인 기존의 ‘국가 품질감독국’을 ‘국가 품질감독위원회’로

대북 제재 후 수출입은 크게 줄어들었고 북한의 외화 수입은 절대적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 4. 결론

북한 기업의 자산은 김정은 시대 10여 년간 여러 정책의 시행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기업은 가격제정권과 판매권 부여로 화폐 자산 증가, 재고관리, 판매채널 관리 등을 통한 빠른 현금화 등 경영에 유리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기업 경영진이 자체적으로 현금흐름 관리, 재고관리 등을 해야 하므로 효율적인 관리의 중요성도 동시에 커지게 되었다. 또한 기업 자체로 지표를 설정하고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며 필요한 고정자산을 자체로 구매하는 등 기업 경영진의 의사결정도 중요해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자산변화에 대하여 재산구성의 변화, 비중의 변화로 구분하여 고찰하였을 뿐 아니라, 북한 기업발전의 방향성과 경제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확대·개편(2011. 4월)하였으며, 「규격법」, 「제품생산허가법」 「국가 품질감독법」의 개정 등을 통해 품질인증제도의 운용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과 소비생활

## Session III.

토론문 01

### 북한 기업자산 변화에 대한 연구

---

임을출  
경남대학교



페미니즘, 북한사회의 변화에 주목하기



[토론문]

북한 기업자산 변화에 대한 연구

임을출(경남대)

0 본 토론문은 북한 기업 고정재산구성의 변화, 북한 기업재산 비중의 주요 변화실태를 살펴보고 그 배경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0 북한의 모든 공장, 기업소는 국가 소유이며 국가에 의해 관리 및 운영

- 때문에 기업이 신설될 경우 설립자금(설비투자 등 고정자산)은 국가가 지급. 이런 의미에서 북한 기업소는 국가 자금을 가지고 국가가 지정해준 영업활동을 하는데 한정되어 있음.

-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난이 발생하면서 국가 재정의 부족으로 기업에 대한 유동자금 공급을 중단했으며 기본건설자금 일부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허가함.

- 전통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국가는 상업은행의 설립자금과 운영자금을 공급해주는 것이 원칙. 그러나 최근 들어 북한 당국은 설립자금과 운영자금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업소에 한해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 상업은행을 설립할 수 있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함

0 북한의 국가 경제관리 원칙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중앙집권적·통일적 지도를 하며, 경제에 대한 권한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음.

- 지방 기업소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 전력과 생산재 등을 중앙에서 공급하고, 지방기업소는 생산한 일부 제품을 중앙에 상납하는 등 지방경제에 대한 권한의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보유함.

- 북한은 이러한 중앙집권적 경제관리만이 국가 경제를 계획적·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았으나, 경제난에 의한 국가 경제 침체로 중앙의 권한이 약화되면서 2002년 7.1조치 이후 계획지표 설정권, 생산물 가격권, 규격 제정권을 기초행정단위인 군(郡)으로 이전함.

- 이후 각 지역별로 수력발전소 건설, 어린이 식료품 공장 설립 등 경제발전을 위한 지방차원의 노력이 꾸준히 진행됨.

#### o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관리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은 지방정부로 대폭 이전

- 지방 주민생활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하는 지방분권화 정책을 강화함.

- 이러한 정책 변화는 기업, 농업, 금융 등 많은 분야로 확산됨.

- 지방은행 설립 추진은 중앙정부의 지원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별 자금 확보를 통해 그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여짐.

#### o 북한의 기업자산 변화와 관련해서는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주목

- 공장·기업소에 국가계획 외 ‘기업소 자체 계획’을 허용해 생산량, 생산물의 품질, 가격·임금 및 인력 규모 결정 등 일부 권한을 부여하고, 초과생산품의 시장 판매를 허용한 조치임.

- 기존에 해왔던 기업에 대한 많은 관리 권한을 기업에 주어 기업이 실제적인 권한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하게 함. 기업체의 관리운영측면에서 “실제적인 경영권”으로서 부여된 총 10항목의 경영권한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창발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음.

- 2014년 11월에 개정된 기업소법(2010년 제정)에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시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명시, 그리고 자율적 경영권한 부여와 주민의 유희화폐 자금동원 가능 등이 새로 추가되어 당의 방침을 법으로 제도화함.

- 이에 따라 국영기업소와 국영상점과 같은 공식경제 부문들이 돈주의 투자를 받아 직접 시장지향적 경영활동을 행하고, 국가기업이익금을 납부하는 현상이 확대됨.

- 국영기업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도 있고 명의를 생산수단(건물, 기계설비)을 함께 빌려주는 경우도 있음. 이는 돈주가 기존 국영기업 일부를 임차·인수하거나 기업을 신규설립(창업)하는 경우로서 특정기관 산하의 별도 기업으로 국가에 등록함.

- 이 조치에 따라 무형고정재산, 자체 투자 고정재산 비중의 확대, 현금 및 외화 비중의 증대 현상 등이 등장함.

o 북한은 1974년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가입하고,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제 특허·상표를 출원하는 등 지식재산권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함.

- 예를 들면 신의주 화장품공장의 화장품인 '봄향기' 등 총 6건의 국제 상표를 출원하고, '간염, 당뇨병 및 비만의 원인 치료를 위한 이온요법 장치'와 관련한 국제 특허 1건을 등록함. 2018년 개최된 제16차 국가발명전람회에는 약 1천여 건의 발명 및 특허권 취득 기술이 참가함.

- 지식재산권에 관한 북한의 관심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음. 북한은 '지적소유권국'을 새롭게 설치하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조직 체계를 마련함.

- 특허 및 상표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신청·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평양지적자원교류소'의 업무량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법 등에 관한 법률을 수정 및 보충하며 지식재산권 침해 현상 방지 차원의 노

력도 전개하고 있음.

- 하지만 발명가 개인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에는 한계가 있음.
-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8년 사이, 국가과학원과 김책공대 등에서 출원한 발명은 약 1만4천 건에 달하지만, 재산권이 개인에게 주어지는 특허는 단 800여 건에 불과함.

#### 0 기업의 현금 비중 변화와 관련해 주목할 현상은 무현금행표와 비슷한 기능을 했던 기업용 돈표 발행

- 북한이 기업 간 결제 수단인 무현금행표의 발행 권한을 지방 상업은행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짐. 중앙집권적으로 관리되었던 금융 체제를 지방분권화하고 지방은행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의도로 파악됨.
- \* 무현금행표는 현금이 없어도 거래를 할 수 있게 은행이 발행하는 일종의 지불 보증 수단임.
- 북한 기업들은 원칙적으로 무현금행표를 이용해 기계나 자재 등 생산수단을 구매함. 기업이 무현금행표를 발행받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에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상당량의 예금을 적립하거나 이와 비슷한 가치의 담보를 제공해왔음.
- 그런데 이제는 각 지방은행도 기업의 담보가치를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무현금행표를 발행함.

#### 0 그러나 북한은 기업들이 거래에서 행표를 오남용하고, 이로 인해 자원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부정부패가 만연하다고 판단

- 무현금행표와 비슷한 기능을 했던 기업용 돈표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북한 당국은 5만원권 돈표를 기업 거래에서 사용하도록 했으나 액상이 너무 작아 거래하기에 불편하고, 현금을 대신해 거래할 수 있는 무현금행표가 이

미 존재해 기업들이 굳이 돈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내부 소식통의 설명

- 북한 당국은 기업거래용 단위로는 다소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는 5만원권 돈표를 발행했고, 지방 기업소를 대상으로 행표 대신 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그래도 당국은 5만원권 돈표를 기업거래에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명확한 거래 기록을 남기고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원 및 재화 남용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
- 북한 당국은 행표를 대신할 거래 수단으로 돈표의 사용 범위를 확대함. 다만 기업거래에서는 행표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행표 발행을 중단하기보다는 행표와 돈표를 병행해서 사용하되, 돈표를 사용하도록 권장함.

#### 0 최근 북한 무역량이 증가하면서 코로나 시기 급락했던 북한 외화 환율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

- 환율 상승으로 외화 가치가 높아지자 평양과 국경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 이전처럼 시장에서 외화를 사용하는 일이 증가함.
- 코로나 국경봉쇄 이전에도 양강도 혜산 등 국경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위안화가 내화처럼 어디서든 사용됐지만 2020년 1월 국경봉쇄 이후 외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외화를 사용하는 빈도가 크게 감소함.
- 북한 당국은 북한 내부에서 외화 사용이 증가할 경우 북한 내화 가치가 하락하고 북한 당국의 외화 보유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음.
- 비슷한 맥락에서 북한 당국은 무역 확대 조치에도 신중함을 보임. 무역이 확대될 경우 주민들의 외화 사용 빈도가 증가하면 북한 돈 가치 하락은 불

가피함.

o 최근 북한은 중앙집권적 지도하에 제한된 무역을 실시, 향후 무역이 확대되어도 국가의 무역 통제 및 관리 수준이 강화

- 기업체의 자율적 경영권한 강화가 비사회주의적 개인소유집중 현상을 초래함. 이를 견제하고 축소시키기 위해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 즉 사회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국가의 통일적 경제관리 강화, 체계와 질서를 수립하는데 집중함.

- 이런 맥락에서 기업통제 강화현상에 따른 기업자산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기업과 소비생활

## Session III.

발표문 02

### 북한 생활쓰레기를 통해 본 소비생활 남북 접경지역에서 주문 북한 일용품 포장재 실태를 중심으로

---

강 동 완  
동아대학교



페미니즘, 북한사회의 변화에 주목하기



## [발표문]

북한 생활쓰레기를 통해 본 소비생활:  
남북 접경지역에서 주운 북한 일용품 포장재 실태를 중심으로<sup>1)</sup>

강동완(동아대)

### I. 서론

#### 1. 연구목적

지난 2012년 4월 11일 김정은은 노동당 제1비서로 공식 추대되었다. 그때부터 10년 동안 이루어진 북한의 정책변화를 ‘김정은 집권 10년’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핵경제 병진 노선이라는 큰 틀에서 지난 10년 동안 북한당국이 강조한 주요 분야로 ‘인민생활향상’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인민소비품 생산을 독려하며 상품의 다종화, 다양화를 제시했다.

하지만 북한 내 상품 생산 현황이나 주민의 소비생활을 파악하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다. 북한 주민의 소비생활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는 현재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조선중앙방송이나 노동신문 기사를 통해 언급하는 인민소비품전시회나 평양 소재 백화점 등을 소개하는 자료에서 유추하는 정도다. 실제로 북한에서 어떤 상품이 생산, 유통되는지 또 주민들이 어떻게 소비하는지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최소한 북한에서 생산된 상품이 소비되는 것으로 간주할 때, 상품 포장재를 통해 그 현황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자료는 북한당국이 인민소비품 확대라는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기에 어떤 제품이 어떻게 유통되는지 알기 어렵다.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인적, 물적 교류가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 상품을 입수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북한의 공식 선전 매체를 통해 영상이나 기사 자료를 보며 상품과 생산공장 정도를 추정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하여 강동완(2021)은 서해5도에서 수거한 북한 일용품 포장지를 통해 북한 상품의 브랜드, 상표, 디자인, 생산공장 등의 현황과 실태를

1) 이 글은 강동완(2021), 강동완(2023)의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분석했다. 또한 서해5도 지역과 함께 동해안 해안가에도 북한 쓰레기가 유입된다는 점을 주목하고 강동완(2023)은 동해안 해안가에 유입된 북한생활 쓰레기 포장재를 통해 북한 상품의 생산 유통 실태를 조사했다. 북한에서 생산한 상품 포장지는 생산공장, 생산날자, 주원료 등 표기되어 있기에 북한 사회의 단면을 읽어낼 수 있다.

물론 북한에서 생산한 상품이 전체 북한 주민들이 소비품으로 사용하거나, 시장에서 유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당국이 일부 지역과 계층만을 대상으로 공급하거나, 기업의 자율책임제에 따라 특정 기업소에서 생산한 제품이 일부 지역에서만 유통된다는 점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현재 북한의 상품 생산 실태나 소비생활을 파악하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북한 상품 포장재 쓰레기를 통해 일부 주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남북 접경 지역 해안가에서 수거한 북한상품 포장재 쓰레기를 통해 북한에서 어떤 상품이 주로 생산, 유통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북한 주민의 소비생활 특성을 살펴본다. 북한당국이 강조하는 인민소비품의 다양화, 다종화에 따른 생산 활성화는 역시 다양한 소비 패턴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2000년대 북한에서는 시장화와 탈규제가 자본주의의 문화적 침투 차단과 공존하는 이중적인 현실로 구성된 특유의 물질적 환경이 조성되고, 그 안에서 여성들이 (주체 사회주의적) 근대적 소비자로 변모하였다(도지인 2022). 북한 사회 안에서 소비가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여주는 기준 중에 하나임은 분명하다. 과시적 소비는 개인과 사회 집단 차원에서 인민이 자신을 표현하는 행위이자 체면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범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부를 획득한 신흥 부유층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며, 정부 정책과 별개로 운영되는 현상도 아니다(윤보영 2022). 다양한 상품이 생산, 유통된다면 이를 소비할 수 있는 계층의 분화는 분명히 일어날 것이며, 상품의 선택을 위한 개인의 취향 등이 고려될 수밖에 없다.

## 2. 연구방법

강동완(2021)은 서해5도에서 수거한 북한 생활쓰레기 중 일용품 포장재를 통해 북한 상품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했다. 서해5도 지역에서 북한산 생활쓰레기



기를 수거한 시기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7월까지로 약 10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주요 장소는 서해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전 지역 해안가다. 서해안에 이어 동해안에서도 2021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13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북한 쓰레기가 유입된 장소의 특징을 살펴보면 강원도 고성 지역은 행정구역상 북한과 가장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해안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많은 북한 쓰레기가 유입된다. 북한과의 인접 거리를 고려할 때 최남단 장소는 포항 칠포해수욕장이다. 북한 쓰레기를 수거한 장소로는 최남단 포항시 칠포해수욕장과 최북단 명파해수욕장을 포함해 모두 42곳의 해안가다(강동완 2022).

포장재 쓰레기를 수거한 시기와 북한에서 상품을 생산한 시기가 같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시기적 동일성이 있다. 예를 들어, 조선중앙TV에서 소개된 제품 포장재를 같은 시기에 현장에서 수거하는 경우인데 생산날짜 표기를 보면 수거 시기와 생산날짜가 큰 차이가 없다. 동서해안을 구분하는 이유는 북한 내 상품의 유통 실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강원도 원산에 소재한 ‘송도원식료공장’ 제품이 서해안 해안가에서 발견되며, 그 반대인 평양에서 생산한 제품이 동해안 해안가에서도 찾을 수 있다. 품목별 차이는 크지 않으나 빨래비누, 물수건, 여성위생용품, 식용차, 담배 등의 포장재는 동해안에서 발견하지 못했다. 해안가에 유입된 상품 포장재 쓰레기를 통한 조사는 분명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조류와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 유입되는 제품의 종류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북한 내부에서 상품의 생산, 유통과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1〉 북한 생활쓰레기 제품 포장지 종류 및 개수

개별상품	서해5도 지역	동해안 지역
음료수(단물)	97	98
빵	85	41
양념류(맛내기, 후추가루, 종합조미료 등)	62	35
과자	58	51
아이스크림(에스키모)	50	79
우유, 요구르트	66	68
사탕	26	31
면류(라면, 우동)	26	7
세수비누	19	19
치약	18	39
가공식품	16	12
의약품(링거, 약품)	13	21
주류	12	16
칫솔	6	1
화장품	6	10
빨래비누	5	0
물수건	3	0
생리대	3	0
차	2	0
담배	3	0
농약	2	3
샴푸	2	3
건자재	1	0
그릇세제	1	4
<b>합계</b>	<b>582</b>	<b>538</b>

출처: 강동완(2021), 강동완(2023)를 종합하여 작성

## II. 북한 상품 생산의 특징과 의미

### 1. 북한 사회의 시장화 추세와 국산품 강조

북한 정권은 전통적으로 억압해왔던 비공식 시장 활동을 강제적으로 막는데 한계에 이르자 일정부분 이를 묵인하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장마당으로 대변되는 시장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변화로 자리 잡았다. 1994년 정부 배급이 끊어지면서 북한 주민들은 장마당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갔고, 2003년 이후로는 장마당이 공식화되면서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었다.<sup>2)</sup> 김정은은 2013년 이후 국

2) 이윤희, 「북한 코로나 19의 실태와 북중 무역에 미친 영향」, 『통일전략』 21-1, 2021, 131쪽.

산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북한당국은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정치적 선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생필품의 생산과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시대에 강조하는 ‘인민생활제일주의’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북한 당국이 제시하는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에서도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여 ‘인민생활 향상’을 꾀할 것을 주장한다. 북한 경제가 대외적 요인에 크게 의존한다는 사실은 북한 정권이 처한 딜레마를 보여준다.

## 2.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생산과 보급

북한당국이 생필품 생산과 보급을 독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김정은 시대에 강조되는 “인민생활향상과 ‘사회주의문명강국’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김정은은 2012년 집권 이후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해 경공업 제품의 공급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위해서 설비의 현대화와 원부자재의 공급 확대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일부 경공업 설비가 신설되고 현대화가 진전되었으며, 전력 및 원부자재 공급이 증가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원부자재를 수입해서라도 생산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sup>3)</sup>

## 3. 상품의 다양화, 다종화 추세

북한당국은 국산화를 강조하며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대략 2015년경부터 원료, 자재와 함께 설비의 국산화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2015년부터 평양 식료공장 국산 설비를 통한 경공업 공장의 설비 현대화 성과를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2016년부터는 국산 제품, 특히 시장에 고급화 및 다양화가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sup>4)</sup> 이러한 국산화 정책과 함께 상품의 효율적인 공급과 유통을 위해 브랜드와 제품디자인 그리고 광고성 카피 등을 적용하여 상품의 다종화를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산업연구원,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산업 및 산업정책』, 산업연구원, 2018, 59쪽.

4) 산업연구원,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산업 및 산업정책』, 63쪽.

### Ⅲ. 개별상품의 현황과 특징

#### 1. 제빵류

북한에서 빵은 재료와 형태에 따라 크게 ‘단설기’, ‘단줄임소빵’, ‘소빵’, ‘스피롤리나’, ‘와플’, ‘튀긴빵’, ‘효모빵’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정 공장에서 한 종류의 제품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단설기, 소빵, 튀긴빵, 효모빵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생산한다. 대표적인 공장으로는 <금곶체육인종합식료공장>이며, 평양시 락랑구역에 위치한 <관문식료사업소>에서도 단줄임소빵, 과일향빠다단설기, 과일크림 단빵 등 6종류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제빵류에서 제품의 다종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단설기는 ‘초콜레트 단설기’와 ‘호두 단설기’, ‘기름 단설기’, ‘스피롤리나 단설기’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초콜레트단설기’는 첨가물에 따라 각각 포도향, 과일향, 파이내플향, 바나나향 등으로 다양한 제품군을 형성한다. 또한 첨가물이 같은 ‘스피롤리나 단설기’라 하더라도 <평양남새공장>, <송도원종합식료공장>, <수림식료공장> 등 생산공장에 따라 각각 다른 제품을 선보이기 때문에 종류가 다양하다.

제빵류 중에서 특이한 건 <유아무역회사>와 <오일종합가공공장>에서 각각 생산하는 ‘와플’이다. 와플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원료는 ‘밀가루, 사탕가루, 우유가루, 물엿, 식용기름, 닭알, 중조, 소금’ 등이다.



〈사진 1〉 ‘오일종합가공공장’ 과 ‘유아무역회사’ 에서 각각 생산한 와플 제품 포장지

## 2. 음료류

북한에서 생산되는 음료류는 단물과 탄산단물을 비롯해 에너르기활성음료, 수소수, 샘물 등의 기능성음료 까지 포함해 크게 3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에서 주스를 의미는 단물은 포장 재질에 따라 비닐팩, PET(페트병) 제품 등이 있다. 이번 조사에서 주운 단물 제품 중 비닐 포장은 모두 30종류로 딸기, 사과, 망고, 바나나 등 과일첨가에 따라 다양한 제품이 출시됨을 알 수 있다. 비닐팩 용기는 대부분 150ml로 규격화 되어 있다.



〈사진 2〉 비닐팩 포장지로 만든 단물 제품으로 바나나, 사과, 딸기, 망고, 파  
이내플 등 첨가물에 따라 다양한 제품이 있다.

### 3. 유제품류

북한에서는 유제품을 ‘젖제품’이라 한다. 젖이라 부르는 우유와, 신젖이라 부르는 요구르트 그리고 에스키모(아이스크림종류)가 대표적인 젖제품에 속한다. 복숭아, 참외, 딸기, 사과, 파이내플(파인애플), 향참외(멜론), 대추, 들쭉, 포도, 굴 등 다양한 종류의 과일즙이 첨가된 제품이 있다고 선전한다. 북한에서 이처럼 다양한 젖제품이 생산되는 건 무엇보다 김정은의 교시를 최우선으로 하는 북한체제의 특성 때문이다.

김정은은 지난 2021년 6월 15일, 노동당 제8기 3차 전원회의에서 “수천 수 만금을 들여서라도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을 지어주는 것은 당과 국가의 최종대 정책이고 최고의 숙원”이라며 “국가적 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유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 것을 당의 정책으로 수립하라”고 했다. 김정은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북한의 공식 매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노동신문 기사에 따르면, ‘숭고한 미래관을



안고 당의 육아 정책을 실천으로 받들어 나가자’ 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정은 의 뜻을 받들어 정치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이며 질 좋은 젖제품(유제품) 생산을 늘리자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전국의 각지 도·시·군 및 공장·기업소·농장의 당 조직들이 유제품 생산에 나서 탁아소 ·유치원 등에 이를 공급하고 있다<sup>5)</sup>고 언급했다.

특히, 유제품 중 첨가물에 따른 에스키모 종류만 40종류에 이를 만큼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원료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첨가물이 다른데 사탕가루와 우유는 기본으로 포함되며, ‘클로렐라 성분’, ‘비타민 C’, ‘콜라겐’, ‘올리고당’ 등을 첨가한 제품도 있다.



〈사진 4〉 다양한 종류의 에스키모 포장지로, 첨가물에 따라 꿀, 콜라겐, 사과, 콩, 해바라기씨, 군밤야자, 꿀향, 복숭아신젖, 락화생 등이 있다.

#### 4. 식품류

식품류는 ‘즉석국수’와 ‘우동’ 등 면제품을 비롯해 ‘쫄쫄이’, ‘안주’, ‘고추절임’, ‘마요네즈’, ‘맛살’, ‘보가지(복어)’, ‘우유가루’,

5) (로동신문, 2021/7/11).

‘차’, ‘해바라기씨’, ‘매운닭발쪽’ 등이다. 즉석국수’는 라면을 의미하는데 한 공장에서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생산된다. 예를 들어, <경흥은하수식료공장>에서는 ‘소고기맛, 해물맛 즉석국수’를 비롯해 3종의 제품이 있다. 북한에서도 역시 라면과 우동은 구분되는데 <남포시기초식품공장>, <평양114수출원천생산사업소> 등에서 생산한 우동 제품이 있다. 우동의 용량은 400g에서 500g이며 포장지는 역시 규격화되어 있다.

‘쏘세지’ 제품은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에서 생산한다. <청류벽식료공장>의 ‘종합가공안주’와 <락랑식료공장>에서 만든 ‘가공 락화생’ 제품에는 ‘안주’라고 표기되어 있어 별도의 품목으로 분류한다. <관문식료사업소>에서는 ‘마요네즈’와 ‘조개살’, ‘말린맛살’ 제품을 생산하는데 마요네즈는 용량에 따라 3종류가 있다. <갈마식료공장>에서도 ‘말린 낙지살편’ 등의 가공식품을 생산한다. ‘인조고기’ 제품은 ‘하늘’이라는 브랜드의 <락랑광흥식료가공사업소>, ‘동명’이라는 브랜드의 <철도록산무역회사> 그리고 ‘진도’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남포기술대학기술제품연구실>에서 생산한다. 3종류 제품 모두 ‘조미료의 향긋한 맛이 잘 어울린다’라는 문구를 포장지에 표기했다.

## 5. 양념류

양념류 포장지는 크게 ‘맛내기(조미료)’, ‘후추가루’, ‘양념가루’, ‘고추가루’, ‘생강가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맛내기를 생산하는 공장은 <묘향무역총회사 선봉빵공장>, <운하대성식료공장>등이며, <금은산무역회사 운하판매소>, <을지봉합작회사>는 후추가루를 주로 생산한다. 특히 <을지봉합작회사>는 맛내기와 후추가루는 물론 ‘불고기 조미료’ 제품까지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맛내기 생산공장은 <묘향무역총회사>, <조선대보무역회사>, <운하대성식료공장>, <유아무역회사>, <장생식료공장> 등이 대표적이다. 후추가루는 10종류의 제품이 확인되었는데, ‘후추가루’와 ‘검은 후추가루’ 제품으로 구분한다. 이외에도 <동대원김치공장>의 ‘고추가루’와 <곡물가공연구소>의 ‘생강가루’ 제품도 있다. 이외에도 ‘종합조미료’와 ‘불고기조미료’, ‘국수양념가루’, ‘닭고기양념가루’ 등 다양한 양념가루 제품이 있다.



## 6. 잡화류

잡화류로 분류한 품목은 ‘물수건’, ‘여성위생용품’, ‘화장품’ 등의 위생용품과 ‘샴푸’, ‘세수비누’, ‘치솔’, ‘치약’ 종류의 욕실용품 그리고 ‘세탁세제’, ‘그릇세척제’, ‘원주필(볼펜)’, ‘칠감(페인트)’, ‘살충제’ 등의 제품이다. 이 중에서 물수건 포장지는 모두 4종류인데 제품 포장지에는 모두 ‘소독용’을 강조하는 문구가 들어 있는 게 특징이다. 여성위생용품 포장지는 4종류인데 <정백종이생산사업소>에서 ‘고고성’, <정흥합작회사>에서는 ‘백화’ 그리고 공장명을 알 수 없는 제품 중 ‘봉선화’라는 품명은 똑같다.

세수비누 포장지는 모두 15종류로, 화장품을 주로 생산하는 <평양화장품공장>, <신의주화장품공장>을 비롯해 <봉학신봉일용품공장>, <경림식료일용가공사업소>, <승전무역회사> 등이 있다. <룡악산비누공장>에서 생산한 비누 제품의 종류가 제일 수량이 많았으며, 이 공장에서는 샴푸 제품도 생산하고 있다.



<사진 5> 첨가물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세수비누 제품

#### IV. 북한 일용품 포장지 쓰레기에 담긴 함의

##### 1. 시장화의 확대와 소비자로서의 북한주민

북한 일용품 포장재를 통해 볼 수 있는 특징은 ‘높아진 주민들의 소비 욕구 충족을 위해 제품생산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김정은은 노동당 제7차 대회 총화보고에서 “다른 나라의 선진 과학 기술 성과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제때 받아들일 것”과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중략) 기술혁신운동과 사회주의경쟁운동을 활발히 벌려 생산적 양양을 일으킬 것”<sup>6)</sup>을 강조했다. 또 8차 당대회에서는 “선질후량(先質後量)의 원칙에서 제품의 질을 높이며 새 제품개발에 힘을 넣을 것”<sup>7)</sup>도 강조했다. 또한, 북한 당국이 2014년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도입으로 기업 간 경쟁을 유도한 이후 중앙과 도(道)급 기업 위주로 상표 사용 및 국제상표 등록이 증가하고 있으며(김영희, 2021), 이는 신제품 생산에 동기 부여와 상품의 질 향상 및 판매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통제 범위 내에서의 시장경제체제 확대를 용인한 조치’를 볼 수 있다. 북한은 고질적인 식량난과 반복되는 자연재해, 그리고 핵 개발에 따른 국제제재 등으로 인한 사실상 배급제도가 붕괴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장마당’이라는 자본주의 메커니즘을 암묵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장마당의 확산과 활성화에는 국가 배급제도의 붕괴와 함께 서해5도에서 수거한 북한산 일용품 쓰레기가 ‘장마당 세대(북한 MZ세대)’들의 다양화되고 높아진 소비 욕구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해준다.

---

6) (로동신문, 2016/5/9).

7) (로동신문, 2021/1/9).



〈사진〉 필자가 북중국경에서 촬영한 양강도 혜산시 장마당 모습

## 2. 지역과 계층의 불균형적 소비

‘평양과 지방 간 심각한 불균형을 암시’ 하고 있다. 서해5도 해안에서 수거한 북한산 일용품 포장지 쓰레기에 기재된 공장 소재 주소를 분석해 보면 평양과 지방간 불균형은 매우 심각하다. 동해안을 접하고 있는 강원도(4.4%), 함경북도(0.6%)를 제외하면 모두 서해안과 접하고 있는 행정구역임을 고려할 때 불균형은 더 심해진다.

또한 북중국경에서 거래되는 실제 완제품과 남북접경지역에서 수거한 포장재 쓰레기는 제품의 종류나 질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필자가 직접 북중국경에서 입수한 북한산 치약은 <비타민치약, 표백치약, 피로린산치약, 어린이치약, 소금치약, 동양치약, 사과치약, 맑음아침치약, 인삼치약> 등 제품이 다양하고 포장지 재질이나 주원료가 다양하다. 이에 반해 동서해안에서 수거한 치약의 경우 주로 <백학치약>이며 이는 별도의 상품 디자인이 없다. 수출품과 내수용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사진〉 필자가 북중국경에서 입수한 북한 치약 완제품

### 3. 상품 광고와 개인 취향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소비자들의 구매 선택을 받기 위해 중요한 요소가 광고인데 그중에서도 서체는 그 자체만으로도 광고 효과가 있다. 북한 역시 제품 광고를 하기에, 서체는 제품을 알리는 주요한 요인으로 간주한다.

서체는 북한상품의 주요 특성을 표시하는 주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이번 연구에서 살펴본 북한상품의 주요 서체는 해당 품목별로 거의 중복되는 서체가 없을 정도로 개별 상품마다 고유한 서체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자류에 속하는 초콜렛의 경우 북한에서는 ‘초콜레트’로 표기하는데 공장별 상품마다 서체가 다를 수 있다. 이는 상표와 구분되는 것으로 상품명을 표기하는 공통된 단어도 각각 다른 서체를 사용했다. 같은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도 종류에 따라 서체가 다른데, 예를 들어 운하대성식료공장에서 생산한 ‘파이내플향 초콜레트’와 ‘커피맛 초콜레트’는 같은 공장의 초콜레트지만



종류에 따라 다른 서체로 디자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경흥은하수식료공장에서 생산한 초콜레트 역시 첨가물에 따른 종류에 따라 포장지 서체가 다르다.

〈표 6〉 각 공장 제품별 ‘초콜레트’ 서체

구분	공장	브랜드	서체
1	운하대성식료공장	대하	
2	운하대성식료공장	대하	
3	경흥은하수식료공장	경흥	
4	경흥은하수식료공장	경흥	

#### 4. 특정 소비계층을 위한 상품

북한상품 포장재는 상품의 특징을 광고문구로 표기되어 있다. 그중에서 소비계층을 타겟으로 한 상품 광고가 눈에 띈다. <수림식료공장>에서 생산된 호두단설기 제품에는 “새아침을 맞는 사람들, 특히 학습에 열중한 대학생들과 사무원들을 위하여” 라는 문구가 표기되었다.



철건무역회사에서 생산된 가루비누 포장재에는 ‘여성들의 벗’이라는 문구가 표기되어 있다. 빨래용 세제인 가루비누의 특징으로 ‘한번만에 진때제거’, ‘척 담그면 척 세척되는’ 등의 세탁효과를 강조하는 문구외에 ‘여성들의 벗’이라는 표기를 넣은 건 빨래를 하는 행위자를 여성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성역할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 IV.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는 서해5도와 동해안에서 주운 북한 생활쓰레기 일용품 포장지를 통해 개별 상품의 현황과 특징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적 함의를 살펴 보았다. 일용품은 품목에 따라 각각 제빵류, 음료류, 잡화류, 등으로 구분해 각각의 특징을 분석했다. 제품 포장지에는 생산공장과 생산일자 그리고 주원료 등이 주로 표기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 인민소비품 부문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경제적 특징으로는 ‘시장화의 확대와 소비자로서의 북한주민’으로 요약된다. 북한 제품 포장지에는 ‘국규’가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국가규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제품생산 과정에 있어서 자동화·규격화·표준화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국가규격과 함께 제품별 특징을 반영한 디자인과 서체 등을 통해 제품 포장의 질을 높이는 건 그만큼 시장을 의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실상 배급제도가 붕괴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장마당’이라는 자본주의 메커니즘을 암묵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북한 당국으로서는 기업소별 제품 생산과 유통을 묵인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장마당을 통해 확산되는 제품은 결국 개인적인 취향을 지닌 소비자로서의 북한주민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사회적 특징은 지역과 계층의 불균형적 생산과 소비로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서해5도에서 주운 북한 상품 포장지를 통해 생산주소를 확인한 결과 60%이상이 평양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북한에서 평양과 지역간 불균형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된다.

#### 참고 문헌

##### <국내 문헌>

- 강동완. 『서해5도에서 북한쓰레기를 줍다』. 부산: 도서출판 너나드리. 2021.
- \_\_\_\_\_. 2023. “동해안에 유입된 북한 생활 쓰레기 현황과 특징: 북한상품 포장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과 세계』. 제5권 3호, 95.
- \_\_\_\_\_. 2021. “북한상품의 현황과 특징.” 『통일인문학』. 제87집, 273-329.
- 김다울. 2021. “지역 간 격차로 본 김정은 정권 10년.” 『KDI북한경제리뷰』.

12월호.

김병연. 2011. “북한 경제 성장의 결정 요인”. 『경영경제연구』, 11권 1호, 157-186.

김영희. 2021. “북한 기업의 상표 이용 증가와 의미.” 「Weekly KDB Report」. 2021.1.11.

김태래·전병길. “북한 브랜드 로고 디자인에 관한 연구: 김정은 시기 WIPO에 등록된 북한 상표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34권 2호, 2022, 117쪽.

도지인. 「2000년대 북한여성의 패션과 소비문화」, 『통일인문학』,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 93쪽.

윤보영. 「북한사회의 과시적 소비현상: 북한이탈주민 구술사를 중심으로」, 한국구술사학회 후기학술대회(2022.11), 20쪽.

이유진. 2021. “북한의 품질인증제도 운영 현황.” 「Weekly KDB Report」. 2021.8.17.

최현숙. 2021. “김정은 체제에서의 북한 의생활 변화 연구.” 「논평·이슈브리핑」. 동아시아연구원.



기업과 소비생활

## Session III.

토론문 02

### **북한 생활쓰레기를 통해 본 소비생활** **남북 접경지역에서 주문 북한 일용품 포장재 실태를 중심으로**

---

최 설

자유아시아방송



페미니즘, 북한사회의 변화에 주목하기



## [토론문]

### 북한 생활쓰레기를 통해 본 소비생활: 남북 접경지역에서 주운 북한 일용품 포장재 실태를 중심으로

최 설(자유아시아방송)

본 발제는 서해5도와 동해안에서 주운 북한의 생활쓰레기 중에서 일용품 포장지를 분석해 북한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실증 자료로 제공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북한에서 부각되는 식품의 국산화가 시장의 발달로 어떻게 분화되고 있는지, 계층별 식품소비 수준정도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하겠다.

특히 식품 쓰레기 포장지에 밝혀진 생산주체를 보면 대북제재 장기화에 대응하고 있는 북한 경제 내구력을 읽을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북한 연구에서 걸림돌로 되어 있는 정보의 폐쇄성에 어떻게 접근해 자료의 한계를 넘어야 하는지, 북한 연구자들에게 의미있는 시사점을 던지는 것이다.

발제 자료를 종합해본다면 쓰레기로 주운 일용품 포장재를 통해 북한의 제빵, 음료, 잡화 등의 특징을 분석하고, 제품 포장지에 표기되어 있는 생산공장과 생산일자, 주원료 등을 통해 북한 경제와 사회적 특징을 제시하였다. 우선 경제적 특징으로 일용품 쓰레기를 분석해보면 ‘시장화 확대와 소비자로서의 북한주민’으로 요약하였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북한 주민의 소비 행태보다는 일용품 포장지의 세부적 분석으로 북한 시장화의 미시적 변화를 제시하는데 주안을 두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로부터 토론자는 탈북기자으로써 북한 시장 연구자으로써 북한을 취재한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토대로 발제내용을 ①생산주체 분화 ②생산품종의 편중 ③국규<sup>1)</sup>의 시장화 ④공급독점으로 나눠 보완하고자 한다.

#### □ 생산주체의 분화

우선 일용품 쓰레기 포장재를 보면 생산주체가 분화하고 있다. 북한에서 생산은 국가계획에 비중을 두었으나 2000년대 들어 기업의 자율성과 무역의 분권화, 종합시장 제도화로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였다. 국영기업에서 무역회사,

1) 국가에서 승인한 상품명 및 영양성분 규정

지방정부, 개인으로 생산주체가 확장된 것이다. 이제는 생산주체가 공식이나 비공식이나는 범주를 뛰어넘어 국가세원을 충당하는 기재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계획경제 시장화를 유발하는 동시에 계획을 보완하는 관계성을 나타낸다.

발제문에서 <사진-4>를 보면 다양한 종류의 에스키모 포장지에 ‘오일건강 음료종합공장’, ‘오일종합가공공장’, ‘오일무역’ 등 ‘오일’ 생산지가 다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일’은 ‘5.1’로 추정된다. 북한에서 숫자로 표기된 생산지는 대부분 2경제 산하로 알려진 것을 감안하면 군부가 직접 다종 식품생산에 뛰어든 실태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수직적으로 확장되어 왔던 북한 생산기지가 수평적으로 분화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사진-4>에서 에스키모 생산지에 ‘북창대흥탄광’도 있다. 국영탄광이 직접 식품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수요가 많은 에스키모를 생산해 시장에 판매하는 것이다. 이는 국영탄광 시장화, 즉 에너지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에 석탄원료를 공급해야 할 국영탄광들에서 석탄생산 계획이 시장과 연계되어 작동하고 있는 메커니즘을 엿볼 수 있다.

## □ 생산 품종의 편중

발제문에서는 또한 일용품 품목을 제빵류, 음료류, 잡화류 등으로 구분해 각각의 특징을 분석했다. <표-1>을 보면 생산순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1순위가 음료, 2순위가 빵, 3순위가 종합조미료 등이다. 이 순위는 쓰레기 포장지로 추정한 지표이지만 타당성이 있다. 즉, 북한의 에너지와 원부자재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적게 들고 원부자재 조달이 수월한 음료가공과 제빵의 생산성이 다른 품목보다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주수 단물 포장지 비닐팩, PET(페트병) 제품’인데, 주수 단물은 북한 과일을 가공한 원료로, 혹은 중국에서 향 원료를 수입해 조달하므로 어렵지 않다. 비닐팩 포장지도 북한 자체로 생산가능하며, 페트병은 재활용이 많다.

두 번째로 빵을 보자. 빵의 주원료인 밀가루와 설탕은 중국에서 전문 수입한다. 빵 생산이 어렵지 않다는 말이다.

반면, 발제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쓰레기 포장지에 사탕 포장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왜 그럴까. 첫째, 제빵 공정보다 사탕공정이 전기가 소요된다. 둘째,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사탕 선호도가 하락한다. 이로부터 빵과 과자의 포장 단위도 달라진다. 즉, 소득수준이 높은 주민들은 적은 양을 수시로 구입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고급 빵일수록 낱개로 포장된다. 사례로 ‘초콜릿’, ‘백합 과자’ 등을 들 수 있다.

## □ 국규 도안의 시장경쟁

쓰레기 포장지를 보면 식품마다 ‘국규’가 표기되어 있다. 이는 상품의 품질과 도안을 승인한 국가의 인허가이다. 발제문에서는 ‘제품별 특징을 반영한 디자인과 서체 등을 통해 제품 포장의 질을 높이는 건 그만큼 시장을 의식한 결과’라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충 설명한다면 생산 주체들 간 시장경쟁이 함축되어 있다고도 평가된다.

1980년대 초반 해도 북한의 식품을 대표하는 평양 룡성식료품공장에서조차 식품 포장지에 공장명과 용량 정도만 밝혔다. 1980년대 후반부터 평양에 식품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외국식품을 수입하기 시작하며 북한도 포장지 도안에 주의를 돌렸다. 각국에 파견된 대사관을 통해 산업미술 관련 도안 자료 등이 자본주의에서 들어오기 시작한 배경이기도 하다.



<그림 1> QR 스캐너로 생산지 확인된 북한 와플: (출처 최설)

다시 말해 북한 식품의 포장재 도안 기초는 자본주의 상품이 시초이며, 2000년대 시장의 발달로 생산주체가 증가하면서 기업의 상품을 특화하기 위한 시장경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식품포장 도안은 상표를 승인하는 국가기관과 도안을 제작하는 산업미술제작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국규와 도규<sup>2)</sup>에 따라 상품의 품질과 가격이 달라진

다. 이로써 비공식 시장이 중층적으로 얹히게 된다. 예를 들어 발제문에서 제시한 ‘와플’ 과 토론문에서 제시한 ‘와플’ 식품 포장지 도안은 시각적 차이가 뚜렷하다. 같은 포장지라 해도 바코드를 스캔하면 생산지 주소 등이 확인되는 것과 확인되지 않는 것도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 □ 평양의 공급 독점

발제문에서는 본 북한 일용품의 쓰레기 포장지를 보면 북한 사회 격차, 즉, 지역과 계층별 소비(생산)의 불균형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쓰레기 포장지 생산 주소 60% 이상이 평양이기 때문이다. 동해안과 인접한 강원도(4.4%), 함경북도(0.6%)를 제외하면 모두 서해안과 접하고 있는 행정구역임을 고려할 때 불균형 문제가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균형보다는 생산기반의 수도 집중화가 경로의존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북한 산업의 기반을 본다면, 서부지역은 중화학공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동부지역과 달리 평야지대이며 제조업, 특히 경공업 기반이 발달되어 있었다. 특히 서부지역은 교통인프라가 발달되어 있어 시장화 이후 인구유동과 물류이동에 유리했다. 입지적 요인이 시장자원으로 활용되면서 계획 외 생산주체가 확장되는 데 유리해지면서 소비가 가장 빠른 경공업 기반이 확장된 것이다. 경공업은 중공업에 비해 자본의 규모가 적고, 소비재라는 특성상 자금회전이 빠르다. 평양에는 중앙정부 기관이 자리하고 있어 당, 군, 정부 등 특권층 무역회사 본부가 자리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인허가가 빠르며, 특히 사금융 시장이 발달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은 개인 투자자들을 유인한다.

발제문 <표 6>에 표기된 초콜릿 생산기지를 보면 운하대성식료공장과 경흥은하수식료공장 역시 당 산하로 알려져 있다. 현재 북한 경제는 군수공업 외 중화학공업보다 경공업 부문에서 성과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공급 주체가 평양에 집중되어 전국의 소비재시장을 평양이 독점한다.

이처럼 생활쓰레기 일용품 포장지를 통해 북한 경제 실태를 평가하는 문제는 대북제재 장기화에 대응하고 있는 북한 경제 내구력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 본다.

---

2)도에서 승인한 상품명 및 영양성분 규정

문화와 음악정치

## Session IV.

발표문

### 북한예술의 역사적 고찰 대공연(大公演/ Grand Performance)을 중심으로

---

최금희  
대구가톨릭대학교



페미니즘, 북한사회의 변화에 주목하기





## [발표문]

### 북한예술의 역사적 고찰 - 대공연(大公演/ Grand Performance)을 중심으로 -

최금희(대구가톨릭대)\*

#### I. 서론

북한의 문화예술이 체제의 나팔수로 본격적인 등장을 한 시기는 1946년 3월 15일 ‘북조선문학예술동맹’ (약칭 문예총)이 결성되면서였다. 문예총은 해방 후 북한의 건국을 위한 선전활동의 선봉에 섰으며 이러한 행보는 제43차 상무위원회에서 문예총에 대한 실천강령이 발표되면서 더욱 구체화되었다<sup>1)</sup>.

북한예술에는 여러 장르의 공연형식이 있는데 국가적 주요 기념일마다 많은 예술인을 동원하여 공연이 진행되어왔다. 김일성 시대에는 만수대예술단, 김정일 시대에는 보천보전자악단과 왕재산 경음악단 등 개별악단의 공연이나 합동공연이 수없이 열렸다.

김정은 시대도 모란봉악단공연(2012.07)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음악정치 행보를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음악과 예술이 선전·선동의 중심에 있는 것은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유사하지만, 김정은 시대는 개별악단 공연이나 합동공연 외에 ‘대공연’이 자주 열린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김정일 시대에 비해 김정은 시대에 대공연 횟수가 늘어났다는 것에 주목한다. 가장 최근에 열린 대공연은 2022년 9월 9일 공화국창건 74돐 경축 대공연이다. 이번 대공연은 김정은 집권 이후 일곱 번째로 진행된 대공연으로서 풀땀 앞머리를 한 가수가 등장하거나 가수들이 한복이나 드레스가 아닌 바지정장으로 등장하는 파격적인 모습이 공개되었다.

\* 인문학강사,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 E-mail: cgh0925@cu.ac.kr

1) 조선로동당 제43차 상무위원회에서 제시된 문예총의 다섯가지 실천강령은 다음과 같다. (김문환, 1990, 『북한의 예술』, p. 21.)

- ① 당과 인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 ② 근로대중을 선진의식으로 교양하는 사상적무기가 되어야 한다.
- ③ 당과 국가의 정책을 올바르게 반영해야 한다.
- ④ 민족문화전통을 계승하고 진보적문화유산을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 ⑤ 부르주아 사상에 반대하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여 사회주의적 내용에 부합하는 새로운 민족적 형식을 찾아 창작방법을 구사해야 한다.

북한의 예술공연에서 여성 가수들이 바지정장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2020년 12월에 북한당국이 발표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sup>2)</sup>의 취지와는 대비되는 현상이다. 대공연이 조선중앙방송 텔레비전으로 전국의 북한 주민에게 보여지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은 분명히 김정은과 북한당국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관련 선행연구에서 전영선(2007, 2012), 김재엽(2011), 정영철(2012) 김정수(2019), 배인교(2015), 조현성(2019) 등은 북한 음악과 예술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북한문화예술정책과 일회성 공연 혹은 개별악단 공연을 통해 음악정치를 분석하고 있다. 대공연 관련 연구로는 하승희(2019)의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 경축 대공연 <위대한 당, 찬란한 조선>에 대한 연구와 강동완(2021)의 모란봉악단이나 8차 당대회 대공연 연구 등이 있지만 아직까지 대공연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가 거의 전무하다.

이러한 연구들은 김정은 시대의 정치적 입장과 행보에 대하여 개별공연 혹은 특정악단을 통한 정책과 정치적 메시지를 단면적으로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북한예술에서 대공연의 정치적 기능이 어떻게 구현되어오는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대공연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통치수단으로서의 대공연이 가지는 기능과 역할과 함께 김정은 시대의 대공연의 차이점을 분석했다.

## II. 연구방법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현재까지 북한의 공연예술 관련 연구는 거의 미비하다. 본 연구를 위하여 먼저 북한 정권이 탄생한 1947년 9월부터 김정일 시대까지의 공연예술과 관련한 문헌에 대한 반복적인 추적분석을 진행했다. 북한문헌분석을 통하여 대공연의 개념을 정의하고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 대공연의 역사를 고찰했다. 다음으로 대공연에 대한 구체적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제 대공연에 대한 녹화영상물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김정은 시대(2017~2019)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2)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 32조에는 “남조선식 말투, 글,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남조선 서체로 인쇄물을 만드는 자는 노동단련형 또는 2년까지의 노동교화형 선고” 등 북한 당국이 한류를 비롯한 외부문화, 종교, 자본주의적 요소를 뿌리 빼기 위해 2020년 12월 제정한 법이다. (주성하, 2021.02.12,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시작하는 새해, 검색일: 2022.05.15.)

### Ⅲ. 연구결과

#### 1. 대공연의 개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공연의 사전적 정의는 “음악, 무용, 연극 따위를 많은 사람 앞에서 보는 일”<sup>3)</sup>이다. 역으로 보면 공연은 음악, 무용, 연극 등의 예술 행위를 무대 위에서 대중 앞에 보여주는 것이다.

남한<sup>4)</sup>의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서는 공연을 장르별로 크게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국악, 무용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외에 기타라고 분류한 목록에는 특별공연, 특별 연주회 혹은 여러 기획콘서트 등 복합장르가 속한다. 현재 남한에서는 연주회나 콘서트가 고전 위주의 클래식에서 벗어나 국악 콘서트 혹은 트로트 콘서트 형식으로 열리거나 <KBS1 가요 무대>나 음악회처럼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혼합 형태 등 다양한 형식의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북한에도 음악회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수 몇 명이 번갈아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소수 정원의 댄서들이 간단한 율동을 하거나 연주가 펼쳐지는 남한의 음악회와는 형식에서 차이가 있다. 대표적으로 해마다 새해 첫날에 진행하는 <설명절 음악회>를 꼽을 수 있으며 각종 명절이나 경축일마다 여러 악단과 교향악단들의 개별악단 혹은 합동공연으로 음악회가 종종 열린다. 또한 남한의 열린음악회와 비슷한 격인 방송 야외 현장을 찾아가는 음악회도 있다.



[그림 1] 은하수관현악단  
2010. 5. 음악회에서 녀성민  
요 4중창 “보람찬 우리 일터”  
화면 (영상 캡처)



[그림 2] 2012. 2.16. 광명성절기념대공연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의 화면(영상 캡처)

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검색일 2022.11.14.

4) 본 연구에서 문맥상 북한과 구분이 필요할 때에는 ‘한국’이나 ‘우리나라’라는 표현보다 ‘남한’이라고 표기하기로 한다. 또한 주년을 나타내는 ‘돌’을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하여 북한식 ‘돛’을 통일로 표기함을 밝힌다.

북한 대공연이 일반적인 음악회와 다른 점은 공연의 전체 종목이 하나의 서사(書史)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가령 음악회는 배경 화면에 출연자의 모습이 나오지만, 대공연의 배경 화면에는 출연자가 나오지 않는다. 대공연의 배경 화면은 오로지 공연의 서사를 받쳐주는 역할로써 북한 지도자들의 현지 지도 모습이나 공장과 농촌의 모습 등 공연 종목별 내용에 맞는 자료화면으로 채워진다(<그림 1>, <그림 2>).

현재 북한의 「조선백과사전」에는 대공연이란 무엇인가라는 정확한 정의가 수록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1948년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된 날부터 현재까지 음악과 문화예술에 관한 북한 문헌들을 추적하여 대공연의 개념을 유추할 수 있다. 대공연은 일찍이 김일성 시대 음악무용서사시<sup>5)</sup> 형식으로 시작하여 김일성·김정일 시대에 김정일의 지도에 의하여 대공연이라는 이름으로 발전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대공연 “축원의 노래” 구성을 우리 식의 음악무용종합공연 형식에 맞게 사상적대<sup>6)</sup>가 잘 서도록 할데 대해 가르치면서 원래 콘첼트는... 여러개의 종목을 내용상 아무런 련관이 없이 기계적으로 묶어놓으면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국가적인 중요한 정치행사를 할 때마다 해온 서사시적 내용을 담은 음악무용종합공연 형식의 대공연은 여러 가지 음악무용소품을 기계적으로 묶어서 공연하는 종래의 콘첼트<sup>7)</sup>와 전혀 다른 우리 식의 공연형식이라고 밝히시였다.(「조선음악년감」 1993: 16)

김정일은 “술한 예술인들을 동원하여 대공연을 창조한 것은 행사공연이나 보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에게 많이 보여주어 충실성 교양에 이바지하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만큼 일정 기간 대공연을 하여 많은 사람이 보게 하여야 한다”<sup>8)</sup>고 했다. 이는 수령에 대한 우상화와 북한 주민들의 충성심을 끌어내는 데 ‘대공연’이 목적과 역할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5) 북한의 조선백과사전에서는 「음악무용서사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음악과 무용을 기본형상수단으로 하여 거대한 역사적 사변들과 사실들을 서사시적화폭으로 반영하는 대규모적인 종합예술 형식. 음악무용서사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의 문학예술의 빛나는 전통과 그에 기초하여 광복 후 찬란히 개화발전한 문학예술의 모든 성과들에 토대하여 주체 47(1958)년에 우리 나라에서 창조된 새로운 예술형식이다. 음악무용서사시는 합창, 무용, 시랑송, 관현악, 무대미술 등 다양한 표현수단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중요한 역사적사변들과 사건들을 서사시적으로 반영한다... 인민상계관작품인 《영광스러운 우리조국》은 음악무용서사시형식의 첫 발단으로 된다... 음악무용서사시형식은 《피바다》식 혁명가극과 음악무용이야기 《락원의 노래》에서 달성한 성과들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고 풍부화한 《영광의 노래》가 창조됨으로써 더욱 높은 수준에서 발전완성 되었다.” (「조선백과사전」: p. 406, 삼일포정보센터 전자사전 2001-2005)

6) 북한 문헌에 따르면 사상적대는 김일성의 혁명 역사를 의미한다.

7) 콘체르토(concerto)의 북한식 표기법이다.

8) 「조선음악년감」 1993.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5, p. 16.

본 연구에서는 공연에 대한 개념과 북한문헌을 통한 음악무용서사시와 대공연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대공연’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대공연이란**, 음악과 무용, 연주, 무대배경, 설화, 집단체조 등 다양한 예술형식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정치적 의미를 서사시적으로 담아내는 종합예술공연형식이다. 대공연은 통치자의 탄생기념일이나 공화국창건 기념일과 같이 국가적 기념일에 진행하며, 따라서 기념일의 성격에 따라 통치자의 일생이나 사상, 업적, 수령의 영도 아래 북한이 걸어온 역사 등으로 서사의 스토리도 다양하다. 대공연의 목적은 북한 주민들의 충실성 교양과 사상교육에 있다.

## 2. 문화예술로서 대공연의 발전과정

북한 문헌에서 대공연을 다룰 때 1958년 공화국창건20돌 경축 음악무용서사시 <영광스러운 우리조국>부터 대공연으로 설명하지만 대공연이라는 명칭은 1987년 4월 15일 김일성탄생 75돌 경축 공연 제목이 “5,000명 대공연 <행복의 노래>”로 처음 등장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대공연의 역사는 <영광스러운 우리조국>을 시작으로 분석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북한 대공연의 역사를 고찰한 결과 대공연은 음악과 예술의 거의 모든 장르를 하나의 정치적 서사로 엮어내는 북한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공연예술로써,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치는 기간 동안 총 열두 번 제작되었다. 대공연은 김일성·김정일 시대에 5회, 김정은 시대는 7회로써 통치 기간 대비 대공연은 거의 배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한정권이 생긴 이래 김정은 시대가 집권대비 대공연이 가장 많이 진행된 것이다. 정영철은, 국민 다수의 투표로 선출되는 과정을 밟지 않고 자동으로 권력이 세습되는 북한의 정치체제 특성상 지도자의 선출은 과정보다는 선출 이후 검증과 대중적 권위의 확보가 중요하게 제기 될 수밖에 없다고 보면서,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대중적인 카리스마의 확립이라는 리더십 요건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의 승계는 ‘압축적인 과정’, 아니 오히려 ‘도약’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의 급박함이 요구되었다고 주장한다<sup>9)</sup>.

9) 정영철, “김정은 체제의 출범과 과제: 인격적 리더십의 구축과 인민생활 향상,” 『북한연구학회보』, 제16권 제1호, 북한연구학회, 2012. pp. 4-5.

<표 1>. 북한의 대공연 목록(1948.9 ~ 2022.10, 연구자 작성)

No	날짜	형식	제목	시대구분
1	1958.9.9	공화국창건20돐 경축 음악무용서사시	영광스러운 우리조국	김일성 시대
2	1982.4.15	김일성탄생70돐경축 음악무용서사시	영광의 노래	김일성· 김정일 시대
3	1987.4.15	김일성탄생75돐경축 5,000명 대공연	행복의 노래	
4	1992.4.15	김일성탄생80돐경축대공연	축원의 노래	
5	2010.8.23	선군절50돐기념 음악무용대공연	선군승리 천만리	김정일· 김정은 시대
6	2012.2.16	광명성절기념대공연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합니다	김정은 시대
7	2012.4.15	김일성탄생100돐기념대공연	수령님 모시고 천년만년 살아가리	
8	2012.4.25	조선인민군창건 80돐경축 대공연	영웅적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9	2015.10.10	당창건70돐경축대공연	위대한 당, 찬란한 조선	
10	2020.12.3	조선로동당제8차대회경축대공연	당을 노래하노라	
11	2022.4.15	김일성탄생110돐기념대공연	영원한 태양의 노래	
12	2022.9.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4돐기념대공연	제목 없음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북한예술에서 대공연의 시대별 역할과 정치적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일성 시대 대공연은 북한 주민에게 김일성의 업적을 선전하고 사회주의 체제 건설에 북한 대중을 동원하는 사상적 무기였다. 둘째, 김정일시대는 대공연에 **사상적 대**<sup>10)</sup>를 세움으로써 권력계승의 도구로 활용되었다. 셋째, 김정은 시대 대공연은 선대 수령들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씩 지워가면서 국가를 강조하고 있었다. 또한 김정은 시대 대공연은 세계적인 추세와 주민들의 눈높이에 대한 의식, 무대예술과 방송 기술의 발전 등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첨가됨으로써 정치·사상적 서사가 더 풍부해지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 시대 대공연은 북한이 정상국이라는 점과 김정은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정치적 전략이다.

10) 김정일: “문학예술작품에는 창작가의 사상미학적의도를 보여주는 사상적대가 있어야 말하자는 사상이 명백해지고 인식교양적 의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여러개의 음악무용작품을 묶어 하나의 이야기로 전개하는 음악무용종합공연형식의 작품에서 사상적대를 바로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둥을 세우지 않고 집을 지을 수 없듯이 사상적대를 세우지 않고 노래와 무용작품들을 모아 조립하는 식으로 하여서는 교양적 의의가 있는 작품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문학예술의 영재』 1989: 403)

#### IV. 결론

대공연의 발전과정을 고찰한 결과 북한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주민결속을 위한 정치적 행사로 대공연을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공연은 한마디로 단순한 예술공연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거대한 종교집단의 필수적 의례다. 뒤르케임(Émile Durkheim)에 따르면 종교는 사회적이다. 종교와 사회가 살아남고 번영하기 위해서 의례(rites)가 필요하고 따라서 종교의례는 공동체와 함께한다.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성스러움이고 이를 위해서 반드시 의례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sup>11)</sup>. 성스러움과 의례, 공동체는 결국은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뒤르케임식의 관점에 볼 때 김정은의 나라 북한 사회가 종교이고 공동체이고, 대공연은 김정은의 공동체를 성스럽게 하는 하나의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사회나 종교가 의례 없이 존재하거나 번영할 수 없다는 뒤르케임의 주장대로라면 김정은의 통치전략에서 대공연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의례이고 정치적 도구라고 볼 수 있다.

북한 정권이 유지되는 한 대공연이라는 의례는 존재할 것이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끊임 없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할 것이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대에 걸친 전반적인 대공연에 관한 연구는 대공연이 의례로서 가지는 정치적 기능에 대하여 파악하는데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11) 뒤르케임은 "한 사회가 살아남고 번영하기 위해서 그런 의례들이 참으로 필요하다면, 종교가 없이는 결코 공동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해진다...종교적 관념들이 의문시될 수는 있어도, 종교의례들은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사회는 예식 없이는 존재하지 못하며, 따라서 종교는 영속한다."고 주장한다; 대니얼 펠스, 조병련·전중현 역, 「종교에 대한 여덟가지 이론들」, 2013, 한국기독교연구소 출판, 제3장 p.201.





문화와 음악정치

## Session IV.

토론문 01

### 북한예술의 역사적 고찰 대공연(大公演/ Grand Performance)을 중심으로

---

브라이언 레이놀즈 마이어스  
동서대학교



페미니즘, 북한사회의 변화에 주목하기



[토론문]

북한예술의 역사적 고찰  
- 대공연(大公演/ Grand Performance)을 중심으로 -

브라이언 레이놀즈 마이어스 (동서대학교)

현재 한국의 대학들은 인문계열 학과의 규모를 감축하거나 심지어 완전히 폐지하려는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시기에 문화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실질적 혜택을 상기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라 할 것이다. 북한과 같은 급단의 국가에 접근할 때 이는 특히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유익한 논문의 서론에서 저자가 말하듯, “북한예술에서 대공연이 갖는 정치적 기능에 초점을 맞춘 연구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이 연구는 통치 수단으로서 “대공연”이 행하는 역할을 조사한다.

분명 이 용어는 김일성 탄생 75주년 기념 공연의 제목으로 처음 등장한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논문에는 역대 “대공연”을 정리한 유용한 목록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는 대공연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통치기간(총6회)보다 김정은 체제(현재까지 7회)하에서 훨씬 더 빈번하게 실시되었음을 분명히 한다.

하지만 이 목록은 또한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첫 번째 질문은, 최초의 “대공연”이 공화국 창건 10년이 되는 해이자 해당 용어가 등장하기 수십 년 전인 1958년 개최되었다면 이를 “대공연”으로 지칭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관련된) 두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다. 1958년과 1982년 사이에는 정말 어떤 정치적 테마의 대규모 공연도 없었다고 이해해야 하는가? 문화혁명으로 불릴 수 있을 만큼 격변기였던 1967년과 1972년 사이에 개인 숭배가 번성했음을 감안할 때 이를 믿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이어지는 세 번째 질문은, 정치적 테마에 바쳐진 중요 대규모 공연의 빈도가 김정은 치하에서 실제로 늘어난 것이 사실인가라는 물음이다. 이와 달리 그저 북한에서 정례적으로 개최되었던 행사에 “대공연”이라는 과장된 용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늘어난 것은 아닌가?

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공연의 변화 양상에 대해 저자가 유익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일성 시대 대공연은 북한 주민에게 김일성의 업적을 선전하고 사회주의 체제 건설에 북한 대중을 동원하는 사상적 무기였다. 김정일 시대 대공연은 사상적 이상을 확립하고 강화함으로써 권력 계승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정은 시대 대공연은 선대 수령들의 이미지를 조금씩 지워가면서 국가로 강조점이 이동하였다.”

할리우드 영화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주제를 상영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즐거움을 주며, 이런 점에서 분명 그 내용이 진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윤을 위한 오락이라는 그 기본 기능은 1923년과 여전히 같다. 마찬가지로, 북한 “대공연”의 기능 역시 본질에서 항상 같은 것으로 남아 있다. 즉, 그것은 특정 시기에 체제가 선전하길 원하는 메시지를 선전하는 것이다. 1945년 이래 북한의 예술, 음악, 문학은 “당성”의 진작에 매진해 왔으며, 이는 본래 소련에서 수입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기본원리 중 하나였다. 실천적인 의미에서 이는 당대 당노선의 조직적 전달을 의미한다. 1940년대에서 1990년대에 이르는 김일성 치하에서도 예술의 내용에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

논문은 “공연의 전체 프로그램이 하나의 서사로 연결된다”라는 점에서 북한의 대공연이 남한(또한, 그 함의 상 다른 나라)의 콘서트와 다르다는 인상을 준다. 저자는 “우리 식의 음악무용종합공연 형식”을 언급하는 <조선음악연감>(1993)을 인용함으로써 다양한 장르가 결합한 콘서트와 하나의 포괄적 서사가 북한에 고유하다는 가정으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현재 케이블 TV에서 급증하고 있는 “트로트” 쇼와 같은 남한의 “일반적인 음악회”에서 테마의 통일성이나 정치적 메시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는 나 역시 동의한다. 하지만 저자의 유용한 목록이 가리키듯이, 북한 “대공연”의 대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특별한 기념일과 연결되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남한의 기념일에도 서사적으로 통일된 콘서트가 열리는가? 삼일절에 관해서라면 그 대답은 ‘그렇다’이다. 예를 들어, 지난 3월 3.1 운동 104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된 한 TV 행사는 춤과 노래, 연설이 혼

합된 형식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동일한 협소한 주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심지어 행사 전에 방영된 많은 광고 역시 태극기를 비롯해 삼일절과 관련된 여러 모티프를 내세웠다.)

물론 북한의 “대공연”과 비교해 남한의 기념식은 연설이 더 많고 음악은 더 적은 경향이 있다. 더 중요한 차이는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하는 것과 민족적 자부심과 국가적 자부심을 함께 고취하는 것이 매우 다르다는 점이다. 국가의 세금으로 치르는 행사이지만 삼일절 공연은 국가를 강화하는 기능에 복무하지 않는다. 사실 민족주의는 북한과의 민족적 유대감에 기여하는 경향이 있다. 많은 한국인은 1948년 이승만이 선포한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민족적 배신이라고 생각한다. (민족주의와 반국가 정서의 결합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의 독일을 연상시킨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임을 천명함에도 남한은 국가보다 훨씬 더 많이 민족을 찬양한다. 민족적으로 중요한 개천절(10월 3일)이 공휴일인 반면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이던 2008년 제헌절(7월 17일)이 공휴일에서 폐지되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통화에 정부수립 관련 인사의 초상이나 공공장소에 정부수립 관련 인사의 동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한에는 정부수립과 관련해 진정한 의미의 공휴일이 없다. 심지어 태극기와 무궁화 직인 역시 어떠한 정치적이거나 국가적인 가치도 전달하지 않는 민족적 상징이다. 애국가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점에서 남한은 아마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국가일 것이다. (한국인들이 국가와 강력히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민족이 이룩한 스포츠와 문화 부문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우냐고 물으면 웃음으로 넘기곤 한다.)

남한의 북한 연구자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북한의 공식 문화가 갖는 국가 중심성에 더 놀라워하는 것은 이 때문일지도 모른다. 나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이런저런 북한의 예술 장르나 하위 장르를 분석하는 남한의 학술 논문들을 접하지만, 이들 논문은 북한 문화가 개인 숭배에, 따라서 체제에 복무한다는 뻔한 진술을 크게 넘어서지 않는다.

나의 조국인 미국에 대해 말하자면, (7월 4일에 열리는) 독립기념일 콘서트는 많은 점에서 북한의 “대공연”과 매우 흡사하다. 그것은 대규모의 화려한 스펙터클로서

a) 통일적 서사를 지니고, b)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포함하며, c) 시민의 국가 동일시를 강화하는 기능에 복무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이 백악관의 주인과 명시적으로 등치가 되지는 않더라도 대통령이 미소 띤 얼굴로 참석하거나 영상을 통해 출연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축하 공연의 일반적 효과는 현 정책, 특히 군대의 해외 활동에 대한 지지를 장려하는 것이다. (북한의 용어를 빌리자면, 7월 4일은 선군절로 기술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 흥미로운 논문의 저자에게 북한 “대공연”의 고유성으로 보이는 것이 실상은 대공연이 찬미하는 국가의 고유성이라는 점이다. 즉, 이러한 고유성은 가문이 소유하고 군대를 우선시하며 극도로 민족주의적인 국가로서 사회주의 공화국 행세를 하는 사실상의 왕조 국가 - 달리 말해, 극우 국가 - 가 갖는 고유성이다. 당연히 이 기이한 체제를 찬미한다고 여겨지는 노래와 춤은 자유민주주의나 다민족 국가를 기리는 무대 행위와 상당히 다를 것이며 상당히 다른 분위기를 전할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과 미국의 공연이 갖는 주기능은 본질에서 같다.

논문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결론으로 끝을 맺는다. “뒤르켐적 관점에서 볼 때 김정은의 나라 북한 사회는 종교이자 공동체이며, 대공연은 이를 성스럽게 하는 하나의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사회나 종교가 의례 없이 존속하거나 변영할 수 없다는 뒤르켐의 주장대로라면 김정은의 통치전략에서 대공연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의례이자 정치적 도구로서 출현한 것이다.”

나는 이 흥미로운 진술에 동의하며, 저자가 특히 종교적 의례의 측면들과 비교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들에 준거해 본문에서 이러한 명제를 더욱 자세히 다루었다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내 생각에는, 적어도 한 공연 곡의 텍스트 발췌 없이는 북한 공연에 관한 어떤 논문도 완전하지 않다.)

나는 저자가 이러한 비판을 건설적인 것으로 수용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내가 논문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으며, 특히 명쾌하고 알기 쉬운 글을 즐겁게 읽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북한 공식 문화의 한 측면을 해명한 점을 칭찬하고 싶다. 앞으로 더 많은 저자의 글을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화와 음악정치

## Session IV.

토론문 02

### 북한 예술의 역사적 고찰 대공연(大公演/ Grand Performance)을 중심으로

---

전 영 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



페미니즘, 북한사회의 변화에 주목하기





[토론문]

북한 예술의 역사적 고찰

- 대공연(大公演/ Grand Performance)을 중심으로 -

전영선(건국대 통일인문학)

- 발표 잘 들었습니다. 북한 예술의 기본 원칙과 전개 양상을 잘 정리하셨습니다. 논문의 문제의식과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주제가 매우 크고, 범위가 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공연’이라고 하였지만 짧은 지면으로 소화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어서, 연구자의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 연구자의 기본 연구 방향에 동의하면서 토론자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 첫째, 연구자는 결론에서 “대공연의 발전과정을 고찰한 결과 북한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주민결속을 위한 정치적 행사로 대공연을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공연은 한마디로 단순한 예술공연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거대한 종교집단의 필수적 의례다” 고 하였습니다. 연구의 출발이 된 문제의식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연구의 출발도 “본 연구는 김정일 시대에 비해 김정은 시대에 대공연 횟수가 늘어났다는 것에 주목한다.”,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대공연에서 나타난 변화와 특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출발한다” 고 하였다. 공연예술 중에서도 ‘대공연’에 주목했던 이유도 단순한 공연이 아닌 ‘위기 돌파의 종교적 의례’와 같다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북한 대공연을 중심으로 전개를 이끄는 것이 연구자의 주장을 선명히 하는 것이라 봅니다.

- 둘째, 논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북한 문헌에서 대공연을 다룰 때 1958년 공화국 창건 20돌 경축 음악무용서사시 <영광스러운 우리조국>부터 대공연으로 설명하지만 대공연이라는 명칭은 1987년 4월 15일 김일성 탄생 75돌 경축 공연 제목이 “5,000명 대공연 <행복의 노래>로 처음 등장했다”고 하였습니다. 북한 문헌에서 “대공연으로 설명”한 것과 “대공연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했다는 것과의 시간 차이가 20년이 넘습니다. ‘대공연이라고, 설명한 것과 대공연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했다’는 것을 구분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해석이 필요합니다.

“북한정권이 생긴 이래 김정은 시대가 집권대비 대공연이 가장 많이 진행된 것이다.”라는 표현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공연이 아닌 ‘대공연’ 형식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대공연’은 아니지만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같은 대규모 형식의 공연 형식도 비교할 때, 보다 정확한 진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봅니다.

“대북 제제와 코로나19라는 이중 삼중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매년 진행하는 대공연”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매년은 아닙니다. 매년은 아니지만 거의 매년마다 하는 이유가 아마도 권력의 정당성을 충분히 갖지 못한 김정은 정권에서 정권 정당성의 결여를 대규모 행사를 통해 극복하고자 대공연을 활용하였다는 추정할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공연에서도 ‘혈통의 계승’과 함께 ‘충성의 계승’ 장면을 연출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셋째, 공연분석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공연이 정년(5년, 10년)을 경축하는 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정은 시대를 보면 2012년 “광명성절 기념 대공연”은 김정일이 사망한 2011년 12월 17일 이후 처음 맞이한 광명성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2022년 9월 9일에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4돐 기념대공연’이 갖는 의미는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은 10주년의 의미가 컸기 때문에 열린 대회로 보는데, 의견이 어떠신지요.

- 넷째, 대공연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방향성입니다. “김정은 시대 대공연은 북한이 정상국이라는 점과 김정은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정치적 전략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북한이 정상국”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요. 다른 나라와 다르지 않다는 보통국가라는 의미인지요. 아니면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잘 버티고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국가라는 의미가 더 큰지요.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연구의 특성이 잘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 다섯째, 개념에서 보충이 필요합니다. “집권 안정기 대공연에서는 선대 수령들에 대한 송가보다 당과 어머니에 대한 내용으로 서사가 진행되면서 당은 곧 김정은이라는 사상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를 보면, ‘집권 안정기’가 언제부터인지요? ‘집권초기’, ‘집권안정기’로 구분하기보다는 당대회와 같은 계기를 기준으로 구분하거나 시기로 끊는 것이 객관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2023 CKWP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Changes in North Korea

# Feminism with Focus on Changes in North Korean Society

## Program

---

### Tue. Aug. 22

- 14:00-14:10 Opening address** Kim Eun-Ju (Executive Director of the Center for Korean Women & Politics)  
**Congratulatory address** Kim Young-Joo (Deputy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Republic of Korea),  
Chang Pil-Hwa (President of the Korea Foundation for Women)
- 14:10-15:30 Session I. Feminism and North Korea**  
**Moderator** Cho Jeong-Ah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Presentation** Feminism and North Korea Studies: Significance and Challenges  
Cho Young-Ju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Discussion** Suzy Kim (Rutgers University), Hyun In-Ae (Ewha Womans University)
- 15:40-17:00 Session II. Markets and Women**  
**Moderator** Kim Sung-Kyung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Presentation** A Study on the Informal Network of North Korean Women Engaged in Market Activities  
CJo Hyun-Jung (Eum Research Institute)  
**Discussion** Park Hee-Jin (Dongguk University),  
Nguyễn Thị Thanh Thuỷ (Institute for Vietnamese Women's Studies)

### Wed. Aug. 23

- 14:00-15:30 Session III. Businesses and Consumer Life**  
**Moderator** Kim Young-Hui (Korea Hana Foundation)  
**Presentation1.** A Study on Changes in Corporate Assets in North Korea  
Jeon Kyung-Ju (Ewha Womans University)  
**Discussion** Lim Eul-Chul (Kyungnam University)  
**Presentation2** Consumer Life Seen from Household Waste in North Korea  
Kang Dong-Wan (Dong-A University)  
**Discussion** Choi Seol (Radio Free Asia)
- 15:40-17:00 Session IV. Culture and Music Politics**  
**Moderator** Lee Taek-Gwang (Kyung Hee University)  
**Presentation** A Historical Review of North Korean Art: Focusing on Grand Performances  
Choi Guem-Hee (Daegu Catholic University)  
**Discussion** Brian Reynolds Myers (Dongseo University), Jeon Young-Sun (Konkuk University)



## Contents

- 133 **Opening address** Kim Eun-Ju (Executive Director of the Center for Korean Women & Politics)  
137 **Congratulatory address** Kim Young-Joo (Deputy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Republic of Korea)  
Chang Pil-Hwa (President of the Korea Foundation for Women)

### ■ **Session I. Feminism and North Korea**

- 141 **Presentation** **Feminism and North Korea Studies:  
Significance and Challenges**  
Cho Young-Ju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151 **Discussion 1** Suzy Kim (Rutgers University)  
157 **Discussion 2** Hyun In-Ae (Ewha Womans University)

### ■ **Session II. Markets and Women**

- 163 **Presentation** **A Study on the Informal Network of North Korean Women  
Engaged in Market Activities**  
CJo Hyun-Jung (Eum Research Institute)  
171 **Discussion 1** Park Hee-Jin (Dongguk University),  
175 **Discussion 2** Nguyễn Thị Thanh Thuỷ (Institute for Vietnamese Women's Studies)

### ■ **Session III. Businesses and Consumer Life**

- 181 **Presentation 1** **A Study on Changes in Corporate Assets in North Korea**  
Jeon Kyung-Ju (Ewha Womans University)  
193 **Discussion 1** Lim Eul-Chul (Kyungnam University)  
201 **Presentation 2** **Consumer Life Seen from Household Waste in North Korea**  
Kang Dong-Wan (Dong-A University)  
219 **Discussion 2** Choi Seol (Radio Free Asia)

### ■ **Session IV. Culture and Music Politics**

- 225 **Presentation** **A Historical Review of North Korean Art:  
Focusing on Grand Performances**  
Choi Guem-Hee (Daegu Catholic University)  
235 **Discussion 1** Brian Reynolds Myers (Dongseo University)  
241 **Discussion 2** Jeon Young-Sun (Konkuk University)







**Kim Eun-ju**

Executive Director of the Center for Korean Women and Politics

## Opening Remarks

I'm Kim Eun-ju, Executive Director of the Center for Korean Women & Politics.

I extend my deepest gratitude to all of you who have generously taken time out of your busy schedules to participate, whether virtually or in-person, at the 2023 International Symposium on North Korean Social Change, hosted by the Center for Korean Women & Politics.

I would like to first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wards the Deputy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Republic of Korea, Kim Young-joo, and the President of the Korea Foundation for Women, Chang Pil-wha, who will be delivering the opening remarks. Additionally, I extend my thanks to our distinguished moderators - Jo Jung-ah,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m Sung-kyung,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Kim Young-hui, Head of External Cooperation at the Korea Hana Foundation, and Lee Taek-kwang, Professor at Kyung Hee University.

Additionally, I would like to extend my gratitude to Dr's. Cho Young-ju, Cho Hyun-jung, Jeon Kyung-ju, Kang Dong-wan, and Choi Geum-hee, who will be sharing their invaluable insights via their presentations at this international symposium, to be held on the 22nd and 23rd of August. My appreciation also extends to Dr's. Suzy Kim, Hyun In-ae, Park Hee-jin, Nguyen Thi Thanh Thuy, Lim Eul-chul, Choi Seol, Bryan Reynolds Mayer, and Jeon Young-seon. Their insightful and thought-provoking discussions will undoubtedly augment the value of these presentations.

I would like to particularly extend my gratitude to Professor Suzy Kim of Rutgers University, USA, and Dr. Nguyen Thi Thanh Thuy of the Institute for Vietnamese Women's Studies. Despite the challenging time difference, they have generously agreed to contribute to our discussions.

The theme of our 2023 International Symposium on North Korean Social Change, now in its third year following the 2020 and 2021 symposiums, focuses on 'Feminism and an Examination of the Transformation of North Korean Society'.

This symposium seeks to analyze the transformations seen in markets, businesses, consumption patterns, and the cultural sphere during the 12 years of Kim Jong-un's leadership. We will discuss the implications,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studying the impact of these changes on the lives of North Korean women, from feminist and gender perspectives.

North Korean women, more than any other demographic, have been profoundly affected by changes within the country. These changes originate from the severe economic crisis of the mid-90s, which led to the discontinuation of the rationing system and the introduction of market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ist system in North Korea, initially, only married women were permitted to participate in the marketplace. However, it is my understanding that marital status no longer dictates eligibility for engaging in business. Now, two decades later, North Korean women's economic activity is predominantly concentrated in markets, operating within the framework of capitalism, where they embrace a variety of roles including business owners, workers, and proprietors.

In the midst of these domestic changes, North Korea has acceded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subsequently submitting its state report.

As mandated by Article 18 of CEDAW, countries that have ratified the Convention are obligated to produce a state report within one year following the accession to the Convention, and subsequently every four years.

Having ratified CEDAW in 2001, North Korea submitted its inaugural state report in 2002. This was then followed by a combination of its second, third and fourth reports after a considerable delay, in 2016, 14 years later.

While this could be interpreted as a political maneuver to portray North Korea as a normal member of the global community, it undeniably signifies a significant shift in the societal role and status of North Korean women following the onset of marketization.

Consequently, it becomes essential to explore the societal transformations in North Korea not just through the economic and political lense, but also through feminist or gender perspectives.

This insight led to the decision to make 'Feminism and an Examination of the Transformation of North Korean Society' the central theme for this international symposium.

As the importance of gender-based analysis in the study of changes within North Korean society

increases, we are faced with multiple barriers, such as the challenge of gaining permission for on-site visitations and restricted access to pertinent data.

Therefore, this symposium aims to become a forum where strategies for conducting a comprehensive gender analysis of social changes in North Korea, despite these obstacles, are discussed and developed.

In 2022, the Center for Korean Women & Politics initiated a public contest aimed at supporting North Korean defector researchers in their examination of the social changes occurring in North Korea.

Ultimately, three teams were selected and they have dedicated the past year to conducting research under the guidance of experts specializing in North Korean studies, culminating in the publication of their conclusions. This symposium marks the first public presentation of the teams' efforts.

An analysis and review of societal shifts in Nor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defector researchers, who have lived extensively in the North and experienced a socialization process distinct from that of South Koreans, will provide a fresh perspective to the wide array of North Korean studies conducted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The 2020 Symposium was held with the theme of 'North Korean Social Change, Women, Marketization and Culture', and it was followed by the 2021 Symposium entitled, "The Future of North Korean Women in the Covid Era: Crisis or Opportunity?"

While the first and second symposia centered on the phenomenon of change itself, i.e., the changes within North Korean society and the transformation of women therein, the third symposium seeks to trace these changes and discuss the significance, necessity, and specific methodology of analyzing these shifts from a feminist and gender perspective.

The Center for Korean Women & Politics sincerely hopes that these dialogues, even if only to a small extent, will help enhance the application of gender analysis research within studies of societal changes in North Korea.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North Korean Social Change aims to encourage exchange between North Korean researchers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nd to scrutinize the changes within North Korean society from a women's perspective to illuminate the internal dynamics and implications of these shifts. We have tried very hard in the organizing of this year's symposium to

fulfill this purpose, and beg your understanding of any possible shortcomings.

I'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once again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to the many domestic and international experts who have participated in this international symposium as moderators, presenters and discussants. Furthermore, I want to extend my heartfelt thanks to all of our audience members who are joining us remotely.

Thank you.



**Kim, Young Joo**

Deputy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Republic of Korea

## Congratulatory Remarks

Greetings to everyone. I'm Kim Young-joo, the Deputy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of Republic of Korea representing the constituency of Yeongdeungpo-gu in Seoul.

I offer my sincere congratulations on the convening of the 2023 International Symposium on North Korean Social Change.

I extend my gratitude to Kim Eun-ju, Executive Director of the Center for Korean Women & Politics, and the entire team for their hard work and commitment in organizing this event.

I understand that the Center for Korean Women & Politics, established in 1990, is a trailblazing women's organization that has tirelessly championed women's political empowerment.

As we embark on the 12th year of Kim Jong-un's leadership, this symposium holds great significance, providing a platform to present research centered on societal transformations in North Korea - in the marketplace, corporations, and in the cultural sphere - all viewed through a feminist lens.

In the wake of the collapse of socialist regimes in the late 1980s and a series of natural disasters, North Korea found itself in a catastrophic economic crisis by the mid-1990s.

Faced with dwindling rations and factory closures, women were compelled to venture into the market to ensure the survival of their families.

As two decades have passed, it wouldn't be an exaggeration to state that North Korean society has been reshaped by the socio-economic activities of its women, activities which have principally proliferated through the marketplace.

The resilience and sacrifices of women in times of national crises have been notably demonstrated in Korean history.

For instance, during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South Korean women donated their wedding jewelry and gold rings, traditionally given as presents on a baby's first birthday, to help alleviate the nation's debt.

The pivotal roles of women, both in domestic spheres and within wider society, have served as a sturdy foundation, propelling South Korea's economy to attain a per capita income of \$30,000.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also increasingly acknowledging the capabilities of women.

In 2011, Michelle Bachelet, the inaugural Executive Director of UN Women, emphasized the need to "harness female resources for sustainable human prosperity."

Additionally, the global community recommends and is working towards the full utilization of women's potential and economic prowess for the sustainable prosperity and development of humanity. This includes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t is my hope that this international symposium, with its focus on changes in North Korea through the lens of women, will serve as a catalyst for increased exchange and consensus between women in both North and South Korea in the future.

Once again, I commend the organization of the 2023 International Symposium on North Korean Social Change and express my gratitude to all those who have joined us, both in person and virtually.

Thank you.



**Chang, Pil-Hwa**

President of the Korea foundation of Women

## Congratulatory Remarks

Ladies and gentlemen, I'm Chang Pil-wha, the President of the Korea Foundation for Women.

I wish to extend my heartfelt congratulations to the Center for Korean Women & Politics for their successful organization of the 2023 International Symposium on North Korean Social Change. This symposium is particularly compelling to me as it dissects transformations in North Korean society through the prism of feminist perspectives.

As we are all aware, North Korea endured a crippling economic crisis following the downfall of socialist regimes in the late 80s, a succession of natural disasters, and the famine of the 90s. The resilience and sacrifices of women were revealed to be the most crucial elements in the country's effort to overcome these crises.

However, in a society dominated by patriarchal culture, women are often regarded as mere adjuncts to male power. Consequently, their roles as essential societal figures are significantly restricted. North Korean society, particularly, is characterized by a deeply embedded hierarchy of patriarchal power that pervades both homes and the larger society. Here, women's human rights are often overlooked and their political and social representation growth is stifled.

At the onset of the new millennium in 2000, the United Nations announced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with an objective to eradicate global poverty. The United Nations has underscored that adopting a gender perspective is vital to the realization of these goals. In other words, the United Nations has emphasized that the Millennium Goals can only be successfully achieved if women are accorded significant roles to play.

Consequentl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advocating and actively working towards ensuring that nations implement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prevent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fully harness women's potential and economic strength for the sustainable prosperity and development of humanity.

In 1991, both South and North Korea simultaneously joined the United Nations, becoming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is our collective responsibility to confront and address the conflicts, climate crisis, violence, and crimes against humanity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currently grappling with, in order to secure human coexistence and prosperity.

In 2016, North Korea submitted its inaugural state report to CEDAW on the status of women's and children's rights, signaling its first step as a cooperativ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is essential for the global community to mobilize all possible support to ensure that North Korea is no longer isolated, and can contribute to building a foundation for human coexistence through cooperation and solidarity.

Now in its third year,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North Korean Social Change plays a crucial role in accurately identifying trends in social changes across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imensions in North Korea. Additionally, it aids in broadening the foundation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olidarity. I am delighted and grateful for this.

Once more, I am profoundly thankful to the experts in North Korean studies who are participating in this symposium with their insightful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I would like to extend a special appreciation to the Center for Korean Women & Politics, which continues to strive for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by conducting research projects on societal changes in North Korea, even amidst challenging times for inter-Korean relations.

Thank you.



**Feminism and North Korea**

# **Session I.**

**Presentation**

## **The Significance and Challenges of Feminism and North Korean studies**

---

**Cho Young-joo**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Feminism with Focus on Changes in North Korean Society**



## **Session I**

### **[Presentation]**

## **The Significance and Challenges of Feminism and North Korean studies**

**Cho Young-joo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1. Similarities and Disparities between women's studies<sup>1</sup> and North Korean studies**

- Women's studies is often perceived as the study of women, but it entails more than a mere examination of women; it is an academic discipline requiring a theoretical perspective. It needs theoretical engagement and an introspective examination of what 'women' signify, the issues it raises, research objectives, and an initial identification of the research question. With this framework, feminism represents not just an academic field and practice, but also a perspective and ideology.
- North Korean studies is the academic exploration of North Korea, and the content and the objectives can differ based on the researcher's perspective. In contrast to women's studies, this discipline does not necessarily require a fixed perspective as a foundational element of the discipline.
- Both disciplines share a common trait in that they study a distinct 'object' — women's studies focuses on 'women,' while North Korean studies centers on 'North Korea.' Consequently, both fields are inherently multidisciplinary. Before women's studies and North Korean studies solidified as independent disciplines, a range of academic fields, including sociology, political science, economics, and cultural studies, examined the subjects of women or North Korea. Even today, beyond the formal fields of 'women's studies' and 'North Korean studies,' investigations into women and North Korea are continuing across multiple disciplines.
- Women's studies has actively strived to carve out its distinct disciplinary identity through the cultivation of unique theories, epistemologies, methodologies, and research techniques. This field engages in dialogue with established disciplines, yet it also integrates the aims and characteristics unique to women's studies into its theoretical, epistemological, and methodological constructs. In doing so, women's studies poses a challenge to dominant

<sup>1</sup> In this paper, the term 'women's studies' is favored over 'feminism' in order to focus on the former as an academic discipline. This is because feminism spans a broad spectrum, encompassing a myriad of perspectives and practices.

disciplines, beginning with the problematization of unequal gender relations and power dynamics. In contrast, North Korean studies is more typically characterized as an interdisciplinary domain rather than an independent discipline furnished with its own theories, epistemologies, and methodologies. This implies that the subjects and strategies derived from extant academic disciplines are often applied to North Korean studies, dependent on the specific topic under investigation.

## **2. Convergence of Women's studies and North Korean studies: The Achievements and their Limitations**

- The intersection of women's studies and North Korean studies primarily occurs in two ways: first, through the analysis of North Korean women, and second, through the application of women's studies discourse within the realm of North Korean studies. The former is not entirely distinguishable from the latter. Indeed, when we infuse women's studies perspectives into the exploration of North Korean women, we are essentially integrating women's studies discourse into North Korean studies. Consequently, the latter approach embraces a broader scope.
- The intersection of women's studies and North Korean studies has made a substantial impact on the field of North Korean studies, as well as on the study of North Korean women. While it would be inappropriate to attribute all the achievements of North Korean studies to this intersection, it is clear that the convergence of the two disciplines has catalyzed the development of issues initially raised in women's studies that were subsequently explored in North Korean studies. Further, the discourses of women's studies have been effectively applied in North Korean studies.
- Women's studies converges with North Korean studies in the research questions the former has been raising and its disciplinary evolution, particularly in aspects such as epistemology, methodology, and research methods. These mutual considerations encompass: the perception of women or North Korea as 'other,' the definition of 'women' or 'North Korea,' the methodologies employed for studying each subject, and the construction of the researcher's relationship with the subject under study.
- Primarily, the approach to viewing the study subjects, 'North Korea' and 'women,' is linked with the matter of 'objectivity'—a concept considered pivotal in academic scholarship—and the researcher's position. Traditional objectivity is often understood as neutral, detached from the researcher's perspective, understanding, ideology, etc., operating under the presumption that the researcher can position themselves as an entirely disinterested observer of the study's subject. However, women's studies contests this conventional interpretation of objectivity. With the understanding that total dissociation between the researcher and the research subject is unattainable, and that the complete exclusion of the researcher's stance and perspective is not feasible, women's studies argues that revealing

the researcher's thought process and position can pave the way towards achieving objectivity. Moreover, women's studies places emphasis on 'contextuality,' positing that to challenge the power structures and mechanisms causing women's oppression and discrimination, one must start with the experiences and positions of 'women'. The objectivity of North Korean studies is similarly questioned due to research being conducted by external parties, the inaccessibility of the research subjects, and the dependence on materials produced by the North Korean regime. Since the mid-1990s, research on North Korean defectors has been conducted through interviews and qualitative research, yet even in these instances, the positional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raises the question of objectivity.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further complicates the objectivity of North Korean studies, as ideology inevitably permeates research and scholarship. In this regard, women's studies, which acknowledges that absolute objectivity is unattainable, has been interested in redefining objectivity and creating alternatives to conventional positivist objectivity, rather than striving to attain an unachievable objectivity through different conditions or procedures. Regarding the question of ideology, women's studies has exposed androcentric and patriarchal ideologies in existing research, broadening the discourse on what ideologies are in operation, how they function, and what kind of knowledge they seek to produce. This implies that North Korean studies stands to gain from deepening discussions with regard to reflection on the researcher's positionalit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earcher and the researched, rather than rigidly adhering to traditional notions of objectivity. In the light of this, the methodological debate within North Korean studies during the 1980s and 1990s symbolized a crucial process. These dialogues among North Korean researchers led to significant strides in the epistemological reflections on North Korea whilst earnestly broaching methodological issues. The debates were remarkable for challenging the existing paradigm by scrutinizing how our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is biased by the division of Korea. However, they still fall short, as they continue to place the researcher in an objective position and confine the discussion to debate on the optimal ways to observe North Korean society and the most suitable theories and approaches to explain it.

○ Key concepts in women's studies include 'other,' 'otherization,' and 'subjectivity.' These ideas have found relevance in North Korean studies, where the 'otherization' of North Korea has become a central issue. The otherization is challenged within the discipline and also examined externally. ChoHan Hye-jung criticizes the prevalent complacency in the study of North Korean society, asserting that "most of the current research on North Korean society is conducted complacently, without undergoing a process of self-correction of perspective", and "researchers believe that they can view North Korean society as objectively as if they were studying an unrelated foreign society".<sup>2</sup> Such criticisms advocate for researchers to engage in introspection of their perceptions of their subjects. Essentially, it implores that researchers question their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n society and their own positionality. This is of paramount importance as it underscores the positionality and relationality of the researcher. In this context, although methodological debates have been less visible in studies on North Korean women, individual researchers have undertaken such self-examination during their research. The inherent nature of women's studies, which strives to

<sup>2</sup> Chohan Hae-jeong (2000), "Unification Space and Culture: A Critical Reinterpretation", edited by Chohan Hae-jeong and Lee Woo-young, Opening the Era of Post Division: South and North Korea, the Search for Cultural Coexistence, Seoul: Samin.

immerse itself in women's experiences and perceive them from a woman's viewpoint, coupled with the epistemological shift brought about by the introduction of qualitative research, facilitates such introspection. Meanwhile, the concepts of subjectivity and agency have taken center stage in recent North Korean studies. The question of subject is a critical issue in feminist political science, as discussions about female subjects are vital for the objective of dismantling of the structures that oppress women, and for answering the question of how to account for the identities of beings categorized as 'women.' Feminism, with its historical dialogue about female identity and subjectivity, no longer regards subjectivity as a fixed or unchanging term.<sup>3</sup> Butler posits that the agency does not presuppose the doer, but the doer is variably constructed in and through the deed. They asserts that the agent is produced within discourse, devoid of its inherent essence, and acts by speaking in contexts that assign new meanings to words.<sup>4</sup> Butler's perspective and discussion on the female subject are crucial in that they emphasize the significance of women's actions itself, rather than their inherent nature as women. This is because the meaning of a woman's actions can be revealed only when the context in which they occur is identified. Furthermore, it can reveal women 'in their complexity' rather than as essentialized or monolithic entities, and can unpack the contradictions in women's choices and actions. It is also an attempt to transcend the dichotomy of structure and behavior. Until recently, North Korean studies delineated a distinction between the governing power and the governed, often simplifying individuals' agency into binary perspectives. The field has often reduced the multifaceted meanings of diverse experiences and phenomena to dichotomous viewpoints, such as resistance versus conformity, or one '-ism' against another. While it is crucial to conceptualize and elucidate phenomena that diverge from previous experiences, the resulting conceptualizations often lead to the oversimplification of these experiences and their inherent meanings. In light of this, women's studies have stressed the importance of avoiding binary interpretations of experience, instead focusing on revealing and contextualizing the multiple meanings that arise from experiences and phenomena. This suggests that North Korean studies should also place a greater emphasis on unveiling the nuanced layers of experience and action by disclosing the contexts in which experiences are interpreted and assigned meaning. Although certain conceptual frameworks are academically significant in revealing the meaning of experience and action, caution must be exercised to prevent them from resulting in oversimplified schematizations and binary distinctions. In this regard, North Korean studies have also made efforts to move beyond binary perspectives by adopting concepts such as 'everyday life,' 'subculture,' and 'practice.' This was part of a broader initiative to transcend the constraints of analyzing North Korean society purely through the lens of structure and power. This approach seeks to give meaning to the experiences of the inhabitants, emphasize their agency in deciphering the significance of the actions of subjugated groups, and reveal the multilayered nature of the inhabitants' agency. These efforts are contributing to the diversification of topics in North Korean studies and enhancing its explanatory power about North Korean society. Moreover, it offers a perspective that allows a closer examination of the internal dynamics of North Korea, rather than merely objectifying it.

<sup>3</sup> Judith Butler, *Gender Trouble*, Paju: Munhakdongne Publishing Group, 2008.

<sup>4</sup> Cho Hyun-jun, *Gender is a Parody*, Seoul: Hyeonamsa, 2014, p. 11.

○ One of the most salient accomplishments of integrating women's studies and North Korean studies is evident in the field of research methodologies. If research methodologies are deeply intertwined with epistemology, adopting a particular research method also signifies the contemplation of the epistemology that underlies the method - in other words, it deals with the stance on objectivit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earcher and the subject of research. In this sense, the introduction of diverse research methods in North Korean studies contributes to the broadening of cognitive horizons. A prime example of this is the introduction of qualitative research. Although qualitative research isn't exclusive to women's studies, it is a critical research method within the women's studies approach that enables the engagement with many of the epistemolog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put forth by women's studies. It has not been long since qualitative research was introduced into North Korean studies. Interview material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had been utilized as a source of research even before qualitative research made its debut in North Korean studies.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began to be conducted in the mid-1990s, as the number of defectors surged, sparking interest in the conditions within North Korean society. Early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tended to be used as a source for understanding the events happening within North Korean society. The primary purpose of these interviews was to identify facts and phenomena not revealed in the publicly available and accessible materials. As these initial approaches were being explored, the scope of interest in North Korean society was expanding, and research methodologies began to be reconsidered. The topics of North Korean studies have diversified, and research methods have also begun to diversify as researchers from various academic backgrounds joined the field, which had previously been dominated by political scientists and economists. Qualitative research began to expand, focusing primarily on the daily lives and experiences of North Koreans and studies of North Korean women. Efforts to focus on the lives of previously invisible North Koreans and North Korean women have led to an expansion of existing North Korea research methods, which have traditionally focused on power structures. In particular, the recognition of the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 methodologies in understanding the dynamics of North Korean society has led to the earnest development of qualitative research on North Korean defectors. Through research methodologies such as in-depth interviews and oral histories, researchers began to engage with the experiences of North Korean women and other North Koreans, enabling them to uncover the multi-faceted layers of North Korean society. Interview data in North Korean studies has typically been utilized as a supplement to existing literature, given the scarcity of information on North Korea and the practical limitations of conducting field research. This was also born out of an interest in understanding the lived experience of North Koreans. The active use of interviews began to permeate research focused on the lives of North Koreans that are unrepresented in official literature—lives that are distorted or obscured by this literature. Interviews are also employed to pinpoint the gap between actual state policies and official discourse, and the experiences of North Koreans, as well as to unveil processes of official discourse and identity formation. These studies, which aim to analyze and depict the lives of North Koreans by honing in on their specific experiences, hold significant value as records of 'experiences'. However, in North Korean studies, data obtained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must undergo a process of validation to derive meaning, instead of being regarded as inherently meaningful. In other words, the objectivity and reliability of the gathered data are frequently called into question. This is related to the concerns about the issue of representativeness - whether North Korean defectors can truly represent North Koreans - and the positional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South Korean researchers. These bring back to the previously

discussed matters of objectivity and the researcher's positionality, which become apparent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research methods and carrying out the research. The question of representativeness arises regarding how much the life of 'one individual' can reveal about the culture of a society, how one individual's experience can represent the entire social experience.<sup>5</sup> It raises the issue of whether North Korean defectors can represent North Koreans, and whether the North Korean defectors participating in the study are 'representative' of the 'typical' North Korean.<sup>6</sup> Ideological issues, stemming from the division of Korea, are inevitably entangled in these questions. Furthermore, the positionality of the researcher is intimately connected to the question of interpretation, which raises the issue of the researcher's accuracy in interpreting the data. Given that the researcher's role involves identifying and organizing pertinent facts from the acquired data, or elucidating and presenting the connections and mechanisms of these facts, they inevitably grapple with the challenge of establishing 'substantive facts' and generating 'objective knowledge' about North Korean society.<sup>7</sup> To effectively address these concerns, many researchers in North Korean studies suggest increasing the number of interviewers and materials, cross-validating data, and narrowing the scope of research topics. However, this approach overlooks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qualitative research, including objectivity, trustworthiness, and the researcher-subject relationship. In this regard, the growing number of researchers conducting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as part of their qualitative research, rather than merely as a data collection method, is playing a critical role in challenging the limitations of conventional North Korean research and shifting the existing paradigm of North Korean studies. Particularly, studies on North Korean women, being conducted based on these qualitative principles, are leading to different outcomes compared to traditional research on North Korean women. While previous research on North Korean women tended to focus on the specificity of 'North Korea', recent research on women in North Korea often considers both the universality and specificity of 'women'. This means that researchers consider the shared experiences of the collective category of 'women', while also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fic context of North Korea. This approach should also be applied in the broader study of North Korean society. An overemphasis on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society not only weakens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study, but also can result in the otherization of North Koreans and North Korea. Therefore, adopting a research method involves not just using the method, but also considering the political nature and context from which the method emerged. This approach will likely pave the way for advancements in North Korean studies.

### **3. Remaining Challenges**

- Women's studies and feminism have been pursued with the purpose of promoting social change, and in this process, they have critiqued mainstream disciplines and sought to shift paradigms. More specifically, they have introduced a variety of perspectives for studying

<sup>5</sup> Yoo Chul-in (1998)

<sup>6</sup> Choi Bong-dae (2003)

<sup>7</sup> Choi Bong-dae (2003)



subjects, which has not only diversified research topics, but also uncovered the complex and multilayered aspects of the subjects under study.

- Similarly, North Korean studies has made significant academic advancements and has strived to shift the paradigm within the field. As research methods have diversified and perspectives on the country have broadened, North Korean studies have seen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developments.

- Nevertheless, despite significant progress, there are still structural limitations to the study of North Korea. The division of Korea and the resulting inaccessibility often hinder the diversification of topics and methodologies. To overcome this, the continuation and expansion of various innovative approaches is required. This is where it might be crucial to consider how to integrate achievements and approaches from women's studies - which has striven to listen to and tried to explain the voic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women - as well as feminist orientations, into North Korean studies. Consistent reflection on whose voices are being highlighted, how these voices are being heard, and the positioning of those who are listening and representing these voices can bolster the objectivity of research. Analogous to women's studies, which has been committed to uncovering and conceptualizing issues in order to effect tangible change, North Korean studies could derive substantial benefits from a similar approach. This implies actively engaging in ensuring that researchers intervene to illuminate and explain areas that have been previously unnoticed or disregarded, as well as the conceptualization of phenomena observed in North Korea. This will enhance our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society. To achieve this, diversifying the subjects of North Korean studies is essential. This can be realized not only by applying perspectives from feminism and women's studies, but also by introducing research topics identified by women's studies into North Korean research. Proactive efforts to disclose problems by conceptualizing phenomena related to women and society in the context of North Korean studies can significantly broaden the spectrum of North Korean social studies.



**Feminism and North Korea**

# **Session I.**

**Discussion 01**

## **The Significance and Challenges of Feminism and North Korean Studies**

---

**Suzy Kim**  
Rutgers University



**Feminism with Focus on Changes in North Korean Society**



**Session1**  
**[Discussion]**

**The Significance and Challenges of Feminism and North Korean Studies**

**Suzy Kim (Rutgers University)**

Thank you for the invitation to participate in this international conference to comment on Dr. Cho Young-joo's paper. I have long admired her scholarship and am honored to serve as one of her discussants. In my reading, her paper draws upon her more extended discussion about the significance of gender research in North Korean studies published as the opening chapter of a 2021 edited volume produced by the Ewha Womans University North Korea Research Team.<sup>1</sup> While my comments focus on her remarks delivered here, her published work and the edited volume provide detailed context with great examples of the kind of application of gender studies to North Korea research advocated by Dr. Cho, and I would highly recommend the book as an important resource.

In that sense, I must say that Dr. Cho's paper title does not do full justice to the scope of her ambitious agenda. Her paper is a kind of manifesto that emerges out of her scholarship, applying the critical methodology of women's and gender studies to North Korea research to show both the potential as well as the limits of North Korean studies as a discipline. I am of course sympathetic with this move and there is much in Dr. Cho's arguments with which I agree. For example, she rightly points out that one of the ways in which women's studies and North Korean studies converge is through the methodological issues that arise as a result of 'women' and 'North Korea' being perceived as Other. Indeed, as a direct outcome of the women's movement, women's studies challenged the veneer of "objectivity" in conventional academic disciplines, underscoring the underlying impact of the researcher's "subjectivity" and "positionality." Dr. Cho's opening remarks differentiating North Korean studies from women's studies by suggesting that North Korean studies "does not necessarily require a fixed perspective" (such as gender equality) therefore seems to contradict her larger argument. North Korean studies also emerged out of a specific political context and is sustained by political agendas, whether by deliberate design or inadvertent structural conditions.

Recent assessments have certainly celebrated "progress" made in North Korean studies through interdisciplinary methods at the core of area studies that range from anthropology and political science to literature and history.<sup>2</sup> Sobering, however, is to look back at the inaugural president of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Professor B.C. Koh's state of the field review more than twenty years ago, possibly the first of its kind among Anglophone publications

<sup>1</sup> 조영주, "북한 사회에서 젠더 연구의 의미," <북한여성, 변화를 이끈다> 이화여대 북한연구회 엮음 (서울: 선인, 2021)

<sup>2</sup> For example, see special issue "Reconsidering North Korea: Methods, Frameworks, and Sources," *Journal of Korean Studies* 26, no. 2 (2021).

specifically on “North Korean studies.”<sup>3</sup> Koh lamented, “While it cannot be denied that the current academic literature on North Korea is rapidly growing, current studies in the field can still be defined by a number of weaknesses.” He went on to point out six specific flaws:

- (1) the paucity of theoretical and comparative studies,
- (2) the overall lack of methodological rigor,
- (3) the constraints on data,
- (4) the shortage of specialists,
- (5) the political constraints and ideological bias, and
- (6) the generally noncumulative nature of the literature.

Unfortunately, these continue to be problems twenty-five years on. The problem pertains to Cold War area studies more generally, originating during World War II to decipher the “enemy.” Ruth Benedict’s wartime research under the US Office of War Information (precursor to the CIA) is the quintessential example, published in 1946 under the title,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Patterns of Japanese Culture*. Contemporaneously, the founding of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in 1941, originally as publisher of the *Far Eastern Quarterly* (now *Journal of Asian Studies*), signale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sian studies in the US. The Cold War accelerated and entrenched the geopolitics of area studies, and the so-called post-Cold War era only shifted, rather than make obsolete, the collusion of scholarship with intelligence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sup>4</sup>

Challenging the nexus of the academy, funding agencies, and state intelligence, especially in response to the US war in Vietnam, self-critical scholars of Asia in the US exposed area studies as yet another iteration of (neo)colonial practices.<sup>5</sup> Its heyday of ample funding became obvious when the money dried up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and area studies departments throughout the academy began to see drawbacks, of being ghettoized and segregated, unable to engage broadly with established disciplinary fields. To be fair, this was not always by conscious choice and was often the result of the conjoining forces of orientalism and anticommunism especially in the case of Asian studies, but institutional structures already in place were difficult to undo. Even without these limitations, the “crisis of the humanities” and neoliberal globalization have rendered many area studies programs archaic, making the emergence of North Korean studies all the more anachronistic.<sup>6</sup> But then again, language and cultural fluency have always been an integral part of both scholarship and intelligence gathering, and these are the skills trained in area studies

<sup>3</sup> B. C. Koh, “The State of North Korean Studies: A Critical Appraisal,” *Korean Studies* 22 (1998): 1-14. (고병철 교수, 북한대학원대학교 신임 총장)

<sup>4</sup> See special issue, “Asia, Asian Studies, and the National Security State: A Symposium,” *Bulletin of Concerned Asian Scholars* 29, no. 1 (1997).

<sup>5</sup> See for example the founding statement of the Committee of Concerned Asian Scholars (1969-1979), which begins as follows: “We first came together in opposition to the brutal aggression of the United States in Vietnam and to the complicity or silence of our profession with regard to that policy. Those in the field of Asian studies bear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their research and the political posture of their profession. We are concerned about the present unwillingness of specialists to speak out against the implications of an Asian policy committed to ensuring American domination of much of Asia. We reject the legitimacy of this aim, and attempt to change this policy.” See <https://criticalasianstudies.org/about>

<sup>6</sup> For Cold War origins of the field in the US-ROK nexus, see Kim Seong-bo 김성보, “미국·한국의 냉전 지식 연결망과 북한 연구의 학술장 진입 [The Network of Cold War Knowledge between US and Korea and Advance of North Korean Studies into the Academic Field]” *사이간* SAI 22 (2017): 9-36.

programs, often supported by government funding. In the US currently, these include the US Department of Education's Title VI programs and the US Department of State's Critical Language programs, "designed to promote rapid language gains and essential intercultural fluency in regions that are critical to U.S.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prosperity."<sup>7</sup> The "critical languages" today include Arabic, Azerbaijani, Bangla, Chinese, Hindi, Indonesian, Japanese, Korean, Persian, Portuguese, Russian, Swahili, Turkish, and Urdu. Half of the fourteen critical languages are located in what is conventionally known as part of "Asia"; if Central Asia and the Middle East are added as they are in some Asian studies programs, then one can begin to see the kind of re-regionalization that happens through geopolitics and why North Korean studies is booming despite the decline in area studies.<sup>8</sup>

North Korean studies became an institutionalized subfield of Korean studies in the last three decades despite the emergence of transnational and global histories to get beyond the national, state-centered focus, especially dominant in studies of North Korea.<sup>9</sup> Historian Kim Seong-bo therefore calls for North Korea research within a critical Korean studies, asking "If we are to move beyond seeing the Korean peninsula, either through an ethnic approach as the home of the Korean people or through the division system approach as the space of two divided countries, to perceive it as an open space with multiplicity and historical complexity, what would that specific content be?"<sup>10</sup> The question is apt because the problem with "North Korean studies" becomes obvious when contrasted with "South Korean studies," or lack thereof. Yet Korean studies as a field rarely makes plain South Korean hegemony over all references to Korea, denoting Korean language as *Hanguk mal* and Korean people as *Hanguk saram*, completely invisibilizing the North and negating its very existence. Much like the Cold War imperatives shaping Asian studies as a field, South Korean funding and nationals have determined Korean studies and language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This distills the North always *through* the South as *Pukhan*, literally meaning "north of South Korea," or "Northern South Korea." In fact, North Korean studies as *Pukhanhak* emerged in the post-Cold War era as a "problem" to be solved with the founding of various institutes, think tanks, and their respective publications, starting most obviously in South Korea but also prevalent throughout North America and Europe. This practice is inscribed institutionally in all of the Korean studies centers in Euro-America, using the label *Hangukhak yeonguso*, literally meaning "South Korean studies research center" that surreptitiously includes the North as part of the South, reproducing South Korean discourse. One of the earliest institutionalizations began with the founding of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as a department at Kyungnam University in 1989, elevated to a graduate school in 1998. It is a prime example of the way geopolitics embeds within the academy. In agreement with Dr.

<sup>7</sup> See <https://clscholarship.org/>

<sup>8</sup> For extended discussions on this, see special journal issues, Yan Hairong and Daniel Vukovich, eds., "What's Left of Asia," *positions: asia critique* 15, no. 2 (2007) and Gavin Walker and Naoki Sakai, eds., "The End of Area," *positions: asia critique* 27, no. 1 (2019).

<sup>9</sup> Suzy Kim, "North Korean Studies in North America: A Critical Overview of Recent Trends," *Yŏksa wa hyŏnsil* <역사와현실> [Quarterly Review of Korean History] 93 (2014): 529-550.

<sup>10</sup> Kim Seong-bo 김성보, "비판적 한반도학의 시각으로 본 북조선 연구 - 탈분단시대 지역학의 탐색 [Critical studies on the Korean Peninsula as Regional Studies of the Post Division Era and North Korea Research]," *Tongbang hakji* <동방학지> [Journal of Korean Studies] 190 (2020): 1-24. "한반도를 한민족의 터전으로 보는 민족적 접근이나 두 분단국가의 공간으로 보는 분단체제론적 접근을 뛰어넘어 다중적 공간과 복합적인 역사의 열린 장소로 포착한다고 할 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10).

Cho's point that self-critique of established disciplines and methods is important, I would ask, is North Korean studies necessary at all? Why not call for the dissolution of "North Korean studies" as we know it? Below I provide one example of why it may be more productive to approach North Korea through disciplinary methods rather than through area studies.

Scholars often attribute the North Korean emphasis on motherhood to Confucianism and/or patriarchy, but as Dr. Cho rightly points out, these are overly broad concepts that lack explanatory power since they can be applied to East Asia in general while rendering women as mere victims without any agency. Rather than applying existing binary paradigms such as agency vs. structure, freedom vs. oppression, resistance vs. submission, Dr. Cho therefore calls on us to pay attention to political contexts that take account of *both* the universalities (generalities) and the particularities (specificities) of North Korea. Rather than Confucianism or patriarchy then, Dr. Cho explains North Korean emphasis on motherhood in functionalist terms as a mechanism of state mobilization and governmentality. Without negating such statist functions however, if we pay attention to the general ways in which motherhood is a recurring theme in political discourse, we can see the extent to which this has been a common strategy, not only in state governance in general, but also as a specific strategy deployed by the international women's movement during the Cold War. As I explain in detail elsewhere, North Korea's National Mothers Congress in 1961 (which is often heralded as the starting point and primary example of North Korea's emphasis on motherhood) was held *after* North Korean women attended the World Congress of Mothers hosted by the Women's International Democratic Federation in 1955, and the mobilization of mothers to stand against the Korean War was a major part of the first mass peace movement during the Cold War.<sup>11</sup> In short, North Korean appeals to motherhood is not unique at all and is part of global history. What is unique about North Korea is that such appeals to motherhood and the attendant burden of sacrifice was not limited to women, but became an ideal for all citizens to emulate, including men. These conclusions are based on my own archival research on the history of the international women's movement in which North Korean women were an integral part. As Dr. Cho rightly notes however, qualitative research is lacking when it comes to North Korean studies. One of the reasons for this deficiency is the lack of transnational and international research on North Korea, which is too often limited to a nationalist frame, often reinforced by North Korea's own solipsism. Given the limitations on conducting field research, North Korea may paradoxically provide an ideal test case to transnationalize area studies toward its own dissolution in favor of (inter)disciplinary methods such as women's and gender studies.

<sup>11</sup> Suzy Kim, *Among Women across Worlds: North Korea in the Global Cold War*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23)



**Feminism and North Korea**

## **Session I.**

**Discussion 02**

# **The Significance and Challenges of Feminism and North Korean studies**

---

**Hyun In-ae**  
Ewha Womans University



**Feminism with Focus on Changes in North Korean Society**



## **Session 1**

### **[Discussion]**

#### **The Significance and Challenges of Feminism and North Korean studies**

**Hyun In-ae (Ewha Womans University)**

The presentation offered a valuable opportunity to examine the intersection of feminism and North Korean studies. It helped us to summarize what feminism has accomplished within North Korean studies, what challenges arise when applying feminist perspectives to these studies, and what issues we need to confront in the future, thereby aiding the direction of our future path forward.

As highlighted by the presenter, discussions around women's studies were introduced rather late into North Korean studies. Multiple factors have contributed to this, but the primary one, in my opinion, is the character of the North Korean system where politics permeates every sector. North Korea's system is rooted in a rigid patriarchal structure, and this political system is so dominant that it virtually eliminates any space for women to engage in autonomous activities. This is why a North Korean researcher's initial focus would need to be on the political system.

Women's studies is a relatively unfamiliar discipline for North Korean researchers, particularly for those who are defector researchers who have spent most of their lives in North Korea. When I started my research in South Korea, I perceived women's studies as a field distinctly separate from North Korean studies. At that time, I believed that addressing gender relationship issues could wait until after the problems of the North Korean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had been addressed. It seemed more logical to tackle women's issues once men and women had cooperatively worked to transform the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in North Korea. I believe this is also a common perspective among many North Korean women who are unfamiliar with women's studies.

The limited number of women among early North Korean researchers could also be a factor contributing to the scarcity of interest in women's studies. As women's studies evolved into gender studies, the involvement of male researchers in the field grew, but it

still remains largely spearheaded by women. Fortunately, the number of female researchers on North Korea has recently increased, and there is an expanding body of literature on the subject of North Korean women. While the absolute number of papers is not significant, owing to the limited direct access to North Korea and scarcity of data, their relative proportion is steadily growing. Compared to 1990, when North Korean research began in earnest, the number of papers on women is now more than 10 times greater, surpassing the nine-fold increase in the number of papers on women in general.

#### Changes in the Percentage of Research Papers Focused on Women in North Korean Studies

The presentation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objectivity and preventing ideological influences in North Korean research. In the past, South Korea's perception of North Korea has been marred by starkly biased evaluations, depicting North Korea as either an idealized socialist utopia or demonizing it from an anti-communist viewpoint. However, women's studies appears to be instrumental in tackling these issues.

Research on North Korean women concentrates on aspects of everyday life such as the market, family, fashion, sexuality, and health. This growing body of research is gradually transforming the perception of North Korea, moving away from ideological attitudes and towards recognizing it as a society inhabited by humanity. In that regard, I believe feminism plays a crucial role in North Korean studies.

The presentation also addressed the concepts of 'othering', 'otherness', and 'subjectivity'. These are areas, as a North Korean female defector researcher myself, I am forced to grapple with. When we emphasize the significance of women's actions themselves, rather than seeing women's subjectivity as something fixed but shaped through actions, and when we attempt to reveal women in their complexity instead of as essentialized or monolithic entities, then it can be seen that North Korean women share both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with women in general. Yet, I question whether we are unwittingly applying an overly Western lens to the traits of North Korean women that we are attempting to illuminate. I wonder if we are guilty of repeating the same bias that prevailed when the women's movement predominantly focused on upper-class women? This level of self-examination is, I believe, crucial in research.

The position of a female researcher who is also a North Korean defector is complex. These researchers exist in a complex socio-economic space, straddling the lin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occupying an upper-middle-class niche, rather than one of the lower classes. My personal experience of North Korea serves both as a strength and a limitation. I am of the view that the lack of progress in women's issues in North Korea, despite the nation's early proclamation of women's liberation following its independence in 1945, can be attributed to women not being at the forefront of challenging these issues. Only when women acknowledge these issues and take the reins into their own hands can women's problems be truly addressed.

In my opinion, North Korean defector female researchers need to delve deeper into women's studies in order to enhance the development of female-centric topics within North Korean studies and to reveal and resolve North Korean issues from the feminist perspective.



Markets and Women

## **Session II.**

**Presentation**

# **A Study of the Informal Networks of North Korean Women Participating in the Marketplace**

---

**Cho Hyun-jung**

President of the EUM Research Institute



**Feminism with Focus on Changes in North Korean Society**





## **Session II**

### **[Presentation]**

# **A Study of the Informal Networks of North Korean Women Participating in the Marketplace<sup>1</sup>**

**Cho Hyun-jung (President of the EUM Research Institute)**

## **1. Introduction**

This study identifies North Korean women as the key agents of social change, highlighting their crucial involvement in marketplace activities within the country. This study predominantly delves into the informal and often unstructured networks that function at the grassroots level of North Korean society, placing special emphasis on the roles played by these women. By closely examining these dynamic, informal networks and thei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particularly those centered on women, we aim to illuminate the transformations ongoing within North Korean society. Simultaneously, this in-depth exploration makes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broader study of women in North Korea. As such, it addresses several research questions: What characteristics define social networks centered on women in North Korea? What are the key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these networks? How do these networks affect the lives of North Korean women? Through the lens of interviews with female defectors from North Korea, this study explores various facets of the creation and functioning of their informal social networks.

## **2. Evolution of North Korea's Formal and Informal Social Networks**

Existing research on North Korean social networks has provided valuable insights by revealing various evolving relationships within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pheres. However, these studies often fall short of articulating the proactive role of women. In the contemporary context, women are progressively taking on active roles as intermediaries in the maintenance and utilization of North Korean public and private social networks. This is particularly noticeable in their involvement in 'family networks,' 'market networks,' and 'Inminban (neighborhood units) and neighborhood networks' – all of which are the pivotal terms identified in past studies on North Korean social networks. Consequently, this study focuses specifically on the women's roles as intermediaries within private social networks and examines their informal social networks in detail. By doing so, this study distinguishes itself from prior research on North Korean social networks, giving precedence to the exploration of informal social networks among North Korean women - who, despite being central actors within these networks, have often been overlooked by previous studies.

<sup>1</sup> In this presentation, due to space constraints, certain elements such as research methodologies, footnotes, references, and specific research content have been omitted. To offer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study, the discussant is requested to attach the original paper, which provides a more detailed and complete presentation of the research with all the pertinent details.

### **3. The Types of Informal Social Networks Among North Korean Women**

#### **3.1. Family and Friends Networks**

##### **a. Family and Relatives**

Preserving robust familial ties has always been a tradition within North Korean society, but recent economic crises have underscored the crucial role these connections play in sustaining livelihoods. Interviews with women indicate that as their involvement in the marketplace expands, family members often become their primary confidants, with whom they exchange valuable information that can lead to successful business ventures. Notably, women are increasingly likely to carry out business within the family unit, collaborating with siblings and other relatives. This tendency is motivated by distrust of the state and the fear of potential “back stabbing” if they were to engage in commerce with outsiders.

It's worth noting that the capacity to uphold close familial bonds and the frequency of gatherings often correlates with the family's economic position. Alongside the exchange of "business information," dialogues among relatives who meet regularly naturally include "news about South Korea." Those with family members or relatives who have already defected to South Korea can potentially receive financial support or gather information about the defection process. News about other countries (such as China, the US, Canada, and the UK) are also shared, and encouragement to defect may be provided by family members who have already done so. The active consolidation and reinforcement of familial bonds, centered on the family unit, primarily serves to help achieve a certain economic status. Simultaneously, it helps sustain communal relationships through the intermittent provision of aid to relatives in need. Those who grapple with financial hardship often encounter difficulties in "maintaining relationships" with their family and relatives. "Sibling conflicts" are frequent occurrences, and the restoration of such relationships can prove to be a challenging endeavor. Regardless, this intimate and secretive network of kinship serves as a sanctuary where individuals can express their societal grievances, engage in political discussions, and confide in one another.

##### **b. Relationships with Schoolmates and Other Friends**

Schoolmates often engage in diverse occupations, spanning various sectors and including entrepreneurship. Some of these friends may be involved in trading activities, facilitating the exchange of "profitable information". Particularly, many women residing in border areas such as Yanggang and North Hamgyong Provinces participate in 'smuggling' activities. They share information about “profitable” smuggling opportunities and provide mutual assistance to their schoolmates, which can lead to commercial partnerships.

North Korean women establish close friendships not only within school environments but also in their local neighborhoods and markets. These social interactions are facilitated by their involvement in organizations such as the Inminban and the Socialist Women's Union of Korea (SWUK), as well as the Jangmadang. These friendships often develop among individuals of a similar “age” and “economic status”. Friendships cultivated within their immediate neighborhood are characterized by intimate relationships, fostering the sharing of common life experiences, including marriage, childbirth, child-rearing, education, marital conflicts, issues with in-laws, and business information. The close geographical proximity of neighbors encourages frequent dialogues about domestic affairs and personal lives, often leading to a

significant overlap in leisure time. Within these trusted friendships, topics for discussion range from family and marital issues to complaints about the Inminban and the SWUK, and even extend to political grievances against the regime. There is also the opportunity for an exchange of business information. This intimate network also provides a platform for sharing news about South Korea or China.

### **3.2. Economic Networks**

#### **a. Relationships Between Marketplace Stallholders and Traders**

The North Korean marketplace is a dynamic, intensely competitive environment where women fight for their survival. The relationships they establish with neighboring stallholders, who they interact with daily, are characterized by keen competition in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ways. As it's often said, "the marketplace is the source for the exchange of all information," women operating marketplace stalls therefore have the opportunity to rapidly seize profitable business opportunities. They are acknowledged for their economic competencies, particularly when compared to women involved in street vending. Those who source goods from traders primarily focus on wholesale transactions, highlighting the significance of sustaining robust relationships with traders to ensure a steady income flow. Recently, with the increased availability of landlines and cell phones, their use has become vital in forming "trusted" networks within marketplace activities. Establishing trust through "horizontal networks," sharing market information with traders both inside and outside North Korea, and exchanging goods, is proving effective in broadening their networks with traders.

#### **b. "Diplomatic"<sup>2</sup> Relationships for Business Purposes**

In North Korean society, the informal economic activities in which women engage are often illegal. This makes maintaining their endeavors challenging without the support of "people who have their backs," given the absence of any legal or institutional backing for these private economic activities. When involved in smuggling activities with Chinese traders at the border, they are constantly exposed to risks that threaten their personal safety and the potential confiscation of their goods. Therefore, resourcefulness in maintaining relationships with influential individuals such as border soldiers, police officers, security personnel, and party officials becomes crucial. These relationships function as a form of "diplomacy" to ensure the smooth operation of their businesses, acting as a protective barrier against potential risks. Women in North Korea, actively involved in the informal economy, strive to maintain these "vertical" networks to safeguard their economic activities.

### **3.3. Community Networks**

#### **a. Relationships Among "Parents of Student Executives" in Schools**

In North Korea, it has become customary for parents to collectively present gifts to the principal teacher on special occasions, for example the teacher's wedding. They also offer "expensive gifts" such as electronics and laptops upon their children's graduation. This practice

<sup>2</sup> In this context, 'diplomacy' refers to the ability to be resourceful and skillful in dealing with others.

is typically organized by the parents of student executives. Consequently, when teachers select executive members for their classes, the power and wealth of the candidates' parents are primary considerations. Parents, whose children secure such positions, naturally assume an active role within the school community. Wealthy parents of student executives often maintain close contact with the teacher and other parents until their children graduate. They share crucial educational information such as private tutoring opportunities, career prospects, and university choices. However, these relationships tend to dissipate once the child has completed their schooling.

#### **b. Relationships Based on 'Interests' within the Inminban**

In the Inminban system, characterized by strict surveillance, the so-called "affluent families" have cultivated a distinctive network amongst themselves. These families often resort to offering money as a way to evade tasks assigned by the Inminban leader. By discreetly offering additional funds to their leader, they manage to secure exemptions from mandatory obligations. These include participating in early morning mobilizations, providing various materials like scrap metal, plastic, bottles, paper, and construction supplies, and taking part in labor mobilizations that involve tasks such as road repairs, greening, park maintenance, or house construction. Occasionally, Inminban leaders proactively share valuable information, such as the schedule of forthcoming home inspections, with households known to offer bribes or those expected to provide monetary incentives. This intricate dynamic has led to a cooperative relationship, fostered by informal exchanges, that has emerged between the wealthier families and Inminban leaders, despite the overarching state control over unlawful activities. Whil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minban leader and the members is marked by these exchanges, interactions among the "affluent families" are characterized by a deeper level of intimacy in terms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The women from these well-to-do families are perceived as "influential figures", often taking a central role in the formation of these relationships within their circles.

#### **c. "Interests" within the Organizations of the Socialist Women's Union of Korea**

Within the SWUK, those with capital amassed through market activities can pay off local-level SWUK officials, like chairpersons, to secure exemptions from certain obligations. These duties might include material support, participation in traditional holiday events, and engagement in self and group critique sessions. The degree of exemption correlates with the size of the bribe, with some members potentially bypassing self and group criticism sessions for an entire year. Members affluent enough to make these payments enjoy an unspoken protection, despite their less active participation in community tasks. Conversely, members unable to afford these payments are bound to partake in various mobilization activities and self and group criticism sessions. This disparity has resulted in an increasing number of members seeking duty exemption through payments. Their financial capability not only allows them a comparatively smoother journey within the organization, but also provides opportunities to build stronger relationships and networks with other "like-minded" members, adorning themselves and partaking in leisure activities and cultural pursuits.

## **4.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Women's Informal Social Networks**

### **4.1. Differentiation through 'Conspicuous Consumption'**

In the aftermath of the economic crisis, North Korean women have instinctively gained an understanding of capital via their participation in informal economic activities aimed at their survival. The capital accumulated through these activities is directed towards 'conspicuous consumption' on a personal level, encompassing efforts such as self-grooming, home decoration, and the purchase of household appliances. Furthermore, this capital is instrumental in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informal social networks at a broader societal level. Essentially, North Korean women with a degree of economic power can leverage their wealth to broaden their informal social networks, thereby perpetuating a 'rich-get-richer' dynamic that further facilitates the accumulation of wealth. The capital accumulated through illicit means, bribes, or connections in the informal economic activities of North Korean women has become a new criterion for class differentiation. It determines the scope and style of their consumption, leading to income disparity and the emergence of class divisions. These economic disparities significantly influence individuals' day-to-day experiences. As a result, North Korean women are likely to encounter marked differences in how they navigate and perceive their everyday lives, which in turn then progressively molds social and cultural structures. The informal social networks cultivated by economically affluent North Korean women have given rise to an "exclusive" culture. This fosters growing differentiation in daily activities within social and cultural spheres, a trend that often triggers "dissatisfaction among the less fortunate".

### **4.2. Struggle to Expand 'Social Resources'**

North Korean women exercise their agency through engaging in informal social networks with a particular objective: the expansion of their social resources. Firstly, they understand these networks are a means of widening their social connections and resources. Various social networks they participate in, such as friendships, economic activities, and community activities, are not isolated phenomena. Instead, they are intricately and often secretly interconnected, and influence each other. Secondly, North Korean women leverage these networks to voice their grievances and share the daily mental distress they endure, especially within the private spheres of closer relationships. This acts as a common form of resistance, as the rigid control exerted by the state often escalates mental strain and material losses for women involved in informal economic activities. To manage the stress accompanying their pursuit of more "money," they frequently turn to leisure and entertainment, indulging in good food, quality alcohol, dance, and secretly enjoying foreign music and films. Lastly, North Korean women who have gained economic power through market activities expand their social networks further by integrating formal network "power structures" into their informal ones, using their financial resources as leverage. Representatives of formal institutions, including the Ministry of State Security, the Ministry of Social Security, schools, the Inminban, and the SWUK, are utilized by North Korean women as elements of their informal social networks, facilitated by "money." Formal networks, traditionally responsible for maintaining and governing North Korean society, are slowly deteriorating, and the resulting voids are being filled by the informal social networks established by North Korean women.

## 5. Conclusion

In conclusion, the investigation of North Korean women's informal social networks unveils several significant insights. Firstly, this study reinforces a paradigm that perceives North Korean women involved in market activities as active players in the informal economy. They cultivate private relationships and informal networks at the grassroots level, operating discreetly within and beyond the state's control. These networks serve as vital social resources for women, equipping them to navigate through challenging crises. They spawn unique communities that form organically, undergoing occasional irregular mergers or separations. Over time, these communities experience strengthened trust and the emergence of shared norms. Secondly, this research adds to the study of the informal social networks that North Korean women carve out for themselves. The intricate interconnections within these networks make classification a challenging task. However, by focusing on and meticulously examining the priorities within these informal networks, a more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daily relationships of middle-class and affluent North Korean women could be attained. Predicting whether their enhanced economic capabilities, acquired through informal social networks, will precipitate significant political or structural changes in North Korea is difficult, it is more likely that the impact will be seen in socio-cultural domains, such as family dynamics and gender norms.

Markets and Women

## Session II.

Discussion 01

# A Study of the Informal Networks of North Korean Women Participating in the Marketplace

---

Park Hee-jin

Institute for the North Korean Studies, Dongguk University



Feminism with Focus on Changes in North Korean Society





## Session II

### [Discussion]

#### **A Study of the Informal Networks of North Korean Women Participating in the Marketplace**

**Park Hee-jin ( Institute for the North Korean Studies, Dongguk University)**

- Commencing in the 1990s the emergence of markets and the working of marketization mechanisms in North Korea have triggered profound shifts in the status and roles of North Korean women. This shift is primarily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the sectors of formal economic activity—such as light industry, local industry, commerce, convenience and services, and education—where these women were predominantly employed, bore the brunt of the economic changes. Furthermore, it was in these very sectors where transitions to the market system were often quickest and simplest. Consequently, North Korean women have been extensively studied as pivotal economic actors and as crucial catalysts for societal change in the post-marketization era. This study is framed within the same context. However, by concentrating on 'social networks', I believe that it offers insightful perspectives and ushers in a novel approach for discussion.
- Despite the study's implications, I find myself questioning whether the presenter's examination of the informal social networks of North Korean women engaged in the marketplace truly reaches their fundamental essence. It strikes me that a more direct, probing, and core explo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North Korean women's studies is warranted.
- The research could be positioned within the matrix offered below. It is not a matter of formal and informal social networks existing independently of each other; rather, what is significant is the location of the forces driving these formal and informal relationships. Furthermore, the study examined the triad of 'market activities, women and informal social relations' exclusively in the context of private interest pursued within the broader framework of economic activities. It omits the informality that arises from gender disparities and gender inequality, an area that I believe necessitated a more profound analysis. In the researcher's experience, informal social networks of North Korean women involved in business are considerably more concentrated, more corrupt, enforce mobility, and operate within a realm that bestrides deviance and criminality, extending beyond normal moral boundaries. I question whether the assertion that the departure from patriarchal femininity implicit in 'market activity', and the transition towards economic agency, represents a smooth journey. Could this be a suppression or contradiction of reality? I am eager to hear the author's response to this suggestion.

	Official Social Networks	Informal Social Networks
Women participating in the market place	Laws, institutions, norms and rules	Consanguinity/social relationships, acquaintances/relationships based on school, community or intere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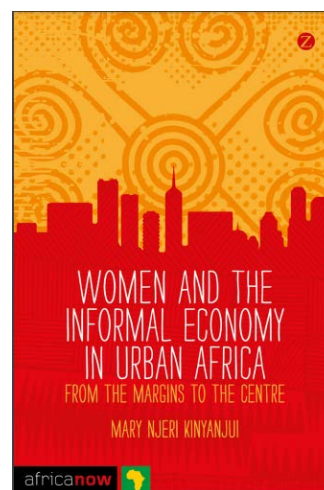
(Business activities)		
Women participating in non market activities (Non business activity, supporting family)		<b>Difference from above</b>

○ In advocating for a more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North Korean women participating in the marketplace, I reference Kinyanjui's 2014 study of women's informal economic activities in urban Nairobi, Kenya, *Women and The Informal Economy in Urban Africa - from the margins to the centre* (London: Zed Books, 2014).

Kinyanjui's study elucidates how African women were previously subordinated at both household and national levels, and confined to areas with restricted flows of capital and goods. However, following the collapse of the economy, these women started participating informally in economic activities. This participation is perceived as a struggle against the material deprivation induced by patriarchal systems and planned policies.

Notably, mobility has enabled them to surmount material deprivation, infusing them with fresh ideas. This mobility has endowed women with independence and new opportunities, facilitating supplemental family income, investment, social support, entrepreneurship, children's education, and home acquisition. These women hail from diverse backgrounds of age, education, marital status, business location, and sources of operational capital. Through mutual aid and support, they have reshaped the city and fostered feminine spaces via individual and collective entrepreneurship.

It interests me whether the informal network among North Korean women engaged in the marketplace could be investigated to understand women's agency stemming from the expansion of mutual support and solidarity among women.



○ Finally, North Korea is presently grappling with the formulation of a state modernization strategy, which seeks to introduce novel forms of entrepreneurship ('civilized state' and 'science and technology'), market trading, accumulation and wealth distribution (the establishment of formal commercial networks) into the country. The business practices and methods espoused by this modernization strategy are increasingly driving business organizations into urban centers, and the country's markets remain a staple of daily economic activity within the context of ordinary life. Can North Korean women's informal social networks (acting as diplomatic relationships) endure even after the disappearance of market dynamics? I would be interested in hearing the researcher's opinion of how changes in these informal social networks can be deduced, in relation to degree of the market dynamics.

Markets and Women

## **Session II.**

**Discussion 02**

# **VIETNAM WOMEN'S UNION IN THE RENOVATION TIME**

**MISSION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VIETNAMESE WOMEN**

---

**Nguyen Thi Thanh Thuy**  
Vietnam Women's Academy



**Feminism with Focus on Changes in North Korean Society**



## **Session II**

### **[Discussion]**

# **VIETNAM WOMEN'S UNION IN THE RENOVATION TIME: MISSION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VIETNAMESE WOMEN**

**Nguyen Thi Thanh Thuy (Vietnam Women's Academy)**

## **1. The central task of the Vietnam Women's Union in the cause of renovation and door opening**

The Vietnam Women's Union (VWU) has a long history of establishment,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since 1930, under the leadership of the Party and President Ho Chi Minh. The VWU has always played a pivotal role in women's work, serving as a reliable bridge between the Party, Government and its officials and members, with a tight organizational system at all four levels, linking all member organizations, with a membership of more than 19 million. In the history of national development, the VWU has successfully organized and implemented emulation movements, campaigns, and activities to support women to improve their capacity and qualifications in all aspects. It has also empowered women in economic development and building of happy family; performed the representative function; cared for and protected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women; and participated in Party building and state management.

In the renovation (Doi Moi) period, the Vietnam Women's Union has the following key tasks:

- Conduct communication and education for women by topic, attaching importance to grasping the situation of its members and women in general, detecting and responding to inadequacies to find measures for solving. Among them, the work of counseling and support in marriage and family and in building of happy family and cultural and ethical values of Vietnamese women in the period of industrialization, modernization, international integration have been promoted.
- Empower women in economic development which is defined as a leveraged activity, playing a key role in the Union's work in the renovation period, a direct driving force to promote the women's movement, focusing on supporting them with models and in cooperative groups, establishing cooperatives, and supporting their entrepreneurship.
- Perform the representative role through providing advice, making proposals, participating in the development, monitoring and social criticism of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women's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and participating in state management.

## **2. Functions, tasks and roles of the Vietnam Women's Union after Doi Moi**

### **FUNCTIONS:**

1. Represent and protect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women, participate in Party building, and State management; and
2. Unite and mobilize women to implement the Party's guidelines and the State's policies and laws; and mobilize social implementation of gender equality.

**TASKS:**

1. Conduct communication and education in politics, ideology, revolutionary ideals, moral qualities, lifestyle; and Party's guidelines, State's policies and laws.
2. Mobilize women from all walks of life to actively implement the Party's guidelines and State's policies and laws, participate in Party and State building, 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defense; advocate and empower women in improving their capacity and qualifications, building happy families, and improving their material and spiritual lives.
3. Provide advice and proposals,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social criticism and monitoring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ty's guidelines and State's policies and laws related to women, families, children and gender equality; protect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women.
4. Build and develop a strong union.
5. Establish solidarity and cooperation with women of other countries, progressive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in the region and the world for equality, development and peace.

**3. Differences in functions and roles of the Vietnam Women's Union before and after Doi Moi:**

	Before “Doi Moi”	After “ Doi Moi”
<b>Funtion</b>	Gathering women to achieve the goal of national liberation, reunification and national defen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epresent and protect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women, participate in Party building, and State management; and</li> <li>-Unite and mobilize women to implement the Party's guidelines and the State's policies and laws; and mobilize social implementation of gender equality.</li> </ul>
<b>Roles:</b>	<p><b>Period 1930-1975:</b> Participated in movements for national liberation and unification in each period</p> <p><b>Period 1975-1986:</b> Participating in household economic development and raising children well, contributing to limiting malnourished children and dropping out of school. Mobilize all classes to participate in the movement of educating women nationwide to join the socialist revolution and build socialis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Join the cause of building socialism</li> <li>- Implement the goal of gender equality and the cause of women's liberation</li> <li>- Mobilize members to participate in movements that bring practical benefits to women: poverty reduction, from the movement of women helping each other in the family economy, working days, crops, breeding animals... to supporting each other. Women develop family economy, rise to get rich righteously</li> </ul>

#### 4. Vietnam Women's Union and activities to improve women's rights and interests

**+ *Implement emulation movements, campaigns, key programs and projects:***

Conducting communication, providing knowledge and skills in the organization of family life, pre-marital education, and raising children; disseminating population policies; creating opportunities to access safe child care services; protecting, educating, taking care of children; and building happy and sustainable families...

**+ *Renew and enhance effective communication, education and awareness raising, promote good values of family relationships, and build happy families:*** Providing knowledge and skills on family life education, ethical education and lifestyle in the family; gender equality,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social evils; health care, child rearing; economic development, and building of happy families...

**+ *Build and replicate models of women's support:*** focusing on developing, maintaining and replicating models that support the effective building of prosperous, progressive and happy families. Typical are the models of club of building happy family and club of building 5 No, 3 Clean family, and the model of reliable addresses in the community.

**+ *Develop household economy through advocacy and empowerment of women's economic development:*** shifting from support for poverty reduction towards building livelihood models, creating local jobs for poor women, poor women ethnic minorities, women in difficult circumstances, and returning trafficked women...; establishing cooperatives/cooperative groups in border communes, and disadvantaged communes under Program 135, associated with the addresses supported under the Program of accompanying border women, which have recorded initial results.

Activities to support women access loans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sustainable poverty reduction have been promoted in many forms. The Women's Unions at all levels are managing many different capital sources with a total outstanding loan of nearly VND100,000 billion.

**+ *Coordinate in providing advice and proposals on policies, programs and projects in the field of family***

The Women's Unions at all levels actively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legal documents, programs and projects related to the family, women and children. Since 2017, they have made 407 proposals on policies, programs, projects, schemes, and operational plans. In particular, the VWU Central Committee has successfully proposed 04 projects; coordinated with relevant ministries and departments in the Drafting Committee and the Editorial Team in developing relevant legal documents on the family sector.

Social criticism activities are always paid attention to and have many positive changes, focusing on giving inputs to draft documents directly related to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Union's members, women and families.





**Businesses and Consumer Life**

## **Session III.**

**Presentation 01**

# **A Study of the Change in Enterprise Assets in North Korea**

---

**Jeon Kyung-ju**  
Ewha Womans University



**Feminism with Focus on Changes in North Korean Society**



## **Session III**

### **[Presentation]**

# **A Study of the Change in Enterprise Assets in North Korea**

**Jeon Kyung-ju (Ewha Womans University)**

## **1. Introduc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volution of North Korean corporate assets resulting from policy changes over the past decade under Kim Jong-un's leadership. Specifically, it examines the changes in corporate assets by analyzing composition and proportion change, based on asset classification in South and North Korea, respectively. The study also aims to infer the future direction of corporate development in North Korea.

Initially, a comparison will be made between the differing concepts of assets in North and South Korea.<sup>1</sup> In South Korea, corporate assets are categorized into non-current assets, referred to as fixed assets, which cannot be converted to cash within one year, and current assets that can be converted to cash within one year. Fixed assets are further divided into tangible assets, intangible assets, and investment assets, while current assets are divided into inventory and quick assets.<sup>2</sup>

In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corporate assets<sup>3</sup> can be divided using two different criteria. Firstly, they can be categorized as fixed assets, current assets, and distribution assets based on the means of capital turnover. Secondly, they can be classified into real assets and nominal assets (withdrawn assets) based on their

<sup>1</sup>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the terminology primarily utilized is based on South Korean practices, while North Korean terminology is employed when referring to assets specific to North Korea.

<sup>2</sup> Tangible assets are physical assets that possess a physical form, while intangible assets do not have a physical presence. Investment assets refer to assets that are held for an extended period with the objective of generating investment income. On the other hand, inventory assets encompass assets that can be converted into cash through processes such as manufacturing and sales. Quick assets, in contrast, are assets that can be readily converted into cash without delay.

<sup>3</sup> In North Korea, assets are typically classified into different categories based on various criteria. One common classification is based on the form of ownership, which includes state assets, cooperative organization assets, and private assets. Another classification is based on the nationality, or the origin or ownership of the assets, distinguishing between state assets and foreign assets. Additionally, assets can be categorized as production assets or distribution assets, based on their mission and role within the economic system.

structure.<sup>4</sup> Fixed assets refer to assets that can be used for more than one year and can be further divided into national investment fixed assets and self-investment fixed assets depending on the source of funds invested.<sup>5</sup> Current and distribution assets are distinguished on the basis of whether they are engaged in the process of production or distribution.<sup>6</sup>

Table 1. Composition of Corporate Assets in North and South Korea

South / North	Category	Composition	Category	
South Korean Corporate Assets	Availability to convert to cash within one year	Non-current assets (Fixed assets)	Tangible assets	Land, buildings, structures, machinery, fixtures, ships, vehicles, and construction in progress
			Intangible assets	Copyrights, industrial property rights, goodwill, development expense, software, exploration and evaluation assets, fishing rights, licenses, franchises, and leasehold premium
			investment assets	Long-term financial instruments, financial assets held to maturity, available-for-sale financial assets, investments in associates, investment property, long-term loans, and deposits
	Availability to convert to cash	Current assets	Inventory assets	Merchandise, finished goods, semi-finished goods, work in process, raw materials, and supplies
			Quick	Cash and cash equivalents, trade

<sup>4</sup> In North Korea, real assets are assets that are actively utilized in the reproduction processes of businesses during their operations, such as fixed assets, current assets, and distribution assets. On the other hand, nominal assets are synonymous with deferred assets.

<sup>5</sup> In North Korea, the concept of investment is defined as financial expenditures made by the state and cooperative economy to facilitate expanded reproduction. Therefore, in this context, fixed assets do not include investment assets.

<sup>6</sup> Nominal assets, also known as withdrawn assets, have been separated from business operations and exist solely for calculation purposes.

	within one year		assets	receivable, short term financial instruments, short-term loans, other receivables, accrued income, advance payments, and prepaid expenses	
North Korean Corporate Assets	Real assets	Fixed Assets	Fixed tangible assets	National investment fixed assets	Buildings, structures, conductors, machinery and equipment, tools and parts, equipment, breeding livestock, draught livestock, trees, technical documents and books
				Self-investment fixed assets	
			Fixed intangible asse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atents, trademark rights, design rights, software copyrights), technical know-how, and utility models.	
		Current assets	Supplies and property, unfinished goods, and semi-finished goods		
		Distribution assets	Finished goods, shipped goods		
	Monetary property (cash, bank deposits, other monetary property), bonds				
	Nominal assets	Withdrawn assets	Expenditures for the next settlement of accounts period (next settlement of accounts period expenses,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expenses, production setup costs, business expenses, budgetary expenditure)		
Losses (budgetary expenditure, property damage losses, losses from the previous year)					

Source: Adapted from Song Sang-young, IFRS Accounting Principles (2010), pp. 140-142, and Jeon Kyung-ju, "A Study on the 'Socialistic Enterpris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Corporate Financial Management,"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2022), p. 32, emphasis added by author.

## 2. Changes in the Composition of Fixed Assets of North Korean Enterprises

### 1) Changes in the Composition of Fixed Assets and the Emergence of Fixed Intangible Assets<sup>7</sup>

In the past, the fixed assets of North Korean enterprises consisted solely of tangible assets. However,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shift in the composition of these fixed assets, marked by the emergence of fixed intangible assets. This change can be attributed to Kim Jong-un's aspiration to establish North Korea as a science and technology powerhouse and seek alternative solutions to overcome the challenges posed by sanctions.<sup>8</sup>

Table 2. Classification of Fixed Tangible Assets

Previous Category	Current Category	
Fixed assets (fixed <b>tangible</b> assets)	Fixed <b>tangible</b> assets	Buildings, structures, conductors, machinery and equipment, tools and parts, equipment, breeding livestock, draught livestock, trees, technical documents and books
	Fixed <b>intangible</b> assets (Intellectual propert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atents, trademarks, design rights, software copyrights), technical secrets, utility models, etc.

Source: Jeon Kyung-ju, "A Study on the 'Socialistic Enterpris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Corporate Financial Management",

<sup>7</sup> This section is adapted and supplemented from the section on fixed intangible assets in the master's thesis by Jeon Kyung-ju; Jeon Kyung-ju, "A Study on the 'Socialistic Enterpris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Corporate Financial Management",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2022), pp. 31-42.

<sup>8</sup> Both in the 2012 New Year's Address and the 2016 Seventh Workers Party of Korea Congress, there was a strong emphasis on the construction of a knowledge-based nation; Kim Jong-un, 2013 New Year's Address; Kim Jong-un, 'Report on the Central Committee's Work Review at the Seventh Workers Party of Korea Congress' (Pyongyang: Workers' Party of Korea Publishing House, 2016); however, following the No-Deal Hanoi Summit in 2020, the focus shifted towards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with an emphasis on self-reliance; Cho Ung-chu, "Important Issues Arising in Enterprises' Proper Implementation of the Socialist Enterpris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Journal of Kim Il Sung University (Philosophy, Economy)', vol. 64, no. 2 (2018), p. 91.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2022), p. 1. 32.

North Korean enterprises commonly define fixed intangible assets as intellectual property.<sup>9</sup> In 2019,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brought about a new framework for 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 leading to its reclassification as a corporate asset.<sup>10</sup> It's worth noting that the sale and transfer of intellectual products are restricted to transactions between enterprises and between enterprises and individuals, excluding transactions solely between individuals. Table 3 illustrates the various types of intellectual property registrations.

Table 3. Categories of Intellectual Property Registration

Intellectual Property Registration	
Registration within an enterprise	Registration with a bank or within an enterprise
Goods registration (Fixed asset management department)	Monetary registration (Bank or finance department of enterprise)

Source: Adapted from Kang Chun-sik (2019), pp. 30-31.

The authorities mandate that research and development, excluding key areas, must be funded through dedicated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 funds, enterprise funds, or gains derived from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sup>11</sup>

## 2) Analysis of Corporate Direction Related to Fixed Intangible Assets

Previously, software development was primarily undertaken by affiliated organizations. However, in line with the current emphasis on establishing North

<sup>9</sup> Intangible assets are frequently used interchangeably with the terms of knowledge capital, knowledge assets, and intellectual property due to their similarity (Cho Sung-pyo et al., 2014).

<sup>10</sup> "N. Korea's Rodong Sinmun begins adding watermarks to digital photos - The move appears to be part of efforts by the regime to strengthen copyright claims" 'Daily NK' (Internet edition), 24 June 2022; <https://www.dailynk.com/20220624-1/> (retrieved 30 June 2022); The authorities implemented the 'Software (SW) Protection Law' on April 30, 2021, which mandates the registration of all software (SW) with the relevant authorities. This law serves to legalize and protect copyright and property rights associated with software; Kang Chun-sik, "Rational Organ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egistration for Enterprises," "Kim Il Sung University Bulletin: Economics," vol. 65, no. 2 (2019), p. 1. 27.

<sup>11</sup> Kim Rong-kyu, "Important Issues Raised by Establishing a System for Guaranteeing Material and Technological Conditions for R&D", Journal of Economics Studies, no. 4 (2016), p. 19.

Korea as a science and technology powerhouse, individual enterprises have taken on the responsibility of software development.<sup>12</sup> To facilitate this, enterprises are establishing affiliated organizations under various names, such as 'Science and Technology Distribution Center', 'Technical Support Center', and 'Technology Exchange Support Center'.<sup>13</sup> Additionally, universities have become increasingly active in conducting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software products.<sup>14</sup> In addition, software products are currently being developed and marketed as compilations and multimedia products, often in conjunction with other offerings.<sup>15</sup> As a result of North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of enterprises engaged in the creation, sale, and purchase of intellectual property will continue to rise.

### **3. Changes in the Proportion of North Korea's Corporate Assets**

#### **1) Changes in the Proportion of National Investment Fixed Assets and Self-investment Fixed Assets**

Previously, enterprises in North Korea obtained fixed tangible assets using state funds. However, with the introduction of fixed asset management rights, enterprises are now able to utilize their own funds for acquisitions. As a result, the proportion of self-investment fixed assets has exceeded that of national investment fixed assets. In the past, funds for such acquisitions were sourced from the 'basic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fund', but regulations now require that they be obtained from the

<sup>12</sup> Specialized development units such as KCC are exclusively responsible for producing software products that are uniformly deployed and utilized on a national scale. These products include operating system software, management business software, and information security software.

<sup>13</sup> Software production companies are mandated to establish their planning indices on a quarterly basis. These indices need to be further divided into monthly targets and registered with the Central Guidance Organ of the Software Industry before the production process can commence.

<sup>14</sup> In January 2012, the Economic Intelligence Unit, Faculty of Economics at Kim Il Sung University, introduced the first version, known as 'Alternative 1.0,'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This system is a North Korean-style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system. Since then, the development has progressed, and 'Alternative 2.0' has been developed and implemented in various factories and companies; "North Korea Developed Integrate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10 Years Ago... Kim Jong Un Personally Evaluates", 'NK Economy' (Internet edition), 23 June 2022; <http://www.nk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13> (retrieved 1 July 2022).

<sup>15</sup> In 2019, Disney animations were translated and made available for sale as English language learning CDs in North Korea. This initiative was undertaken following Kim Jong-un's directive, recognizing the worldwide popularity of Disney animation and emphasizing that North Koreans should have the opportunity to watch it, even if it is produced in the United States.



'self-construction and maintenance fund' or the 'enterprise reserve fund' which are established by the enterprises themselves.<sup>16</sup>

Furthermore, enterprises have the option to transfer or lease unused fixed tangible assets to other enterprises at mutually agreed prices. Funds related to the purchase and sale of national investment fixed assets must be remitted to the state, while funds tied to the acquisition and sale of self-investment fixed assets can be accumulated and utilized independently by the enterprises.<sup>17</sup> With the assurance of corporate autonomy, it is anticipated that the number of enterprises operating with self-investment fixed assets will increase.

## **2) Changes in the Proportion of Inventory Assets and Cash**

In the past, the process of buying and selling goods involved production enterprises manufacturing products and handing them over to commercial enterprises (hereinafter referred as distribution enterprises) for selling. Only after the sale, was cash recovered. However, with the granting of sales rights, production enterprises now have the ability to establish their own sales outlets and directly engage in sales. As a result, the proportion of cash in comparison to inventory assets has increased.

The establishment of distribution centers for product sales has been an ongoing initiative since the era of Kim Jong-il.<sup>18</sup> In 2009, Kim Jong-il envisioned the construction of distribution centers capable of handling a wide range of products, leading to the creation of the 'Kwangbok Area Shopping Center.' Under the leadership of Kim Jong-un, the construction of distribution centers has further expanded, resulting in the reconstruction of and expansion of supermarkets such as the 'Taesong Department Store' and 'Rakwon Department Store'.<sup>19</sup> These distribution centers serve as efficient means of converting inventory assets into cash, and it is expected that they will be gradually introduced in different regions of North Korea.

<sup>16</sup> The state exclusively provides funds for the purpose of creating production capacity and for the reconstruction of significant enterprises.

<sup>17</sup> Ham Sung-joon, 'Accounting Calculation Practice Book' (Pyongyang: Kim Il Sung University Press, 2016), p. 78.

<sup>18</sup> In the mid-2000s, Kim Jong-il placed a strong emphasis on achieving "actual profits" as a means to revive the economy in North Korea. This focus influenced the production of numerous products; see Han Ki-beom, "The Organizational Behavior and Bureaucratic Politics in North Korea's Decision-making Process: Expansion and Retreat of Economic Reform, 2000-2009",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2009, p.109.

<sup>19</sup> For the sake of simplicity, the finished and shipped goods that are included in current and distribution assets can be collectively referred to as inventory assets.

### 3) Changes in the Proportion of Non-cash and Cash Holdings

The implementation of corporate cash accounts has resulted in an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cash compared to non-cash deposits held in enterprises.<sup>20</sup>

Table 4. Differences in the opening of cash accounts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Enterpris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Before Implementation	After Implementation	
162 bank deposits (default account)	162/1 Bank deposits/non-cash (subaccount)	162/2 Bank deposits/local currency cash (subaccount)

Source: Adapted from Ham Sung-joon (2016), p. 49, emphasis added by author.<sup>21</sup>

Previously, business-to-business transactions were predominantly non-cash, with cash transactions being limited.<sup>22</sup> However, the landscape has evolved, and now enterprises utilize non-cash transactions for the purchase and sale of products generated by the central indices or targets, while cash transactions are employed for products produced by enterprise indices and other indices. The introduction of cash accounts b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serves multiple objectives. It aims to legally authorize cash transactions associated with market trading activities, ensuring stability in market production activities, enhancing cash asset liquidity, and boosting productivity to expand tax revenues. Another objective appears to be the broadening of monetary control by incorporating cash circulating outside the banking system into the formal banking system.

Additionally, the issuance of ‘central bank money coupons’ or ‘donpyo’ has

<sup>20</sup> According to Lee et al. (p. 123), the cash account system in North Korea was formally introduced through “Problems and Measures Raised by the Rational Mobilization and Use of Money”, which was ratified by Kim Jong-un in August 2012. In August 2014, the central bank amended and supplemented its directives to expand the scope of cash usage. It stated that ‘in relation to the payment of funds for the purchase of goods, if an enterprise possesses a cash account, it has the ability to make payments up to the requested amount within the applicable scope’.

<sup>21</sup> The opening of cash accounts in North Korea was legalized after the division of the existing default account into cash and non-cash accounts.

<sup>22</sup> The previous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Monetary Circulation Law’ (Cash Circulation, 31 October 2009) stipulated that the utilization of cash for production and business activities “shall not exceed KPW 20,000 per month.”

emerged as a significant development.<sup>23</sup> Although the depletion of foreign ink and paper may be a technical factor, experts speculate that other real reasons, such as a credit crunch for businesses, could be behind this issuance. It is believed that the issuance of money coupons aims to meet the increased demand for domestic currency resulting from the country's border closure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which has reduced the demand for foreign currency and elevated the demand for domestic currency.<sup>24</sup>

In the short term, money coupons are expected to serve as a payment method for business-to-business transactions, channeling cash from businesses to the North Korean authorities.<sup>25</sup> Furthermore, money coupons are anticipated to be utilized for business-to-individual and individual-to-individual transactions, further redirecting cash flows to the North Korean authorities.<sup>26</sup> The issuance of money coupons in North Korea has led to a decline in corporate cash transactions and a surge in non-cash transactions facilitated by money coupons. As a result, the proportion between cash and non-cash has shifted again, with a decrease in the proportion of cash and an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non-cash transactions.

#### **4) Changes in the Proportions of Foreign and Local Currency**

Since 2012,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implemented a policy to exchange foreign currency held in foreign accounts for domestic currency at a cooperative exchange rate. This policy was introduced in response to the growing private economy, which reduced the inflow of foreign currency into the state. Consequently,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free exchange of foreign and domestic currencies, resulting in a shift in their proportions.<sup>27</sup>

On the other hand, the amendments to trade laws in 2012 and 2015,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December 15 Quality Medal' to boost exports, were

<sup>23</sup> The first report on the issuance of money coupons was made by South Korean security outlet Freedom and Life on 6 September 2021; see Kim Byung-yeon et al., "North Korea's Reverse Dollarization: Facts, Implications, and Prospects," KDI Review of the North Korean Economy, November 2021.

<sup>24</sup> It is possible that the authorities issued money coupons in response to the increased demand for domestic currency from businesses. This action may have been taken to mitigate the potential inflationary effects that could arise from the release of additional money into circulation.

<sup>25</sup> Lim Song, "Background and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Issuance of 'Central Bank Money Coupons': Plausible Reasoning", BOK Issue Note, Bank of Korea, 2022, pp. 1-16.

<sup>26</sup> With the issuance of KPW 5,000 money coupons in 2021 and KPW 50,000 coupons in 2022,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se coupons could be extensively utilized for business-to-business transactions.

<sup>27</sup> The establishment of foreign currency exchanges in general markets in 2003 suggests that the cooperative exchange rate has been applied since that time.

significant factors contributing to an increase in North Korea's foreign currency earnings.<sup>28</sup> However, the impact of sanctions has led to a significant decline in both exports and imports, resulting in a substantial decrease in North Korea's foreign currency earnings.

#### **4. Conclusion**

Over the past decade under Kim Jong-un's leadership, North Korean corporate assets have undergone a significant transformation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a variety of policies. The granting of price assessment rights and sales rights to enterprises has resulted in increased monetary assets and the ability to swiftly convert inventory into cash through effective inventory management and sales channels. However, this has also placed greater emphasis on efficient management, requiring company executives to handle their own cash flow, inventory, and other aspects. Furthermore, corporate decision-making has become crucial, encompassing activities such as the independent setting of indices, the development and sale of products, and the utilization of self-funded fixed assets acquisitions.

This study not only analyzes the changes in asset composition and proportions during the Kim Jong-un era but also provides an insight into the trajectory of corporate development in North Korea and the overall flow of the economy.

<sup>28</sup> North Korea underwent expansion and reorganization of its certification agency, the State Bureau of Quality and Technical Supervision, into the National Quality Management Commission in April 2011. Additionally, the country has been enhancing its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by making amendments to the Standards Law, the Product Production License Law, and the National Quality Supervision Law.

Businesses and Consumer Life

## **Session III.**

**Discussion 01**

# **A Study of the Change in Enterprise Assets in North Korea**

---

**Lim Eul-chul**  
Kyungnam University



**Feminism with Focus on Changes in North Korean Society**



### **Session III**

#### **[Discussion]**

#### **A Study of the Change in Enterprise Assets in North Korea**

**Lim Eul-chul (Kyungnam University)**

**o This discussion seeks to examine the shift in the composition of fixed assets in North Korean enterprises, as well as significant alterations in the proportion of enterprise assets within North Korea, thus gaining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underlying causes.**

**o All factories and enterprises in North Korea are state-owned; they are managed and operated under state supervision.**

- Consequently, when a new enterprise is established, the state furnishes it with the necessary funds for its establishment (fixed assets such as capital investment). Thus, North Korean enterprises are restricted to executing state-approved commercial activities using government funds.

- However, economic hardships since the mid-1990s have strained state finances leading to the termination of the supply of liquid funds to enterprises. As a result, these entities have been permitted to self-finance a portion of their initial capital.

- Traditionally, in a socialist planned economy, the state provides the capital required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mmercial banks. Yet, in an unprecedented move, the North Korean regime has permitted the creation of commercial banks, which subject to the central bank's approval, are capable of generating their own capital, specificall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nterprises.

**o The core principle of North Korea's national economic management is to centralize and unify guidance to its institutions,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 thereby concentrating economic authority within central government.**

The central government exerts far-reaching control over local economies, covering areas such as funding, manpower, electricity, and production materials for local enterprises. In return, these enterprises deliver a proportion of their production to central government.

- North Korea believed that only such a centralized economic management system could ensure the planned and balanced growth of the nation's economy. However, as economic crises undermined central authority and following the decree of 1 July 2002, it delegated the rights to establish planning indicators, prices, and standards to the

county level, the primary administrative unit.

- Since then, local initiatives for economic growth have continued, including project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hydroelectric power plants and the establishment of food factories for children.

**o In particular, after Kim Jong-un assumed power,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devolu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s control over economic management to local government.**

- The policy of decentralization, enabling local authorities to address the issues of their respective populations, has been strengthened.
- This shift in policy has permeated numerous sectors, including enterprise, agriculture, and finance.
- The drive to create regional banks seems to be aimed at enhancing efficiency by securing local funding when central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is no longer feasible.

**o A significant development in the changes in North Korean enterprise assets is the introduction of the 'Socialist Enterpris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 This measure permits factories and enterprises to establish their own plans alongside national plans, granting them some authority over production volume, product quality, pricing, wages, workforce size, and the ability to market surplus production.
- Many traditional management powers have been devolved to the enterprises themselves, enabling them to operate with real authority. In terms of enterprise management and operations, enterprises can now engage in innovative activities, having been granted a collection of ten "actual management rights".
- The revised Enterprise Act, initially enacted in 2010 and amended in November 2014, sets out the implementation of the Socialist Enterpris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It further specifies the North Korean-style approach to economic management, the provision of autonomous management rights, and the mobilization of residents' idle capital, thereby institutionalizing the Party's policies into law.
- This led to the increase of formal economic sectors, such as state-owned enterprises and store, receiving investment from 'money masters (nouveau riche)', directly conducting market-oriented management activities, and subsequently making payments to the central authorities.
- In some instances, state-run enterprises simply lease out their name, while in other



instances, they lease both their name and production assets (buildings, machinery). This occurs when a 'money master' leases or acquires a portion of an existing state-run enterprise or establishes a new one. In these instances, the enterprise is registered with the state as a distinct entity under a specific institution.

- This measure has led to a growth in the share of intangible fixed assets, self-investment fixed assets, and an increase in the share of cash and foreign currency.

**o North Korea became a member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in 1974, and under Kim Jong-un's leadership, it has actively pursued IP-related initiatives, including applying for international patents and trademarks.**

- For example, the nation has applied for a total of six international trademarks, including 'Spring Scent', a cosmetic product of the Sinuiju Cosmetics Factory, and has registered one international patent for an 'lonotherapy device for treating causes of hepatitis, diabetes, and obesity'. The 16th National Invention Exhibition in 2018 showcased nearly 1,000 inventions and patented technologies.
- North Korea's commitment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ntinues to be a priority. The country has established the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provide an administrative structure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The workload of the Pyongyang IP Center, which handles the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patents and trademarks, is consistently growing. Steps are being taken to prevent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by revising and supplementing laws related to industrial property rights and copyright laws.
- However, the effective protection of inventors' rights remains limited.
- \* According to the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between 2009 and 2018, approximately 14,000 inventions were filed by the State Academy of Sciences and Kimchaek University of Technology, but only around 800 patents were granted to individuals.

**o An interesting development in the shift in the proportion of cash in enterprises is the issuing of money coupons for businesses, serving a function similar to checks.**

- North Korea has reportedly decided to grant local commercial banks the authority to issue checks, a method of business-to-business payments. The intention is to decentralize the centrally managed financial system and enhance the credibility of local banks.

\* A check is a form of payment guarantee issued by a bank, enabling transactions to be carried out without cash.

- Typically, North Korean enterprises employ checks to purchase means of production, such as machinery and materials. Previously, enterprises needed to open a bank account with the central bank and accumulate substantial deposits or provide collateral of equivalent value to obtain checks.
- However, now local banks are also issuing checks, but only after assessing the value of an enterprise's collateral.

**o However, the North Korean regime has ascertained that corruption is pervasive, with enterprises misusing checks in transactions, leading not only to resource waste but also to the redirection of state funds for private use.**

- Money coupons for enterprises, which were designed to function similarly to checks, are reportedly not performing as intended.
- The North Korean regime has attempted to encourage enterprises to use KPW 50,000 money coupons for transactions. However, this denomination is too small and inconvenient for most transactions. Given that checks already exist as a replacement for cash, according to sources within the country, enterprises show little interest in using these coupons.
-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issued KPW 50,000 notes, a denomination deemed rather small for business transactions, and are encouraging local enterprises to use these instead of checks.
- Through advocating for the use of KPW 50,000 money coupons in business transactions, authorities intend to maintain a clear transaction record and prevent potential abuse of resources and goods.
- North Korean authorities are promoting the use of money coupons as an alternate transaction method that could replace checks. Nevertheless, as the use of checks has become commonplace in business transactions, authorities allow the use of checks in conjunction with money coupons, rather than discontinuing the issuance of checks outright.

**o The foreign currency exchange rate in North Korea, which plummet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has recovered to pre-pandemic levels as trade volumes have recently increased.**

- In Pyongyang and certain border regions, the use of foreign currency in markets has returned to the levels seen before the pandemic, driven by rising exchange rates that enhance the value of foreign currency.

- Even before the Covid-19 border lockdown, areas close to the border, such as Hyesan in Yanggang Province, extensively used the Chinese renminbi along with domestic currency. However, the depreciation of foreign currency following the border lockdown in January 2020, significantly curtailed the use of foreign currency in everyday life.
- North Korean authorities are concerned that an increased domestic use of foreign currency could devalue the North Korean won (KPW) and adversely impact the authorities' foreign currency reserves.
- Similarly, North Korean authorities remain cautious about expanding trade, as an increase in trade could inevitably lead to a depreciation of North Korea's currency as residents using foreign currency would increase.

**o In recent years, North Korea has allowed limited, centrally-controlled trade, suggesting that even if trade expands in the future, the state's oversight and management of trade will strengthen.**

- The increasing of autonomous management rights for enterprises has led to an unsocialist concentration of private ownership. To both manage and reduce this, authorities are increasing their control over these enterprises. That is to say, they are emphasizing socialist principles and focusing on establishing a system and order by reinforcing the state's unified economic management control.
- It will be interesting observing the changes in enterprise assets associated with this strengthening of state's control over enterprises.



Businesses and Consumer Life

## **Session III.**

**Presentation 02**

# **Exploring North Korean Consumption Patterns**

**Analysis of the Packaging of North Korean  
Daily Necessities Collected from Korean Border Regions**

---

**Kang Dong-wan**  
Dong-A University



**Feminism with Focus on Changes in North Korean Society**



## **Session III**

### **[Presentation]**

# **Exploring North Korean Consumption Patterns: Analysis of the Packaging of North Korean Daily Necessities Collected from Korean Border Regions<sup>1</sup>**

**Kang Dong-wan (Dong-A University)**

## **I. Introduction**

### **1. Objectives**

Since the formal election of Kim Jong-un as the First Secretary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in North Korea on 11 April 2012, a decade has passed, leading to various studies of the policy changes that have transpired during the 'Kim Jong-un era'. Over the past decade and within the overarching framework of pursuing economic development and nuclear armament, concurrently the North Korean regime has dedicated significant attention to 'enhancing the living standards of its populace'. Nota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actively promote the production of consumer goods and introduce a wider variety and diversity of products available.

However, our ability to gain comprehensive insights into the current state of manufacturing and consumption in North Korea is significantly hindered by the limited methods and access at our disposal. Currently, our understanding of the consumption patterns of North Koreans primarily relies on fragmented insights derived from official announcements by the Korean Central Broadcasting Station (KCBS), occasional mentions in articles on consumer goods exhibitions published in the Rodong Sinmun newspaper, and marketing material introducing department stores in Pyongyang. These sources provide only a narrow perspective on the actual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goods within North Korea. Packaging, to a certain extent, can provide valuable insights into the state of manufacturing production and consumption in North Korea, assuming that the products produced are indeed being consumed within the country. However, it remains challenging to ascertain the specific products being distributed and the methods employed, as the available data is politically motivated and influenced by the North Korean regime's agenda to expand the availability of consumer goods.

The strained relations and suspension of both human and material exchange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ve indeed made it challenging to obtain North Korean goods directly. As a result, our knowledge of North Korean goods and factories heavily relies on the analysis

<sup>1</sup> This article is adapted from Kang Dong-wan (2021) and Kang Dong-wan (2023).

of videos and articles from North Korea's official propaganda media. In this context, Kang (2021) conducted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North Korean brands, trademarks, designs, and factories by examining litter that floated to South Korea's Five West Sea Islands from North Korea. Furthermore, in a subsequent study (Kang, 2023), the packaging materials of North Korean products found in coastal areas along the east coast of Korea and the Five West Sea Islands were investigated to gain valuable insights into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North Korean goods. The packaging of goods produced in North Korea offers valuable clues to understanding North Korean society as it often contains information such as factory names, production dates, and main ingredient information.

Indeed, it is important to acknowledge that the consumption and distribution of goods produced in North Korea may not be widespread across the entire population or universally available in the marketplace. The North Korean regime may selectively supply goods to specific regions and social classes, which can result in uneven access to consumer products. Furthermore, certain enterprises operating under the enterpris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may distribute their products exclusively in particular regions, further contributing to regional disparities in product availability.

Certainly, in the absence of comprehensive information on North Korea's commodity production and consumer patterns, analyzing the discarded product packaging from North Korea can offer valuable insights. This study specifically focuses on the examination of North Korean product packaging collected from coastal areas in the border reg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aim is to identify the primary products being produced and distributed in North Korea an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consumption patterns. The North Korean regime's strong emphasis on achieving a greater variety and diversification of consumer goods, coupled with the subsequent efforts to enhance their manufacture, has indeed led to the emergence of diverse consumption patterns within the country.

During the 2000s, North Korea experienced the emergence of a unique environment characterized by a dual reality. This environment encompassed marketization and deregulation, coexisting with efforts to resist the encroachment of capitalist influences. Within this context, women have undergone a significant transformation, taking on the role of modern consumers within the framework of Juche socialism (Do Ji-in, 2022). It is evident that consumption has become a significant indicator of socioeconomic status in North Korean society. Conspicuous consumption has emerged as a means for individuals to measure themselves both at the individual and group level, and it has become important in preserving or promoting individual prestige. This phenomenon is not exclusive to the newly affluent and is not independent of government policies (Yoon Bo-young, 2022).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a diverse range of goods inevitably will lead to the differentiation of social classes that have the capacity to consume these goods, thereby increasing the importance of individual preferences when selecting products.

## **2. Methodology**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goods, Kang Dong-wan (2021) employed a methodology focused on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product packaging from North Korea. The collection of packaging material took place specifically on the Five West



Sea Islands over a period of approximately 10 months, spanning from September 2020 to July 2021. The collection of packaging material took place primarily in the coastal areas of all Five West Sea Islands, namely Baekryeong Island, Daecheong Island, Socheong Island, Daeyeonpyeong Island, and Soyeonpyeong Island. Additionally, garbage was also collected along the eastern coast of Korea for approximately 13 months, from August 2021 to November 2022. B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tions where North Korean garbage washed up, it was observed that the Goseong region of Gangwon Province, being the closest administrative district to North Korea, received a relatively significant amount of North Korean garbage compared to other coastal areas. In total, 42 coastal locations were selected for the collection of North Korean trash, ranging from Chilpo Beach in Pohang, the southernmost location in terms of distance from North Korea, to Myeongpa Beach, the northernmost location (Kang Dong-wan, 2022).

It is important to acknowledge that the collection period for packaging waste and the production of goods in North Korea cannot be assumed to align precisely, there may be some overlap. In some instances, the collection of packaging materials coincided with the time products were featured on KCBS TV, and the production date markings indicate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collection and production date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east and west coasts was made to gain insights into the distribution of goods within North Korea. For example, products manufactured in the Songdowon Food Factory in Wonsan, Gangwon Province, were found on the west coast, which is located on the opposite side of the peninsula. Conversely, products produced in Pyongyang, located in the west, were discovered on the east coast. Although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terms of the variety of items identified from the packaging waste, it is noteworthy that specific types of packaging were not found on the eastern coast. Specifically, packaging for laundry soap, wet wipes, female hygiene products, tea, and cigarettes were absent in the materials collected from the eastern coast. However,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e inherent limitations when studying packaging waste that washes ashore. Factors such as tides and winds can significantly impact the types of products that are carried and deposited along coastal areas. Therefore, the observed differences in packaging waste between the east and west coasts may not directly reflect variations in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goods within North Korea.

Table 1. Types and Quantities of Household Product Packaging Waste from North Korea

<b>Product Category</b>	<b>Five West Sea Islands</b>	<b>East Coast</b>
Beverage ('Danmul')	97	98
Baked Goods	85	41
Seasoning (flavoring, pepper powder, all-purpose seasoning, etc.)	62	35
Confectionery	58	51
Ice cream (Eskimo)	50	79
Milk and Yakult	66	68
Sweets	26	31

Noodles (Ramyeon, Udon)	26	7
Face Soap	19	19
Toothpaste	18	39
Processed Foods	16	12
Medical Supplies (IV, Medicines)	13	21
Alcoholic Beverages	12	16
Toothbrush	6	1
Cosmetics	6	10
Laundry Soap	5	0
Wet Wipes	3	0
Sanitary Towel	3	0
Tea	2	0
Cigarettes	3	0
Pesticides	2	3
Shampoo	2	3
Dry Goods	1	0
Dish Detergent	1	4
<b>Total</b>	<b>582</b>	<b>538</b>

Source: Adapted from Kang Dong-wan (2021) and Kang Dong-wan (2023)

## II. The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North Korean Commodity Production

### 1. Marketization Trends in North Korean Society and the Emphasis on Domestic Products

In North Korean society, there has been a growing trend towards marketization, with the regime gradually tolerating informal market activities that were previously suppressed. Recognizing the impracticality of outright prohibitio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acknowledged the significance of the market, known as 'Jangmadang', as a catalyst for change. This market has played a crucial role in meeting the needs of North Koreans, especially after the government ration support was stopped in 1994. Over time, 'Jangmadang' was formalized and expanded across the country, becoming a vital aspect of the North Korean economy.<sup>2</sup> Since 2013, Kim Jong-un has placed a continued emphasis on localization,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domestic production. Moreover, the North Korean regime actively promotes the production and development of essential good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its political propaganda aimed at improving the living standards of its citizens.

<sup>2</sup> Lee Yong-hee, 'The reality of Covid-19 in North Korea and its affect on trad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Korea Associatoin of Unification Strategy, 21-1, 2021, 131.

Under the leadership of Kim Jong-un, the 'people's living standards first' policy has been given priority, aiming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s. The regime's aspiration of 'building a powerful civilized socialist state' further asserts its commitment to ensuring both material and cultural aspects of life in order to 'improve people's living standards'. However, the regime faces a dilemma as its economy remains heavily reliant on external factors.

## **2. Production and Distribution to Improve the People's Living Standards**

The reasoning behind the North Korean regime's encouragement of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basic necessities, can be explained by the leadership of Kim Jong-un, who has placed a strong emphasis on 'improving people's living standards' and the establishment of 'a powerful civilized socialist state'. Since assuming power in 2012, Kim Jong-un has placed significant emphasis on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by promoting the production and availability of light industrial products. Additionally, he has directed efforts towards modernizing facilities and expanding the supply of raw materials, resulting in the construction or modernization of several light industrial facilities. Furthermore,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supply of electricity and raw materials, with Kim advocating expanded production, even if it requires the importation of raw materials.<sup>3</sup>

## **3. The Trend of an Increasing Variety and Diversification of Products**

The North Korean regime has placed a strong emphasis on the localization of production, leading to the manufacturing of a diverse range of goods. This trend became prominent around 2015, with a shift towards prioritizing the localization of equipment and raw and other materials. Furthermore, since 2015, there has been a dedicated focus on modernizing the facilities of light industrial factories,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adopting domestic equipment. This modernization can be observed in food factories located in Pyongyang. In subsequent years, especially from 2016 onwards, the regime has consistently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upgrading and diversifying domestic products to enhance their competitiveness in the market.<sup>4</sup> To complement this localization policy, efforts have been made to diversify products through branding, product design, and advertising strategies, all aimed at ensuring an efficient supply and distribution of goods.

<sup>3</sup>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KIET), *Industry and Policy of North Korea in Kim Jung-un Era*, KIET, 2018, p. 59.

<sup>4</sup>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KIET), *Industry and Policy of North Korea in Kim Jung-un Era*, p. 63.

### III.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Products

#### 1. Baked Goods

In North Korea, baked goods are classified into several categories based on their ingredients and form, including 'danseolgi', 'jam filled bread', 'bread with fillings', 'spirulina', 'waffles', 'fried bread', and 'yeast bread'.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individual factories do not produce only a single product, but rather manufactures a variety of baked goods such as Danseolgi, Sobbang, fried bread, yeast bread, and more. One notable example of a baked goods factory is the Kumkop (gold cup) Combined Foodstuff Factory. Also, the Kwanmun Foodstuff Enterprise, situated in the Rangrang district of Pyongyang, produces six different products, including jam filled bread, fruit-flavored butter danseolgi, and fruit cream sweet bread.

The expansion of product diversity is very evident in the area of baked goods, particularly in the case of danseolgi. This particular type of baked good is further categorized into varieties such as 'chocolate danseolgi', 'walnut danseolgi', 'greasy danseolgi', and 'spirulina danseolgi'. Among these, 'chocolate danseolgi' offers a range of flavors, including grape, fruit, pineapple, and banana, achieved through the incorporation of different additives. Moreover, 'spirulina danseolgi' is available in a wide variety of types, as different production plants such as Pyongyang Vegetable Factory, Songdowon Combined Foodstuff Factory, and Surim Foodstuff Factory manufacture distinct products despite utilizing the same additives.

Notably, the 'Waffles' produced by the Yoo Ah Trading Corporation and the Oh Il Combined Processing Plant stand out among the baked goods. The product description 'waffle' has been directly adopted, and the primary ingredients used include 'flour, powdered sugar, milk powder, starch syrup, cooking oil, eggs, baking soda, and salt'.



Photo 1. Waffle product wrappers produced by 'Oh Il Combined Processing Plant' and 'Yoo Ah Trading Corporation' respectively

## 2. Beverages

In North Korea, beverages are broadly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danmul, Carbonated danmul, and functional beverages such as energizing drinks, hydrogenated water, and spring water. The term 'danmul' refers to juice and is primarily marketed in plastic packs and PET bottles. In this study, a total of 30 types of plastic packaging were collected for the danmul products, which varied in terms of fruit additives, including strawberries, apples, mangoes, and bananas. The majority of plastic pack containers are standardized at 150 ml.



Photo 2. A selection of danmul products packaged in plastic packs, showcasing a diverse range of options with various additives such as banana, apple, strawberry, mango, and pineapple.

## 3. Dairy Products

In North Korea, the primary dairy products consist of cow's milk, sour milk (yakult), and Eskimo (a variety of ice cream). A diverse array of products is promoted, featuring the incorporation of fruit juices such as peach, melon, strawberry, apple, pineapple, jujube, blueberry, grape, and tangerine. The extensive range of dairy offerings manufactured in North Korea can be attributed to the regime's dedication to fulfilling the directives set forth below by Kim Jong Un.

On 15 June 2021, during the Third Plenary Meeting of the Eighth Workers Party of Korea, Kim Jong-un stated, "it is the most important policy and supreme cherished desire of the Party and state to provide improved parenting conditions for children, even if it requires significant



financial investment”, further emphasizing the need to “establish it as a Party policy to supply all children across the country with nourishing food including dairy products at the expense of the state”. Since then, projects have been implemented to fulfill Kim Jong-un's directives, which has been officially confirmed by North Korea's media. An article entitled 'Practical Measures Taken to Implement the Party's Childcare Policy' published in the Rodong Sinmun,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vigorously carrying out political and ideological projects and increasing the production of high-quality dairy products in support of Kim Jong-un. The article highlighted the efforts of Party organizations at various levels, including provinces, cities, counties, factories, enterprises, and farms, in producing dairy products and supplying them to day care centers, kindergartens, and other institutions.<sup>5</sup>

Among dairy products, Eskimo stands out as the most diverse, offering a wide range of options with up to 40 different types of additives. The primary ingredients of Eskimo include sugar powder and milk, while the additives vary depending on the specific product. Some variants of Eskimo incorporate chlorella ingredients, vitamin C, collagen, oligosaccharides, and other ingredients to cater to the different preferences and requirements.



Photo 4. The various types of Eskimo wrappers. The additives featured in these products include honey, collagen, apple, pea, sunflower seed, roasted chestnut, tangerine flavoring, peach sour milk, and peanut.

<sup>5</sup> (Rodong Sinmun, 11 July 2021).

#### **4. Foodstuffs**

Edibles in North Korea encompass a variety of items, including noodles such as instant noodles and udon, sausages, accompaniment snacks, pickled chilli, mayonnaise, dried razor clam, blowfish, powdered milk, tea, sunflower seeds, and spicy chicken feet. The term 'instant noodles' specifically refers to ramyeon noodles, which are exclusively produced in a single factory that offers a wide range of noodle variations. For instance, the Gyeongheung Eunhaesu Food Factory produces three different types of instant noodles, including beef-flavored and seafood-flavored variations. North Korea also distinguishes between ramyeon and udon noodles. Udon products from the Namposi Condiments Factory and the Pyongyang 114 Export Sources Production Station are available for purchase. Udon noodles are available in sizes ranging from 400 grams to 500 grams, and the packaging follows standardized specifications.

Sausage products are manufactured at the Kumkop Combined Foodstuff Factory for Sportspersons. The 'assorted processed accompaniment snacks' from the Cheongryubyeok Food Factory, along with the 'processed peanut' products produced by the Rakrang Food Factory, are classified as a separate category. Their packaging clearly indicates their purpose, with the label 'accompaniment snack' printed on them. The Kwanmun Foodstuff Enterprise produces mayonnaise, clam meat, and dried razor clam, with three different sizes of mayonnaise available. The Galma Food Factory also produces processed foods, such as dried octopus flakes. The Rakrang Gwanghung Food Processing Plant, Chuldoroksan Trading Corporation, and Nampo Polytech's Technology Product Institute produce artificial meat products. These products are branded as 'Haneul', 'Dongmyeong', and 'Jindo', respectively. The packaging for all three products highlights the 'harmonious blend of aromatic flavors in the seasonings'.

#### **5. Seasonings**

Seasoning packets are generally classified into categories as 'flavorings,' 'pepper powder,' 'seasoning powder,' 'chili powder,' and 'ginger powder,' among others. From these, the production of flavorings are carried out by factories such as the Seonbong Bread Factory under Myohyang Trading Corporation and the Unha Daesung Food Factory, while the main product of the Unha Sales Office under Geumeunsan Trading Corporation and the Euljibong Joint Corporation is pepper powder. Notably, the Euljibong Joint Corporation is known for producing 'bulgogi seasoning' in addition to flavorings and pepper powder.

Other noteworthy factories involved in flavoring production include Myohyang Trading General Corporation, Chosun Daebo Trading Corporation, Unha Daesung Food Factory, Yooa Trading Corporation, and the Jangsaeng Food Factory. As for black pepper, ten different products have been identified, including 'pepper powder' and 'black pepper powder'. The Tongdaewon Kimchi Factory specializes in producing 'chilli powder', while the Grain Processing Research Institute is responsible for 'ginger powder' production. Furthermore, a variety of seasoning powder products are available, including 'general seasoning', 'bulgogi seasoning', 'noodle seasoning powder', and 'chicken seasoning powder'.

## 6. Sundry Goods

Miscellaneous goods encompass a variety of items, including hygiene products like 'wet wipes', 'sanitary towels', and 'cosmetics', as well as bathroom essentials such as 'shampoo', 'face soap', 'toothbrushes', and 'toothpaste'. Additionally, the category includes household products such as 'laundry detergent', 'dish soap', 'ballpoint pens', 'paint', and 'pesticides'. Within the wet wipes category, there are four different types of packaging, all of which feature a 'for disinfecting' description. The sanitary towels come in four different types of wrappers, including 'Gogoseong' from Jeongbaek Paper Production Company, 'Baekhwa' from Jeonghong Joint Corporation, and two products known as 'Bongseonhwa' with an unknown factory name.

A total of 15 types of face soap packaging were collected. Factories primarily involved in cosmetics production include Pyongyang Cosmetics Factory, Sinuiju Cosmetics Factory, Bonghak Shinbong Household Goods Factory, Gyeonglim Food and Household Goods Processing Plant, and Seungjeon Trading Corporation. The Ryongaksan Soap Factory produces the largest variety of soap products and is also responsible for shampoo production.



Photo 5. A range of face soap products with diverse additives



## IV. The Implication of North Korea's Daily Necessities Packaging Waste

### 1. Expanding Marketization and North Koreans as Consumers

The variety of packaging features observed in North Korean daily necessities products can be attributed to the 'introduction of a competitive system of production to meet the growing demand from the citizens'. In his work summing-up report to the Seventh Party Congress, Kim Jong Un emphasized the significance of "a timely adoption of advanced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chievements that align with the country's style". He stressed that "every sector and every unit of the national economy should... bring about a production upsurge by utilizing a rapid technological innovation drive and vigorously forging ahead with the socialist competition movement".<sup>6</sup> Furthermore, at the Eighth Party Congress, he highlighted the focus on directing their primary efforts "toward enhancing the quality of products and developing new products by following the principle of quality first, quantity second".<sup>7</sup> Additionally, the implementation of the Enterpris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in 2014 has spurred competition among enterprises, resulting in increased trademark usage and international trademark registrations, particularly among central and provincial-level enterprises (Kim Young-hee, 2021). These developments can further drive motivation to create new products, enhance product quality, and boost sales.

On the other hand, there have been observed 'measures that allowed for the expansion of the market economy system within certain controlled parameters'. North Korea has tacitly embraced the capitalist mechanism of 'Jangmadang' as a response to the de facto collapse of its rationing system, which has been brought about by chronic food shortages, recurrent natural disasters, and international sanctions imposed due to its nuclear program. It can be inferred that the collapse of the state rationing system, coupled with the increasing and diverse consumption desires of the 'Jangmadang Generation' (referring to North Korea's MZ generation), as evidenced by the garbage collected in the Five West Sea Islands,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proliferation and activation of these private markets.



Photo. Depicting Janmadang, located in Hyesan City, Yanggang province, at the border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sup>6</sup> (Rodong Sinmun, 9 May 2016).

<sup>7</sup> (Rodong Sinmun, 9 January 2021).

## 2. Disproportionate Consumption Across Regions and Social Groups

The analysis of North Korean daily necessities packaging waste collected from the Five West Sea Islands reveals a substantial disparity in consumption between Pyongyang and the provinces, indicating a serious imbalance. Notably, an examination of the factory addresses listed on the packaging also demonstrates significant discrepancies. It is worth noting that, with the exception of Gangwon-do (4.4%) and North Hamgyong Province (0.6%) which are located on the east coast, all other provinces are located along the west coast, further exaggerating the imbalance.

Furthermore, there are notable distinctions between the actual finished products traded on the North Korea-China border and the packaging waste collected along the South Korea-North Korea border, both in terms of their type and quality. The North Korean toothpastes the author personally obtained at the North Korea-China border encompass a range of variations, such as vitamin toothpaste, bleached toothpaste, pyridoxine toothpaste, children's toothpaste, salt toothpaste, oriental toothpaste, apple toothpaste, clarifying toothpaste, and ginseng toothpaste. These products exhibit differences in packaging materials and primary ingredients. In contrast, the toothpaste collected from the east and west coasts predominantly consists of 'white crane toothpaste' and lacks distinct product designs. This disparity can be interpreted as a reflection of the differences between products intended for export and those meant for domestic use.



Photo. North Korean toothpastes that the author obtained at the border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 3. Product Advertising and Personal preferences


In a capitalist market economy, advertising plays a pivotal role in influencing consumer choices. Notably, typefaces possess a distinct advertising effect of their own. This holds true even in the case of North Korea, where product promotion takes place, with typefaces serving as a significant factor in creating demand.

Typeface plays a crucial role in distinguishing the key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goods. The products examined in this study showcase distinct typefaces for each individual item, with minimal overlap observed between them. For instance, in the confectionery category, specifically chocolate, different typefaces are used depending on the specific factory. This practice is distinguished from traditional trademarks, as the same product name is printed in varying typefaces. Moreover, even products originating from the same factory employ different typefaces based on the specific type of chocolate. For example, 'pineapple-flavored chocolate' and 'coffee-flavored chocolate' produced by Unha Daesung Food Factory are designed with distinct typefaces, corresponding to the respective chocolate flavors produced by the same factory. Similarly, chocolates manufactured by Gyeongheung Eunhaesu Food Factory exhibit diverse packaging fonts according to the types of additives used.

Table 6. Different 'chocolate' typefaces for different products

Category	Factory	Brand	Typeface
1	Unha Daesung Food Factory	Daeha	
2	Unha Daesung Food Factory	Daeha	
3	Gyeongheung Eunhaesu Food Factory	Kyungheung	



4	Gyeongheung Eunhaesu Food Factory	Kyungheung	
---	-----------------------------------	------------	--

#### 4. Products for Specific Consumer Groups

The packaging of North Korean products promotes the product's features, including targeted advertisements tailored to specific consumer groups. For instance, on the packaging of the walnut danseolgi product manufactured by the Soorim Food Factory, the following message is printed: "For those who greet the new day, especially university students who work hard and office workers".



The packaging of powder soap, specifically the laundry detergent produced by the Cheolgun Trading Corporation, includes the phrase "A friend to women." This phrase, along with other statements highlighting the efficacy of the detergent, such as "Removes dirt once and for all" and "Soak and the dirt is gone," can be interpreted through the lens of gender roles reinforcement, depicting women as the primary individuals engaged in laundry tasks.



#### **IV. Conclusion**

This study conducted an analysis of North Korean household packaging waste collected from the Five West Sea Islands and the east coast of Korea. The primary objective was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and distinct features of individual products, while also delving into their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implications. Daily necessities, including baked goods, beverages, and miscellaneous items, were categorized, and their unique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Typically, product wrappers bear information such as the factory name, production date, and main ingredients, providing valuable insights into the current state of the North Korean consumer goods sector.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the characteristics observed in North Korean products can be summarized as reflecting 'increasing marketization' and the 'emergence of North Koreans as consumers'. A noteworthy feature found on the packaging of North Korean products is the presence of the word 'Kukkyu', which denotes the national standard and this indicates the level of automation and standardization achieved in the production process. The introduction of national standards, coupled with efforts to enhance product packaging quality through improved designs and the use of fonts that reflect product-specific features, suggests a desire to compete in the market. Furthermore, the virtual collapse of the rationing system has led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to tacitly embrace elements of the capitalist mechanism known as 'Jangmadang'. Consequently, they have had to accept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products by enterprises. As a result, these products, which circulate through the Jangmadang, provide evidence that North Koreans can now be viewed as consumers with individual preferences.

The social characteristics identified can be summarized as the presence of an unbalanced production and consumption patterns, which are influenced by regional and class disparities. Analysis of North Korean product packaging collected from the Five West Sea Islands revealed that more than 60% of the products originated from Pyongyang. This once again underscores the ongoing imbalance between Pyongyang, the capital city, and the remaining regions of North Korea.



**Businesses and Consumer Life**

## **Session III.**

**Discussion 02**

### **Exploring North Korean Consumption Patterns**

**Analysis of the Packaging of North Korean Daily Necessities  
Collected from Korean Border Regions**

---

**Choi Seol**

Radio Free Asia



**Feminism with Focus on Changes in North Korean Society**





## **Session III**

### **[Discussion]**

#### **Exploring North Korean Consumption Patterns: Analysis of the Packaging of North Korean Daily Necessities Collected from Korean Border Regions**

**Choi Seol (Radio Free Asia)**

This presentation is important as it offers empirical evidence of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s within the North Korean economy, derived from an analysis of packaging waste from everyday items, collected from the Five West Sea Islands and the east coast of North Korea. The analysis of these materials serves as a subtle barometer, gauging the extent to which the intensifying localization of food products in North Korea is fostering diversity as the market evolves, and revealing disparity in food consumption levels among different social strata.

Notably, the identification of product manufacturers through food wrapper examination presents an insight into the resilience of the North Korean economy amidst prolonged sanctions. This research methodology carrie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North Korean scholars seeking to navigate the challenges of limited accessibility to information, and thereby circumventing the constraints of existing data.

The presentation scrutinized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baked goods, beverages, and other miscellaneous items by examining collected packaging waste and conveyed the economic and social attributes of North Korea using the information available on the packaging, such as the production facilities, production dates, and main ingredients. The economic trends unearthed through the analysis of everyday waste encapsulate the 'increasing marketization' and the 'emergence of North Koreans as consumers'.

This presentation's primary limitation is its focus on micro-level changes in North Korean marketization through a detailed analysis of daily necessities packaging, rather than concentrating on the consumption behavior of North Koreans. Drawing upon my extensive experience and research as a North Korean defector journalist and a researcher on North Korean markets, I propose augmenting the presentation with the following: 1) the differentiation of production entities, 2) concentration of product types, 3) market competition in the national standard design<sup>1</sup>, and 4) monopoly of supply.

#### **□ Differentiation of Production Entities**

<sup>1</sup> Regulations concerning trade names and nutritional content, approved at the state level.

Firstly, the analysis of discarded product packaging reveals an increasing diversity of production organizations. In the past, North Korean production was primarily state-planned. However, structural shifts emerged in the 2000s due to the increased autonomy of enterprises, trade decentralization,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general markets. The pool of producers has expanded beyond state-owned enterprises to include trading corporations, local governments, and individuals. The categories of producer are now transcending both formal and informal sectors to emerge as a significant contributor to the national tax base. While this trend promotes the marketization of the planned economy, it also maintains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with planned production.

For instance, photo 4, which displays an array of Eskimo wrappers, reveals the variety of 'Oh Il's' production sites, such as the 'Oh Il Health Drink General Factory', 'Oh Il Combined Processing Plant', and 'Oh Il Trading'. The term 'Oh Il' presumably refers to '1 May'. Considering that most numbered production sites in North Korea are associated with the 'Je2 economy' or the military economy, this provides evidence that the military is directly involved in diverse food production. This development signifies a horizontal diversification of the North Korean production base, which had primarily been expanding vertically. Notably, one of the production sites printed on the Eskimo wrapper in photo 4 is the 'Bukchang Daeheung Coal Mine'. This indicates that a state-owned coal mine has established its own food production base and is marketing in-demand Eskimo products. Such an arrangement suggests the marketization of state-owned coal mines and demonstrates how coal production plans of state-owned mines, which are expected to supply feedstock to thermal power plants for energy generation, are intricately linked with the market.

#### □ Concentration of Product Types

The presentation segregates daily necessities into three categories: baked goods, beverages, and sundries, and conducts a detailed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unique to each category. Table 1 offers a prioritization of production: beverages take precedence, followed by baked goods, then seasoning. While this ranking is a projection based on wrapper waste, it holds some merit, underlining North Korea's challenges with energy and the procurement of raw and subsidiary materials. Essentially, this indicates that sectors such as beverage processing and baking, which require comparatively less energy and have a smoother supply chain for raw and subsidiary materials, tend to be more productive than others. For instance, 'Jusu danmul' is packaged in plastic packs and PET bottles. The product makes use of raw materials that are either locally sourced North Korean fruits or flavoring ingredients imported from China, which are not challenging to procure. North Korea also produces its own plastic packaging, and many plastic bottles are recycled.

Turning to baked goods, the primary ingredients – flour and sugar – are imported from China, facilitating the production process in North Korea.

In contrast, as the presentation illustrates, the volume of candy wrappers within the collected waste is relatively low. Why might this be? Firstly, candy production requires more electricity than baking. Secondly, as income levels rise, the preference for candy tends to decrease. This shift impacts how baked goods and confectionery are packaged. Wealthier residents are likely to purchase smaller quantities more frequently, resulting in higher-end baked goods being packaged individually. Examples of this trend include products like chocolates and wafers.

## □ Market Competition in the National Standard Design

All the food wrappers collected in this presentation bear a 'Kukyu' (National Standard) mark. This signifies the existence of a state licensing system concerning the quality and design of the products. The presentation indicates that 'efforts to enhance product packaging quality through improved designs and the use of fonts that reflect product-specific features, suggests a desire to compete in the market'. However, I propose a more detailed explanation: this trend signifies market competition among different production entities.

In the early 1980s, even the Ryongsong Food Factory in Pyongyang, one of North Korea's leading food producers, only included the factory's name and sizes on its food packaging. However, as food supplies in Pyongyang began to dwindle in the late 1980s and the country started importing foreign food, North Korea shifted its focus to packaging design. This change also corresponded with the introduction of design materials related to industrial art from capitalist countries through North Korean embassies worldwide.



Figure 1. North Korean waffles product whose production location has been identified by QR code scan: (Source: Choi Seol)

Indeed, the evolution of North Korean food packaging design began with, and was influenced by, capitalist products. With the market's development in the 2000s, the number of producers has increased, prompting a competitive environment for companies to differentiate their products.

The design process for food packaging involves a national organization that approves trademarks and an industrial art studio that generates designs. The quality and price of the product are contingent upon 'Kukyu' and 'Dokyu' (county standard)<sup>2</sup>. This process engages with the informal market on several levels. For example, there are noticeable visual differences between the 'waffle' wrapper showcased in the paper and the 'waffle' wrapper displayed in the

<sup>2</sup> Regulations concerning trade names and nutritional content, approved at a county level.

presentation. This observation is further substantiated by the fact that scanning a barcode on the same packaging might or might not disclose the manufacturing location.

#### □ **Monopoly of Supply by Pyongyang**

The presentation posits that the wrappers of North Korean daily necessities indicate a societal divide in North Korea, specifically the imbalance of consumption (and production) by region and class. This inference stems from the fact that over 60% of the production addresses printed on the wrappers are in Pyongyang. Additionally, except for Gangwon-do (4.4%) and North Hamgyong Province (0.6%) which are located on the east coast, all other provinces are situated along the west coast, thus exacerbating the imbalance.

However, I propose that instead of focusing on the imbalance, it is worthwhile concentrating on the path dependency arising from the centralization of the production base in the capital.

Traditionally, North Korea's industrial base has been bifurcated: the western plains of the country have cultivated a strong foundation in manufacturing, particularly light manufacturing, whereas the eastern region primarily hosts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The western part of the country benefits from an efficient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which has proven advantageous for population flow and logistical movement following marketization. Utilizing location as a market resource has spurred the growth of producers outside the planned economy, primarily expanding the light industrial base, which exhibits the fastest consumption rates. Light industry requires less capital than heavy industry, and the nature of consumer goods means that money circulates rapidly. Pyongyang, housing central government institutions, including the Party, military, government, and privileged trading corporation headquarters, expedites licensing and boasts a particularly well-developed private finance market. These factors make it attractive for individual investors.

The chocolate production bases listed in Table 6 of the presentation, the Unha Daesung Food Factory and the Gyeongheung Eunhaesu Food Factory, are also known to be organizations under the control of the Party. This suggests that the North Korean economy is currently more successful in light industry than heavy industry, excluding the munitions industry. Moreover, it indicates that Pyongyang dominates the nation's consumer goods market due to the concentration of suppliers in the capital.

Thus, assessing the state of North Korea's economy through the packaging waste of everyday household items can provide crucial insight into the resilience of North Korea's economy amidst prolonged sanctions.

Culture and Music Politics

## **Session IV.**

**Presentation**

# **A Historical Study of North Korean Art**

**Exploring Grand Performances as  
a Vehicle for Regime Propaganda**

---

**Choi Geum-hee**  
Daegu Catholic University



**Feminism with Focus on Changes in North Korean Society**



## Session IV

### [Presentation]

# **A Historical Study of North Korean Art : Exploring Grand Performances as a Vehicle for Regime Propaganda**

**Choi Geum-hee (Daegu Catholic University)<sup>1</sup>**

## **I. Introduction**

The emergence of North Korea's culture and art as a powerful tool for promoting the regime can be traced back to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Federation of Literature and Arts (KFLA) on 15 March 1946. After Korea regained independence in 1945, the Korean Federation of Literature and Arts (KFLA) assumed a crucial role in disseminating propaganda that supported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 Korean regime. Their role was further clarified when the 43rd Presidium of the Political Bureau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issued the code of practice for the KFLA.<sup>2</sup>

North Korean art encompasses various genres, with a notable focus on mobilizing numerous artists for performances on significant national memorial days. These performances range from individual music groups to more collaborative endeavors. Prominent groups include the Mansudae Art Troupe during Kim Il-sung's era and the Pochonbo Electronic Ensemble, and Wangjaesan Light Music Band, of Kim Jong-il's era.

Under the current Kim Jong-un regime, the political use of music gained significant momentum with the performance of the Moranbong Band in July 2012. As in the eras of Kim Il-sung and Kim Jong-il, music and art continue to play a central role in propaganda and demagoguery. However, the distinctive feature of the Kim Jong-un era is the frequent occurrence of 'grand performances' in addition to individual music group performances and joint collaborations.

This study notes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number of grand performances during the Kim Jong-un era when compared to the era of Kim Jong-il. The most recent grand performance

<sup>1</sup> Lecturer in Humanities, Daegu Catholic University, Ph.D. student, E-mail: cgh0925@cu.ac.kr

<sup>2</sup> The five codes of practice for the KFLA, as outlined by the 43rd Presidium are as follows. (Kim Moon-hwan, 1990, *Art in North Korea*, p. 21.)

- ① It must serve the Party and the people.
- ② It should function as an ideological weapon to educate the working people and promote advanced consciousness.
- ③ It should accurately reflect the policies of the party and the state.
- ④ It should preserve and build upon national cultural traditions while actively developing progressive cultural heritage.
- ⑤ It must actively combat bourgeois ideas and strive to discover and create new national forms that align with socialist ideology.

was held on 9 September 2022 in celebration of the 74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state. This seventh grand performance, since Kim Jong-un assumed power, showcased unconventional elements, including a singer with full bangs and female singers in trouser suits instead of traditional hanboks or dresses. This marked the first instance of female singers appearing in trouser suits at an art performance in North Korea, and was contrary to the intentions expressed in the 'Reactionary Ideology and Culture Rejection Act'<sup>3</sup> issued b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in December 2020. The intention of Kim Jong-un and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to publicise this change is evident, as grand performances are broadcasted to the entire population of North Korea through Korean Central Television (KCTV).

Previous related literature, such as Jeon Young-sun (2007, 2012), Kim Jae-yup (2011), Jeong Young-cheol (2012), Kim Jong-soo (2019), Bae In-gyo (2015), and Cho Hyun-sung (2019), have examined the politics of music within the context of North Korean culture and art policies. They have analyzed both one-off performances and performances by individual music groups, highlighting the utilization of music and art as political instruments. Studies specifically focusing on grand performances include Ha Seung-hee's (2019) exploration of the Grand Art Performance celebrating the 70th Anniversary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titled 'Great Party, Glorious Korea', as well as Kang Dong-wan's (2021) studies on the Moranbong Band and the grand performance commemorating the eighth party congress. However, despite these contributions, comprehensive research on grand performances remains limited.

The aforementioned studies are significant as they offer a cross-sectional analysis of policies and political messaging through individual performances or specific music groups. They provide valuable insights into the political stances and actions of the Kim Jong-un era. However, there is a growing need for research that specifically examines the political function of grand performances within North Korean art.

This study aims to conduct a historical analysis of grand performances, examining their function and role as instruments of governance. Additionally, it seeks to explore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grand performances under the leadership of Kim Jong-un.

## **II. Research Methodology**

This study addresses the scarcity of research on the performing arts in North Korea by employing the following research methodology. Firstly, to establish a foundation, a repeated tracking analysis was conducted on literature pertaining to the performing arts from September 1947, marking the birth of the North Korean regime, up to the era of Kim Jong-il. Through an analysis of North Korean literature, the concept of a grand performance was defined, and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grand performances during the reigns of Kim Il-sung and Kim Jong-

<sup>3</sup> In December 2020, North Korean authorities implemented the Reactionary Ideology and Culture Rejection Act with the aim of eliminating foreign culture, religion, capitalist influences, and specifically targeting the Korean wave phenomenon. Article 32 of this act stipulates that "individuals who engage in speaking or writing in the South Korean style, singing in the South Korean style, or utilizing the South Korean typeface for printing shall face imprisonment with labor for a maximum period of two years." (Joo Seong-ha, 12 February 2021, New Year beginning with the Reactionary Ideology and Culture Rejection Act,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joosungha/co-sh-02122021085447.html](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joosungha/co-sh-02122021085447.html), retrieved 15 May 2022)



il was examined. Secondly, actual recordings of grand performances were analyzed to gain insights into their specific characteristics. Finally, in order to enhance the validity of the stud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North Koreans who had defected during the Kim Jong-un era (2017-2019).

### **III. Research Results**



#### **1. The Concept of a Grand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definition provid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s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a performance is described as "the presentation of music, dance, play, or other forms of entertainment to a large audience"<sup>4</sup>. In other words, a performance can be defined as the public exhibition of an art form, encompassing music, dance, or theater, which occurs on a designated stage.

Based on South Korea's 'Integrated Computer System of Performing Arts, the primary categories of performances include plays, musicals, classical music, opera,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dance. Additionally, there is a category labeled "Other," which encompasses special performances, special concerts, or combined genres, such as special occasion concerts. In contemporary South Korea, recitals and concerts have expanded beyond classical music and now encompass a wide range of formats, including Korean traditional music concerts, trot concerts, and hybrid performances that combine classical and popular music. Examples of such hybrid performances include the KBS1 Gayo Stage.

In North Korea, concerts differ in format from those in the South, which typically feature a few singers taking turns to perform, accompanied by a small group of dancers who present simple dance performances, or music is played without any vocalists. A noteworthy example is the Lunar New Year Concert, held annually on New Year's Day. On traditional holidays and celebratory occasions, individual or joint performances by various music groups and symphony orchestras are frequently organized. Moreover, outdoor concerts resembling the South Korean TV music program, Open Concert, are also held in North Korea.

<sup>4</sup>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s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retrieved 14 November 2022

	
<p>Figure 1. Screenshot of the performance titled "Our Rewarding Workplace" by the all-female folk song quartet during the May 2010 concert of the Unhasu Orchestra. (Video capture)</p>	<p>Figure 2. Screenshot from the grand performance titled "We Will Be Loyal Down through Generations" celebrating the Day of the Shining Star on 16 February 2012. (Video capture)</p>

What sets North Korean grand performances apart from general concerts is the cohesive narrative that ties the entire program together. Unlike regular concerts where the performers may be displayed on the back screen, grand performances do not feature the performers. Instead, the back screen of grand performances is filled with visuals that support the narrative of the performance. These visuals often include images of North Korean leaders providing 'on-the-spot guidance' and scenes depicting factories and rural areas (see Figure 1 and Figure 2).

Presently, the *Great Korean Encyclopedia* of North Korea does not appear to provide a specific definition of the term "grand performance." However, the concept of a grand performance can be inferred by examining North Korean literature on music, culture, and art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regime on 9 September 1948 to the present day. Initially, the concept of grand performances emerged in the form of musical-dancing epics<sup>5</sup> during the era of Kim Il-sung. With the guidance and influence of Kim Jong-il, it underwent further development and eventually evolved into the current form of grand performances during the eras of both Kim Il-sung and Kim Jong-il.

<sup>5</sup> According to the *Great Korean Encyclopedia* of North Korea, the term 'musical-dancing-epic' denotes a large-scale comprehensive art form that utilizes music and dance as its fundamental elements to portray significant historical events and facts on an expansive canvas. The musical-dancing-epic emerged as a newly developed art form in North Korea in Juche 47 (1958), drawing upon the glorious tradition of literary arts established during the remarkable anti-Japanese revolutionary struggle led by the great leader Kim Il-sung, as well as the subsequent achievements in literary arts that flourished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This art form organically integrates various expressive mediums, including choral singing, dance, poetry recitation, orchestral music, and theater arts, to create an epic that reflects pivotal historical events... The musical-dancing-epic format found its inception in the acclaimed piece "Glorious Our Country," which was awarded with the People's Prize. Subsequently, the development and refinement of the musical-dancing-epic form continued with the creation of 'Song of Glory', a work that skilfully incorporated and enriched the achievements of the revolutionary opera style exemplified by 'Sea of Blood' and the music-dance story 'Song of Paradise'. (*Great Korean Encyclopedia*, p. 406, Samilpo Information Center's Electronic Dictionary 2001-2005)

During his guidance on the organization of the grand performance titled "Song of Wishes," the Dear Leader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adhering to the unique format of North Korea's music and dance performance and upholding ideological ideals<sup>6</sup>. He highlighted the distinction between a conventional concert and a grand performance, emphasizing that while a concert... typically comprises separate programs lacking a cohesive connection in its content, a grand performance encompasses a comprehensive music and dance presentation with an epic narrative. The Dear Leader further underscored the longstanding tradition of holding grand performances during nationally significant political events, and emphasized that the format of grand performances is distinct from conventional concerts, which mechanically combine various music and dance elements without a unified narrative structure. (*KOREA Yearbook of Music*, 1993: 16)

According to Kim Jong-il, "the purpose of organizing grand performances that involve a large number of artists extends beyond simply staging an event. Their primary objective is to showcase the performance to the people and thereby foster loyalty among them. Therefore, the grand performances should be presented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allowing a large number of people to witness them."<sup>7</sup> This statement implies that the core purpose and function of grand performances in North Korea is to exalt the leader and foster a deep sense of loyalty and unwavering devotion among the North Korean populace.

Through an examination of the concept of performance and an analysis of musical-dancing-epics and grand performances in North Korean literature, this study establishes the following definition of the term 'grand performance'.

**A grand performance** is a multidisciplinary artistic form that organically integrates various elements, such as music, dance, recitals, stage backgrounds, narratives, and mass games, in order to convey a political message with an epic narrative. These performances are specifically conducted on national commemoration days, such as the ruler's birth anniversary or the anniversary of the regime's establishment. The content of the narrative of grand performances varies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commemorative event, encompassing themes related to the ruler's life, ideology, accomplishments, and the historical trajectory of North Korea under their leadership. The fundamental purpose of grand performances is to instill North Koreans with loyalty and educate them on ideological principles.

## 2. The Development of Grand Performance as a Cultural and Art Form

In North Korean literature, the development of grand performances is traced back to the musical-dancing-epic titled 'Glorious Our Country', which was staged in 1958 to commemorate the 20th anniversary of the republic's founding. However, it was not until 15 April 1987 that the term 'grand performance' first appeared in the title of a celebratory performance honoring Kim Il-sung's 75th birthday, entitled '5,000 People's Grand Performance "Song of Happiness"'. This

<sup>6</sup> According to North Korean literature, the concept of "ideological ideals" refers to the revolutionary history of Kim Il-sung.

<sup>7</sup> *KOREA Yearbook of Music*, 1993. Art and Literature Publishing House, 1995, p. 16.

study examines the history of grand performances, considering 'Glorious Our Country' as the starting point for their development.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on the history of grand performances in North Korea, it can be concluded that grand performances are a distinct form of performing arts, unique to North Korea. These performances combine nearly all the genres of music and arts into a singular political narrative. Throughout the three generations of rule under Kim Il-sung, Kim Jong-il, and Kim Jong Un, a total of 12 grand performances have been produced. Among these, seven were organized during the era of Kim Jong-un, while the combined reigns of Kim Il-sung and Kim Jong-il witnessed five grand performances. It is notable that the era of Kim Jong-un has seen the highest number of grand performance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 Korean regime. Jeong Young-chul argues that the nature of North Korea's political system, where power is automatically transferred to the heir without undergoing the process of being elected by the majority of the people, leads to the leader being more focused on post-election valid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popular authority rather than the electoral process itself. The sudden death of Kim Jong-il created a sense of urgency, resulting in the succession being perceived as a "compressed process" or a "leap," as the new leader had limited time to establish their leadership qualities and popular charisma<sup>8</sup>.

Table 1. List of Grand Performances in North Korea (September 1948 - October 2022, compiled by the author)

No	Date	Format	Title	Era
1	9 September 1958	Musical-dancing-epic celebrating the 20th anniversary of the republic	Glorious Our Country	Kim Il-sung's era
2	15 April 1982	Musical-dancing-epic celebrating Kim Il-sung's 70th birthday	Song of Glory	Kim Il-sung and Kim Jong-il's era
3	15 April 1987	Grand performance honoring Kim Il-sung's 75th birthday	Song of Happiness	
4	15 April 1992	Grand performance honoring Kim Il-sung's 80th birthday	Song of Wishes	
5	23 August 2010	Music and dance grand performance celebrating the 50th anniversary of the Day of Songun	10 Million Miles of Songun Victory	Kim Jong-il and Kim Jong-un's era
6	16 February 2012	Grand performance celebrating the Day of the Shining Star	We Will Be Loyal Down through Generations	The Kim Jong-un Era
7	15 April 2012	Grand performance honoring Kim Il-sung's 100th birthday	Let Us Live with the Leader for a Thousand	

<sup>8</sup> Chung Young-chul, "The Launch of the Kim, Jong-un Regime and it's Challenges : the Construction of Charismatic Leadership and the Improvement of the People's Life", *North Korean Studies Review*, volume 16, no. 1,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 2012. pp. 4-5.

			and Ten Thousand Years	
8	25 April 2012	Grand performance celebrating the 8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Korean People's Army	Glory Be to the Heroic Soldiers of the Korean People's Army!	
9	10 October 2015	Grand performance celebrating the 70th Anniversary of the party's founding	Great Party, Glorious Korea	
10	3 December 2020	Grand performance celebrating the 8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I Sing in Praise of the Party	
11	15 April 2022	Grand performance honoring Kim Il-sung's 110th birthday	Songs of the Eternal Sun	
12	9.9.2022	Grand performance celebrating the 74th founding Anniversary of the DPRK	No title	

In summary, the role and political functions of grand performances in North Korean art have evolved over time.

During Kim Il-sung's era, grand performances were utilized as ideological tools to promote Kim Il-sung's achievements and mobilize the North Korean population in the construction of a socialist system. In Kim Jong-il's era, grand performances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succession of power by establishing and reinforcing **ideological ideals**<sup>9</sup>. In the Kim Jong-un era, grand performances have shifted the emphasis towards the state, gradually erasing the image of the previous leaders. These performances now encompass richer political and ideological narratives by incorporating digital storytelling, reflecting global trends, acknowledging heightened public expectations, and employing the advances in stage arts and broadcast technology. Consequently, the grand performances of the Kim Jong-un era serve as a political strategy that exhibits Kim Jong-un's confidence in presenting North Korea as a 'normal country'.

<sup>9</sup> Kim Jong-il: "To achieve effectiveness, literary and artistic works should embody ideological ideals that align with the intentions of their creator. By doing so, these works can convey a clear ideology and have educational value in promoting political ideas among the people. This is particularly crucial in the context of musical-dance performances, where multiple music and dance pieces are combined to tell a cohesive narrative. Similar to how a house cannot be built without erecting pillars, a work of cultural significance cannot be created by merely assembling a collection of songs and dance pieces without establishing ideological ideals." (*The Gifted in Literary and Art*, 1989: 403)

#### IV. Conclusion

Through an examination of the evolution of grand performances, it becomes evident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has strategically utilized them as political events to foster unity among the populace during times of crisis. These performances extend beyond mere artistic displays; they serve as indispensable rituals within the expansive religious organization that characterizes North Korea. Émile Durkheim's concept of religion as a social institution illuminates the interdependence between religious rites and societies. Just as religions require rites to sustain and flourish, societies also need such rites in order to maintain their own existence. The preservation of a community is a sacred endeavor, inherently entwined with the practice of rites<sup>10</sup>. The sacredness, rites, and community are therefore interconnected. Consequently, according to a Durkheimian framework, Kim Jong-un's domain assumes the dual role of both religion and community, with grand performances serving as sanctifying rites. If Durkheim's contention that societies and religions cannot endure or prosper without rites holds true, then grand performances emerge as an integral rite and a political tool within Kim Jong-un's governing strategy.

As long as the North Korean regime remains in power, the rites of grand performances will endure, continuously evolving and adapting to serve political objectives. This study, which explores grand performances across the eras of Kim Il-sung, Kim Jong-il, and Kim Jong-un, is anticipated to enrich our understanding of the political functions of grand performances as a ritual.

<sup>10</sup> According to Durkheim, "if rituals are indeed essential for the survival and prosperity of a society, it becomes evident that a community cannot exist without religion. While religious ideas may be subject to questioning, religious rites are bound to endure. The very existence of society relies on the presence of rituals, thereby perpetuating religion. *Eight Theories of Religion*, Daniel L. Pals, translated by Cho Byung-ryeon and Jeon Joong-hyun, 2013, Korea Christian Institute, Chapter 3, p.201.

Culture and Music Politics

## **Session IV.**

**Discussion 01**

# **A Historical Study of North Korean Art**

**Exploring Grand Performances as a Vehicle  
for Regime Propaganda**

---

**Brian Reynolds Myers**  
Dongseo University



**Feminism with Focus on Changes in North Korean Society**





## **Session IV**

### **[Discussion]**

#### **A Historical Study of North Korean Art :Exploring Grand Performances as a Vehicle for Regime Propaganda**

**Brian Reynolds Myers(Dongseo University)**

Universities around South Korea are now seeking to reduce the size of their humanities departments, or even to shut them down entirely. In times like these, it is good to be reminded of the many practical benefits to be had from the study of culture. It becomes especially important when we approach secretive states like North Korea. As the author of this informative paper states in her introduction, “there is a growing need for research that specifically examines the political function of grand performances within North Korean art.” Accordingly, her study sets out to examine the role of “grand performances” as instruments of governance.

Evidently this term dates back to 1987, when the term appeared in the title of a performance honoring Kim Il Sung’s 75<sup>th</sup> birthday on April 15. The paper contains a useful table of “grand performances” throughout history which makes clear that they have become much more common occurrences under Kim Jong Un (7 so far) than they were during the rule of Kim Il Sung and Kim Jong Il (a total of 6).

Yet this table raises questions too. My first question: If the first “grand performance” took place on the republic’s 10<sup>th</sup> anniversary in 1958, decades before the relevant term was coined, what were the author’s criteria for designating it as a “grand performance”?

My second (related) question: Are we really to understand that there were no large-scale, politically-themed concerts between 1958 and 1982? I find it hard to believe that there were not, considering how the personality cult blossomed between 1967 and 1972, a period so transformative as to merit being called a cultural revolution.

And this in turn raises my third question: Are we really seeing, under Kim Jong Un’s rule, an increased frequency of high-profile, large scale concerts devoted to political themes? Or are we instead seeing only increased use of the hyperbolic term “grand performance” for events that have always taken place quite routinely in North Korea?

I found useful the author’s description of how grand performances have changed over time. “During Kim Il-sung’s era, [they] were utilized as ideological tools to promote Kim Il-sung’s achievements and mobilize the North Korean population in the construction of a socialist system. In Kim Jong-il’s era, [they]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succession of power by establishing and reinforcing ideological ideals. In the Kim Jong-un era, [they] have shifted the emphasis towards the state, gradually erasing the image of the previous leaders.”

Hollywood movies entertain us with different topical fare from decade to decade, so their

content has certainly evolved, but their basic function of entertainment for profit remains the same as it was in 1923. Similarly, the function of North Korea's "grand performances" remains essentially the same as always, namely, to propagandize whatever message the regime wants to have propagandized at a certain time. Since 1945 North Korean art, music and literature have been committed to "party spirit" (*dangseong*), which was originally one of the socialist realist postulates imported from the USSR. In practice it means the orchestrated delivery of the party line of the day. Even under Kim Il Sung, therefore, there was quite a lot of change in artistic content from the 1940s to the 1990s.

The paper conveys the impression that North Korea's grand performances differ from concerts in South Korea (and by implication, other countries) in that a "cohesive narrative ... ties the entire program together." The author provides a quotation from a North Korean yearbook (1993) that refers to the "unique format of North Korea's music and dance performance," which invites the reader to assume that concerts with varied genres and a cohesive, overarching narrative are unique to North Korea. I agree that there is no thematic unity or political message in South Korean "general concerts" such as the popular "trot" shows now proliferating on cable television. But we must keep in mind that most of the "grand performances" in North Korea are linked in some way to special anniversaries, as the author's helpful table indicates.

The question should therefore be: Are South Korean anniversaries marked by narratively cohesive concerts too? When it comes to the March 1 holiday, the answer is yes. Last March, for example, a televised event organized to commemorate the 104<sup>th</sup> anniversary of the 3.1 Uprising consisted of a mix of songs, dances and speeches, all devoted to the very same narrow theme. (Indeed, even many of the preceding commercials featured the Korean flag and other relevant motifs.)

Of course, South Korean commemorative events tend to feature more speechifying and less music than the North Korean "grand performances." A more important difference: encouraging pride in the race-nation (*minjok*) is very different from encouraging pride in both the race-nation *and* the state (*gukka*) at the same time. Although paid for with state taxes, the March 1 performances do not serve a state-strengthening function; in fact, nationalism tends to conduce to feelings of racial brotherhood with North Korea. Many South Koreans believe that Syngman Rhee's proclam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1948 was a betrayal of the race. (The combination of nationalism and anti-state spirit recalls Weimar Germany.)

Therefore, despite claiming to be a multi-cultural society, South Korea celebrates the race-nation much more than the state. It is significant that the *ethnically* important National Foundation Day (October 3) is a no-work public holiday while Constitution Day (July 17) ceased being one during Lee Myung-bak's presidency, in 2008. There are no true republican holidays in South Korea, just as there are no republican figures on the currency, nor any statues of republican figures in public places. Even the yin-yang flag and Rose of Sharon seal are ethno-national symbols that communicate no political or republican values. The same is true of the national anthem. South Korea is perhaps unique among the world's republics in this respect. (Not surprisingly, South Koreans do not identify strongly with their state; my students are very proud of the sports and cultural achievements of the *minjok*, but when I ask if they are proud of the ROK they laugh.)

This may be why South Korean researchers of North Korea tend to marvel more at the state-centricity of North Korea's official culture than people in other countries do. I still routinely

encounter South Korean academic papers that purport to analyze this or that genre or sub-genre of North Korean art, yet do not go much further than stating the obvious, namely, that North Korean culture serves the personality cult and thus the regime.

To speak of my own country, the United States: Independence Day concerts (on July 4) are in many ways quite similar to North Korea's "grand performances." They tend to be large-scale, pompous spectacles that a) possess a cohesive narrative, b) entail performances in varied genres, and c) serve the function of strengthening citizens' identification with the state. Even though the USA is not explicitly equated with the occupant of the White House, the president is often in smiling attendance (or makes an appearance via video), and the general effect of these celebratory performances is to encourage support for contemporary policy -- the military's overseas endeavors in particular. (To borrow a North Korean term, one could describe July 4 as a *seongun* or military-first holiday.)

My point is that what appears to the writer of this interesting paper to be the uniqueness of North Korea's "grand performances" is in fact the uniqueness of the state which they glorify: a family-owned, military-first, ultra-nationalist, *de facto* monarchy -- a far-right state, in other words -- posing as a socialist republic. Naturally the songs and dances conceived to glorify such a strange system are going to be quite different, and convey quite a different mood, from the acts staged to celebrate a liberal democracy or a multi-ethnic state. Nevertheless, the main function of the North Korean and American performances is essentially the same.

The paper finishes with a very thought-provoking conclusion about how, "according to a Durkheimian framework, Kim Jong-un's domain assumes the dual role of both religion and community, with grand performances serving as sanctifying rites. If Durkheim's contention that societies and religions cannot endure or prosper without rites holds true, then grand performances emerge as an integral rite and a political tool within Kim Jong-un's governing strategy."

I agree with this intriguing statement, and would have liked to see the author elaborate on it in the main body of the paper, perhaps with specific reference to elements that the author considers especially comparable to aspects of religious rites. (No paper on North Korean performances is complete, in my opinion, without at least one textual excerpt from the songs sung.)

But despite these criticisms, which I hope the author accepts as constructive,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I learned a lot from the paper, and particularly enjoyed the lucid and jargon-free prose in which it is written. I would like to commend the author for shining a light on an aspect of North Korea's official culture that merits our attention, and look forward to reading more of her work in the future.



Culture and Music Politics

## **Session IV.**

**Discussion 02**

### **An Historical Study of North Korean Art**

**Exploring Grand Performances as a Vehicle  
for Regime Propaganda**

---

**Jeon Young-sun**

Institute of Humanities for Unification, Konkuk University



**Feminism with Focus on Changes in North Korean Society**



## **Session IV**

### **[Discussion]**

#### **An Historical Study of North Korean Art : Exploring Grand Performances as a Vehicle for Regime Propaganda**

**Jeon Young-sun (Institute of Humanities for Unification, Konkuk University)**

○ Thank you for your presentation. Your discourse skillfully encapsulated the fundamental tenets and evolution of North Korean art. While I concur with the research question and overall direction of the paper, the breadth of the subject matter presents a significant challenge. The subject of 'grand performances' is too expansive to be adequately addressed within the confines of a brief presentation. Consequently it seems, regrettably, that the full extent of the researcher's endeavours might not have been fully demonstrated in the presentation.

○ I concur with the general direction of this research, yet I find it appropriate to offer a few observations consistent-with my role as a discussant.

- Primarily, in the conclusion, the researcher posits, "Through an examination of the evolution of grand performances, it becomes evident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has strategically utilized them as political events to foster unity among the populace during times of crisis. These performances extend beyond mere artistic displays; they serve as indispensable rituals within the expansive religious organization that characterizes North Korea." This, I believe, mirrors the research question that initially sparked the inquiry. The presenter further revealed that, "This study notes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number of grand performances during the Kim Jong-un era when compared to the era of Kim Jong-il," and "This investigation commences by probing the question: what signifies the changes in and characteristics of grand performances during the Kim Jong-un era?" The emphasis placed on 'grand performances' among many diverse performing art forms, I imagine, emerges from the proposition that it is not merely a performance but a 'religious ritual engineered to weather crises.' If this is the case, anchoring the narrative around North Korea's grand performances could potentially enhance the clarity and focus of the researcher's argument.

- Secondly, certain aspects of the argument warrant further scrutiny. For instance, the presenter highlights that, "In North Korean literature, the development of grand performances is traced back to the musical-dancing-epic entitled 'Glorious Our Country', which was staged in 1958 to commemorate the 20th anniversary of the republic's founding. However, it was not until 15 April 1987 that the term 'grand performance' first appeared in the title of a celebratory performance honoring Kim Il-sung's 75th birthday, entitled '5,000 People's Grand Performance "Song of Happiness"'. The more than 20-year gap between the origin as recorded in North Korean literature and the initial use of the term demands illumination.

Moreover, the assertion that "the era of Kim Jong-un has seen the highest number of grand performance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 Korean regime" is worth revisiting. This point, I believe, forms the crux of the paper. The increase in 'grand performances' as opposed to other forms of performance is significant. A more precise appraisal would be feasible if 'grand performances' were juxtaposed with other large-scale performance forms, such as 'grand mass gymnastics and artistic performances'.

The presentation also posits that "grand performances were conducted annually despite the double, triple economic crises brought about by sanctions and COVID-19." To begin with, the assertion that these performances were held every year is inaccurate. Moreover, the presenter seems to only speculate that the near-annual hosting of grand performances is because the Kim Jong-un regime, lacking sufficient legitimacy, attempts to overcome this deficiency through large-scale events. This could be why grand performances have underlying themes such as 'bloodline succession' and 'loyalty succession'. I am eager to hear the presenter's thoughts on this matter.

- Thirdly, there arises the issue of performance analysis. Predominantly, grand performances have been organized to mark significant anniversaries. During the Kim Jong-un era, the 2012 'Grand performance celebrating the Day of the Shining Star' took place on the first 'Day of the Shining Star' following Kim Jong-il's death on 17 December 2011. An exception to this trend is the 'Grand performance celebrating the 74th founding Anniversary of the DPRK', staged on 9 September 2022. I believe its significance merits further discussion. It seems to me this performance was held to commemorate the 10th anniversary of the Kim Jong-un regime. I am keen to hear the presenter's opinion on this matter.

- Fourthly, the intended message conveyed through grand performances necessitates thoughtful consideration. The paper posits, "The grand performances of the Kim Jong-un era serve as a political strategy that exhibits Kim Jong-un's confidence in presenting North Korea as a normal country." Yet, the precise meaning encapsulated by the term "North Korea as a normal country" remains ambiguous. Is it implying that North Korea is a typical nation, akin to others? Or is it suggesting a state that continues to function despite ongoing international sanctions? The qualities of this study may become clearer depending on one's interpretation of this.

- Fifthly, some concepts demand supplementation. The presenter mentioned that "the grand performances during the period of stability primarily centered on communicating the ideological message 'the Party is Kim Jong-un,' with narratives about the Party and mothers taking precedence over songs about previous supreme leaders." When precisely is this 'period of stability'? Instead of delineating Kim Jong-un's rule into the 'early period' and 'period of stability', it would arguably be more objective to classify it based on landmark events like the Party Congress or by chronological period.



2023년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북한사회변화연구 국제학술회의

# 페미니즘, 북한사회의 변화에 주목하기